

수영구 안내도



수영의 중요 문화유적



고려십육나한도(보물 제1832-1호)



좌수영성지 곰술(천연기념물제270호)



좌수영성지 푸조나무(천연기념물 제311호)



좌수영성 남문(시지정유형문화재 제17호)



자수책거리병풍(시지정유형문화재 제74호)



황련사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시지정유형문화재 제127호)



왕련사 몽산화상 육도보설(시지정유형문화재 제179호)



좌수영성지(시지정 기념물 제8호)



25의용단(시지정 기념물 제1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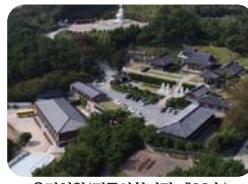
정과정 유적지(시지정 기념물 제54호)



영주암(전통사찰지정 제8호)



마애지장보살작상(시지정문화재자료 제7호)



옥련선원(전통사찰지정 제28호)

수영의 기타 문화유적



최영장군사당(무민사)



좌수사 선정비



정과정유적지(시비)



박인로가사비



수영성 남문터



수영성 장대 터



장대골순교지



최한복기념비



전소유허비



임진왜란 좌수영 무주 망령천도비



백산첨이대



안용복장군 사당



정과정유적지(전경)

수영의 무형문화재



수영야류(국가무형문화재 제43호)



좌수영여방놀이(국가무형문화재 제62호)



수영농청놀이(시지정무형문화재 제2호)



수영지신밟기(시지정무형문화재 제22호)



선화(시지정무형문화재 제19호)

수영의 문화시설



수영민속예술관



어린이 도서관



수영구 도서관



아외상설무대



수영구 생활문화센터



금련산청소년수련원



F1963



비콘그라운드

수영의 관광명소



광안대교



광안리해수욕장



수영사적공원



민락해변



금련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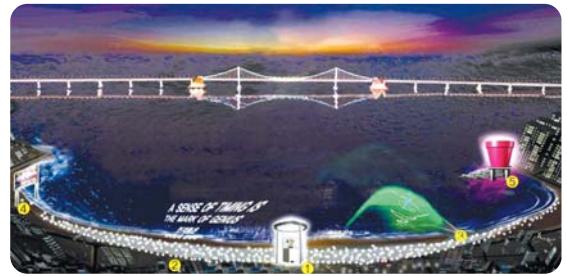
수영강 산책로



광안리해양레포츠센터



민락해변공원



바다빛미술관

백 님 준
Baek Nam Jun



① 디지테이션 Digitation

제니홀처
Jenny HOLZER



② 빛의 메시지 For Busan

심문섭
Sim Mun Seop



③ 섬으로 가는 길 Road to Island

사흘 드 모
Charles de MEAUX



④ 영상 인터랙티브 Interactive

장 피에르 레노
Jean-Pierre RAYNAUD



⑤ 생명의 원천 Le pot

안 카슬레
Yann KERSALE



⑥ 은하수 바다 Equine

수영의 축제



광안리여방축제



수영전통달집놀이



수영전통민속예술제



카운트다운 부산



광대연극제



광안리 M 드론 라이트쇼



부산불꽃축제



차없는 문화의 거리

수영의 연혁

삼한시대

진한 소국의 영역에 속함

신라의 거칠산군에 속함

동래군에 속함 (경덕왕 때 명칭 바꿈)

동래현에 속함 (현종 연간에 일시적으로 올주에 속함)

동래부 남촌면에 속함 (명종 때 동래부로 승격)

동래군에 속함

부산부 행정구역확장 부산진출장소

동래군 수영과 해운대 일부 부산부 편입

(수영출장소 설치)

부제폐지 부산시로 개칭

부산시 대연출장소 설치

구제실시 부산진구 대연출장소(6개 동)와

동래구 수영출장소(3개동) 개편

부산직할시 승격(6구 7 출장소)

남구로 승격

지방자치구제 실시(II자치구)

부산광역시로 명칭변경

수영구 신설(남구에서 분구)



차 례

제 1 편 수영구 변천사

1. 선사시대	16
2. 삼한시대	17
3. 삼국시대	17
4. 통일신라시대	18
5. 고려시대	18
6. 조선시대	20
7. 일제강점기	21
8. 해방 이후	21
9. 수영구 탄생	21

제 2 편 동의 유래 및 수영의 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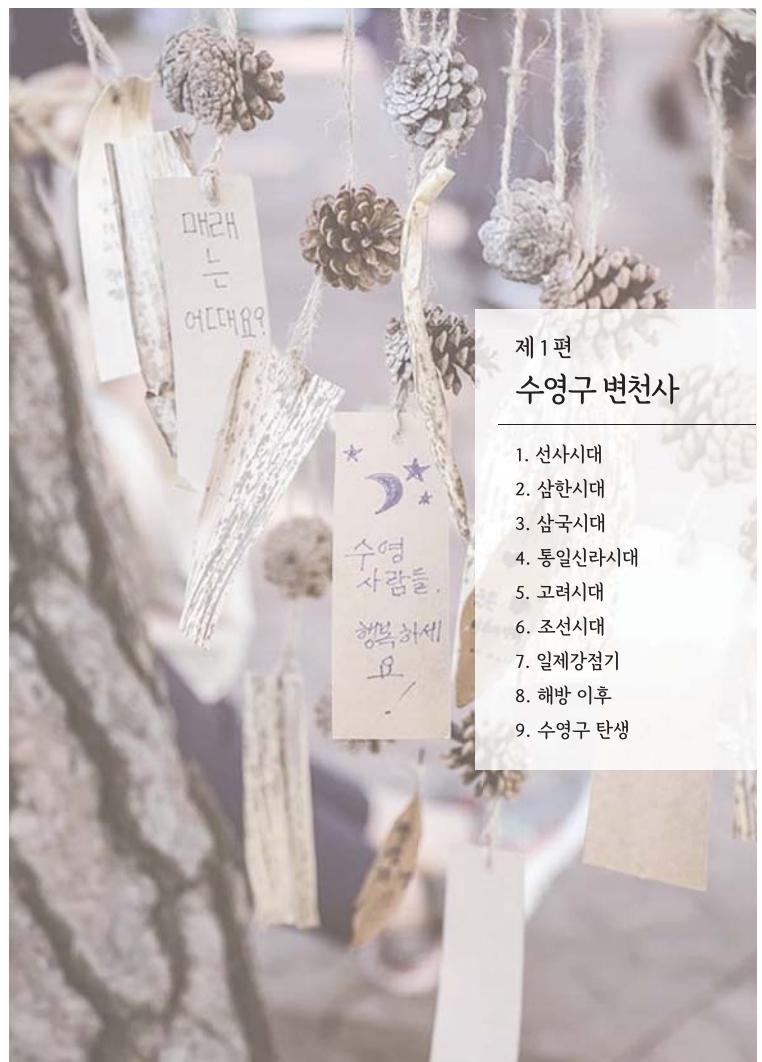
1. 동 이름 유래	23
2. 수영의 인물	32

제 3 편 수영사적공원과 문화재

1. 보물	36
2. 천연기념물	37
3. 유형문화재	39
4. 무형문화재	44
5. 기념물	49
6. 문화재자료	55
7. 기타유적	56
8. 명승지	65
9. 수영사적공원 정비복원	79

부 록

1. 수영의 문화시설	80
2. 수영자랑 13가지	86
3. 부산의 문화재 현황	92



제 1 편 수영구 변천사

1. 선사시대
2. 삼한시대
3. 삼국시대
4. 통일신라시대
5. 고려시대
6. 조선시대
7. 일제강점기
8. 해방 이후
9. 수영구 탄생

제1편 수영구 변천사

선사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수영구의 역사는 부산(동래)이라는 큰 울타리 속에서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부산(동래) 속의 수영이라는 지역에 초점을 두고 수영의 연혁과 행정구역에 대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1. 선사시대

한반도 인류가 처음으로 살기 시작한 것은 구석기시대 부터로 수영구에서 멀지 않은 해운대 신시가지와 청사포에서 구석기 유물이 발견되기도 하였다.

그 후 신석기, 청동기시대를 거치면서 미숙한 단계이지만 농경생활의 시작과 정착생활이 확대되면서 정치집단의 등장으로 사회의 모습이 변모하여 갔다.

특히 이 시기 주목되는 것은 지금의 부산시가지의 큰 틀이 청동기시대를 거치면서 형성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 시기에 부산(동래) 수영구에 언제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하였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지금의 수영강 유역에서 청동기 유물(좌수영 출토 마제 석검 - B.C.3세기)이 출토된 점으로 미루어 2,000여년 전부터 고대인 이 살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2. 삼한시대

삼한시대(A.D 1세기~3세기경)의 부산(동래)은 철기가 보급된 시기로써 철제 농기구를 이용한 농작물 생산, 철기의 국내외 무역으로 경제적인 안정을 찾고 재부를 축적하고 철제무기를 통한 정복전쟁으로 정치적인 지배세력이 성장하기 시작한 시대이다.

3세기경에 편찬된 중국 사서 『삼국지』「위지」 동이전의 한전, 변진(변한)전에 그 당시 삼한인들의 생활과 사회상에 대하여 전하고 있다.

이 삼한 중 지금의 부산(동래)과 김해 일대 즉 기야는 변한에 소속되어 있고 변한에 올라 있는 24국 중 부산(동래)은 독로국에 속해 있었다는 설이 유력시 되고 있다.

이 시기에 수영구는 진한 영역에 속해 있었다.

3. 삼국시대

삼국시대의 부산(동래)은 신라의 거칠산군·군에 편제되었으나 문화적으로는 가야문화권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었다.

그러나 5세기 이후 신라가 가야를 완전히 정복한 후에는 부산(동래)지역은 정치적, 문화적으로 신라의 세력권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 시기에 수영구는 신라의 거칠산군에 속해 있었다.

4. 통일신라시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8세기 중엽 경덕왕 시대에 이르러 종래의 고유한 주·군·현의 명칭을 중국식으로 개정함에 따라 거칠산군도 동래군으로 그 명칭이 바뀌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고읍성이 해운포에 있으며 동남쪽은 석축, 서북쪽은 토축인데 둘레가 4,430척이며 지금은 퇴폐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부산지방병무청사 이전 당시 실시한 발굴조사에서 통일신라시대의 유구가 출토되어 현 동래읍성이 축조되기 이전 시기에 수영구 망미동 일원에 동래고읍성이 위치하여 부산의 중심으로서의 역할을 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 시기에 수영구는 동래고읍성이 위치한 실질적 부산의 중심지였다.

5. 고려시대

통일신라말에서 고려초에 이르는 시기는 중앙통치력의 약화를 틀타서 지방 호족 세력의 활동이 극심한 난맥상을 보이면서 전개되었다.

그들 중에서도 후삼국의 맹주로 등장한 견훤과 왕건은 서로 치열한 세력 다툼을 벌였다. 그 결과 최후의 승리자가 된 왕건은 혼란한 지방 통치력 회복을 위하여 강압과 학유의 양면책을 적절히 시행하면서 중앙집권력 강화의 기초를 닦았고, 성종 때에는 지방의 중요 지점에 외관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고려시대의 중앙집권적 지방통치 구조는 제8대 현종 연간을 통하여 기본

골격이 구축되고, 이 때 동래군을 현으로 격하하여 일시적으로 올주(蔚州)에 소속시키고, 그 속현이었던 동평현은 양주(양산)에 소속 시켰다가 곧 환원되었다. 대체로 이 시기에 지방 군현의 변경은 정치적 성향과 깊은 연관을 갖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고려 인종 이후 중앙 정계에 진출한 것은 당시 동래 정씨와 고려 왕실과의 깊은 유대관계 속에서 그 기초가 형성되었고 정서가 모합을 받아 귀향형을 당하여 수영강변에 정자를 짓고 정과정곡을 지어 오늘날까지 전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의 실상을 입증함은 물론 국문학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고려말에는 왜구의 침입이 심해짐에 따라 부산(동래)지방은 국방상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고려말기에서 조선초기 사이 현재의 동래읍성이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이전까지는 수영 망미의 동래고읍성이 부산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다.

《고려사》에 보면 충정왕 2년(1350), 공민왕 10년(1361), 우왕 2년(1376)에는 동래, 우왕2년 12월에는 동평현에 각각 왜구가 침범하여 동남 연안 지역에 대규모의 피해를 입힌 내용이 전한다.

**이 시기에 부산의 중심이 동래고읍성에서
동래읍성(현재의 동래)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6. 조선시대

조선 초기의 부산(동래)은 계속되는 왜구의 약탈 행위가 더욱 심각한 사태로 대두되면서 조선 정부에서는 이 지역의 군사적 중요성을 인정하여 이에 좌수영성, 부산진성, 봉수대 등의 군사시설을 설치하였다.

1592년 임진왜란이 발발하였고, 조선과 일본은 국교가 단절되었으며, 이후 7년 동안의 전쟁이 끝나고 마침내 국교가 재개되었다.

이 시기의 수영구는 동래부 남촌면에 속해 있었으며, 임진왜란 당시 동해쪽의 해상방어를 담당했던 경상좌도수군절도사영이 있었던 곳으로, 경상좌도의 수군 진영은 모두 수사의 관할 아래 있었다.

임진왜란 때 관군의 패배와는 달리 수영민들의 충절과 기백을 보여준 대표적인 분들이 지금 수영 25의용사에 모셔져 있다.

이들은 경상좌수사 박홍이 성을 적에게 내 맡긴 채 도망하자, 진장의 지휘관도 없는 위급한 때를 당하여 오로지 죽음을 맹세하고 충의심을 발휘하여 적과 싸우다가 몸을 바친 좌수영 소속의 수군과 성민 25명으로서 우리 모두의 가슴속에 영원히 살아 있는 이 고장의 선열들이다.

7. 일제강점기

수영구는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동래군에 소속되었다. 1936년 4월 1일에 동래군 용주면과 남면 일부가 부산부로 편입되면서, 부산진출장소(대연동, 용호동, 용당동, 우암동, 감만동) 소속으로 되었다.

1942년 10월 1일에 동래군의 수영과 해운대의 일부가 부산부에 편입되면서, 수영출장소(수영동, 광인동, 민락동)가 설치되었다.

8. 해방 이후

1949년 8월 15일에 부(府)제가 폐지되고 시(市)제가 실시되면서 수영구는 부산시에 속하게 되었고, 그 후 1953년 9월 10일에는 부산시 대연출장소(대연동, 용호동, 용당동, 감만동, 우암동, 남천동) 소속이 되었다.

1957년 1월 1일에는 구(區)제의 실시로 부산진구 대연출장소와 동래구 수영출장소로 개편되었다가 1973년 3월 10일에 그 당시 구 승격 직전의 관할구역을 대부분 포함하는 부산직할시 대연출장소로 승격하였다.

9. 수영구 탄생

1975년 10월 1일에 남구로 승격하였고, 1988년 5월 1일에는 지방자치구 제(11자치구)가 실시되었으며, 1995년 1월 1일에는 부산광역시로 명칭이 변경되고, 동년 3월 1일에 남구와 분구(分區)되어 수영구가 신설되었다.

제 2 편
동 이름의 유래
및 수영의 인물

1. 동 이름의 유래

- 가. 남천동
- 나. 수영동
- 다. 망미동
- 라. 광안동
- 마. 민락동

2. 수영의 인물

- 가. 박중질
- 나. 박 흥
- 다. 변봉금
- 라. 안용복
- 마. 25의용
- 바. 정 서
- 사. 최한복



제 2 편 동 이름의 유래 및 수영의 인물

1. 동 이름의 유래

가. 남천동(南川洞)

1) 역사

○ 고로(古老)들의 전언에 의하면 이곳에 마을이 형성된 것은 약 400년 전이었다고 한다. 남천동의 역사가 오래된 한 증거로는 마을 뒷산인 금련산 기슭의 가장골에 언제 부터 있어왔는지 모르지만 동제당이 있다.



〈1970년대 남천동 주변〉

남천동은 대연동과 남천동의 경계지점인 황령산과 금련산 계곡에서 발원하여 수영만 바다(광안리 해변)로 흘러드는 3,280m의 남천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옛날에는 남천동과 대연동 사이의 모든 해안을 통칭하여 남천만이라 한 것으로 보아 남천이 대단히 넓은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1740년에는 동래부 남춘면 남천리 였으나 1914년 4월 1일 동래군 용주면 남천리, 1942년 10월 1일 부산부 수영출장소 남천동, 1953년 9월 10일 부산시 부산진구 대연출장소 남천동, 1975년 10월 1일 부산직할시 남구 남천동, 1983년 10월 1일 남천동이 1·2동으로 분동, 1995년 3월 1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1·2동이 되었다.

2) 마을 이름 유래

○ 중골산 : 지금의 삼이 아파트 자리에는 예전에 야산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 형상이 죽은 용의 형상이라 하여 '죽은골산' 혹은 '중골산'이라 불렸다.

- 남청이 : 옛 사람들은 남천동을 남천이 흐르는 곳이라 하여 '남청이'라 불렀다.
- 범바우들 : 옛날 남천동의 가운데 있는 들판을 '범바우들'이라 불렀는데, 이는 남천동 산자락에 범모양의 바위가 있어서 불렀다고 한다.
- 흄대거령 : 옛 사람들은 남천을 흄대거령이라고도 불렀다. 골짜기에서 맑은 시냇물이 흄을 타고 흘러 내리듯 빠르게 흘러내렸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 가장골 : 남천동의 뒷산 골짜기를 가장골이라 불렀다.
- 자연마을 : 남천리, 대리마을, 사폐마을, 삼폐마을, 이폐마을, 일폐마을 등이 있으나 지금으로서는 정확한 지역을 지정하기가 어렵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동래현 고적조, 《동래부지》 《대동중답분파각동도록》 등에 기록이 나온다.

나. 수영동(水營洞)

1) 역사

- 수영동에 언제부터 마을이 생겨서 사람 이 살아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으나, 고려 현종 12년 (1021)에 동래군의 군치소(郡治所)를 지금 의 수영에서 동래읍으로 옮겼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그 이전에 이미 마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수영동은 조선시대에 동래부 남촌면에 속해 있었는데, 이 남촌면 중에도 동부리, 서부리, 북문외리, 남문외리가 오늘날의 수영동에 해당된다. 수영동은 조선시대 경상좌도수군절도사영(慶尙左道水軍節度使營)이 있었으므로,



〈1950년대 수영동 주변〉

- 남청이 : 옛 사람들은 남천동을 남천이 흐르는 곳이라 하여 '남청이'라 불렀다.
- 범바우들 : 옛날 남천동의 가운데 있는 들판을 '범바우들'이라 불렀는데, 이는 남천동 산자락에 범모양의 바위가 있어서 불렀다고 한다.
- 흄대거령 : 옛 사람들은 남천을 흄대거령이라고도 불렀다. 골짜기에서 맑은 시냇물이 흄을 타고 흘러 내리듯 빠르게 흘러내렸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 가장골 : 남천동의 뒷산 골짜기를 가장골이라 불렀다.
- 자연마을 : 남천리, 대리마을, 사폐마을, 삼폐마을, 이폐마을, 일폐마을 등이 있으나 지금으로서는 정확한 지역을 지정하기가 어렵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동래현 고적조, 《동래부지》 《대동중답분파각동도록》 등에 기록이 나온다.

나. 수영동(水營洞)

1) 역사

- 수영동에 언제부터 마을이 생겨서 사람 이 살아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한 기록이 없어서 알 수 없으나, 고려 현종 12년 (1021)에 동래군의 군치소(郡治所)를 지금 의 수영에서 동래읍으로 옮겼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그 이전에 이미 마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수영동은 조선시대에 동래부 남촌면에 속해 있었는데, 이 남촌면 중에도 동부리, 서부리, 북문외리, 남문외리가 오늘날의 수영동에 해당된다. 수영동은 조선시대 경상좌도수군절도사영(慶尙左道水軍節度使營)이 있었으므로,



〈1950년대 수영동 주변〉

수군에서 '수(水)'자와 절도사영에서 '영(營)'자를 따와서 수영이라 한 데서 동명이 생겨났다.

수영동은 1914년 4월 1일 동래군 남면 수영리에서 1942년 10월 1일 부산부 수영출장소 수영리, 1957년 1월 1일 부산시 동래구 수영출장소 수영동, 1973년 3월 10일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대연출장소 수영동, 1975년 10월 1일 부산직할시 남구 수영동, 1995년 3월 1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이 되었다.

2) 마을 이름의 유래

○ 남수 : 수영동을 일제강점기에는 남수리(南壽里)라고도 했다.

○ 좌수영장 : 조선후기 부산지역의 5일장으로 동래읍내장, 좌수영장, 부산장, 독지장, 하단장이 있었다.

좌수영 앞에 열렸던 좌수영장은 1876년 이후 자료에는 5일과 10일장으로 되어있다. 현재의 수영말도시장의 전신으로 볼 수 있다.

다. 망미동(望美洞)

1) 역사

○ 망미동은 삼국시대에는 거칠산군이었는데 현재의 망미1동 부산지방병무청이 그 중심지였으며 성곽이 있었다고 한다. 이곳의 지명은 조선시대에는 동래부 남촌이었으나 한말에는 동래부 남상면으로 개칭되었으며, 일제에 병합된 후 동래군 남면으로 개칭되었다.



〈1950년대 수영강 주변〉

일제 때 망미동은 동래군 남면 남수리(南壽里)라 하고, 숭정리(崇亭里)는 망미리(望美里)라 했다. 망미리라 이름하게 된 유래는 고려시대 충신 정서(鄭徐)가 이곳에서(지금의 망미2동 수영강) 귀양살이를 하면서 초하루와 보름날에는 북쪽을 바라보며(望) 임금(美)을 향하여 절을 했다는 뜻에서 생겼다는 말도 있고, 망미동 망산(望山)의 망(望)자와 배미산(盃美山)의 미(美)자를 합쳐서 되었다는 말도 있다.

망미동은 1914년 4월 1일 동래군 남면 수영리에서 1942년 10월 1일 부산부 수영출장소 수영동, 1957년 1월 1일 부산시 동래구 수영출장소 수영동, 1973년 10월 1일 부산직할시 남구 수영동, 1979년 1월 1일 수영동에서 분리되어 망미동으로 독립, 1982년 9월 1일 망미1·2동으로 분동, 1995년 3월 1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1·2동이 되었다.

2) 마을 이름의 유래

○ 구락리(鷀樂里) : 망미2동의 수영강변에 옛날에는 흰 모래가 많았는데, 이곳에 흰 갈매기가 많이 날아와 놀고 있어서 그렇게 불렀다는 말도 있고, 이곳이 빨이었는데 황새들이 많이 날아와서 그렇다는 말도 있다.

○ 오옹건너 : 정서(鄭徐)가 정과정 모래톱에서 귀양살이를 할 때 건너편 해운대 쪽의 들녘에 참외와 오이를 가꾸며 지냈는데, 오이 할아버지가 건너다니던 곳이라 하여 이를 붙여졌다라는 말도 있고, 이곳에서 용두갑까지 정서를 나룻배로 건네준 노어부가 있었는데 성씨가 오씨였으며, 오옹이 나룻배로 건네주었다고 하여 이 나룻터를 오옹건너라고 불렀다는 말도 있다.

지금의 망미2동 4~7번지 일원으로 1985년도에 토향회(土鄉會)에서 화강암으로 된 시비를 세워 놓았다.

○ 조치막(調治幕) : 망미1동 815번지 자리를 말하는데, 옛날에 음식물을 조

리하던 장소여서 붙여진 이름이다. 조니골(調尼谷)이라고도 한다.

- 옥성골(鶴城谷) : 망미1동 445번지, 지금의 부산지방병무청의 북편인데, 옛날에 이곳에 옥사(獄舍)가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새양골(혹은 시양골) : 망미1동 537번지, 옛날에 이곳에 서당이 있었다고 서당골이라 한 것이 음이 변전하여 새양골 혹은 시양골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풋고개 : 배산의 동쪽에 있었던 고개로 지금의 연산동 망미 주공아파트 앞 길이 이에 해당된다.

풋고개의 이름은 배산 동쪽 기슭 입구 남쪽으로 향한 오목한 자리에 토곡마을이 있었다. 그 토곡으로 해서 '토곡고개'라 한것이 줄어들어 '풋고개'가 되고 '토고개'를 한자로 표현한 것이 '토현(土峴)'이 된 것이다.

라. 광안동(廣安洞)

1) 역사

- 광안동에 언제부터 마을이 형성되어 사람�이 살아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조선시대 후기에는 남문외리에 해당하는 곳이다. 8:15해방 전에는 수영로 윗쪽을 윗각단(윗뜸), 아래쪽을 아래각단(아래 뜰)이라 불렸고, 남천동쪽을 옛날부터 범의 형상을 한 바위가 있다고 하여 범바우(虎岩)라 불렸다.



〈1950년대 광안동 주변〉

광안(廣安)이란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은 현재의 광안리 해수욕장인 남촌(南村) 앞 사장(沙場)을 남장(南場)이라 했는데, 그 남장에는 넓은(廣) 모래 언덕(岸)이 있어 广岸이라 썼다. 그 광안의 안(岸)을 덕명인 편안할 안(安)으로

수영 역사 문화 팀방

고쳐 광안(廣安)이라 쓰고 있다.

- 광안동은 1740년(영조 16년) 동래부 남촌면 축산동에서 1903년(광무 7년) 동래부 남상면 광안리, 1910년 동래부 남면 광안리, 1942년 10월 1일 부산부 수영출장소 광안리, 1946년 10월 1일 부산부 수영출장소 광안동, 1957년 1월 1일 부산시 동래구 수영출장소 광안동, 1975년 10월 1일 부산직할시 남구 광안동, 광안 1·2동 분동, 1979년 8월 8일 광안 1동이 광안 1·3동으로 분동, 1982년 9월 1일 광안 2동이 2·4동으로 분동, 1995년 3월 1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 1·2·3·4동이 되었다.

2) 마을 이름의 유래

- 범바위 : 광안 4동의 베네딕도 수녀원 근처에 범 모양의 바위가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장대골 : 장대란 적의 침략을 살피는 군사시설의 하나였고, 조선시대 수영 중학교 뒷편에 장대(將臺)가 있었다. 이곳에서 매년 10월 1일 좌수영 수사가 무사들의 무예를 시험했던 곳이라 한다.
- 어구정(蠻甿亭) : 현 광안동 842번지에 어구정이란 정자가 있었다. 이곳은 수영무사들의 궁술 훈련장이었다.
- 칠포영(溪浦營) : 지금의 광안리 해수욕장 부근에 임진왜란 직후에 수군이 주둔했던 칠포영이 있었는데, 무관 종4품의 만호를 수장으로 하는 만호영을 홍해에서 옮겨와서 광안리 일대의 바다를 방위토록 했다.

마. 민락동(民樂洞)

1) 역사

- 민락동에 언제부터 마을을 이루어 사람이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구전에 의하면 백산 북쪽의 '보리전(泡梨煎-泡伊鎮)'마을과 백산 남쪽의 '널구지(널꽃이-板串里)'마을은 약 300년 전부터 있어 왔다고 한다.

일제 때는 널구지 마을을 평민동(平民洞)이라 했고, 보리전 마을을 덕민동(德民洞)이라 했는데, 이 두 마을을 합쳐서 민락동이라 불렀다.

민락(民樂)은 여민동락(與民同樂), 여민해락(與民偕樂)의 준말로서 임금은 즐거움을 홀로 차지하지 않고 백성과 함께 즐긴다는 뜻이 있다. 마을 고로(古老)들에 의하면 민락동의 유래는 수영 수사(水使)가 수졸(水卒)을 훈령할 때 진산(鎮山-진조말산)에서 군악(軍樂)을 연주해서 그렇다고 하나 실상을 알기는 어렵다.

민락동은 8·15 해방 전까지만 해도 어업을 주업으로 하고 약간의 농사를 지으면서 조용하게 살아가던 50여 가구의 어촌이었으나, 1926년도에 시작된 중앙 부두 조성에 따라 중앙 부두 인근에 살던 주민들이 정책적으로 이곳에 옮겨와서 살게 되고, 1969년도에 완공된 신부산 구획정리사업으로 널구지에 56,100m²(17,000평) 규모의 부지를 조성하여 태창목재 주식회사가 설립되면서 민락동이 현대 산업사회로 변모하게 되었다.

민락동은 1740년(영조 16)에 동래부 남촌면 감포리에 소속되어 있다가 1914년 1월 1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평민동(널구지)과 덕민동(보리전)을 합하여 민락동이 되었고, 1936년 4월 1일 부산부 부산진출장소에 소속되었다가 1941년 3월 1일 동래군 용주면에 소속되었다.

1942년 10월 1일 부산부 수영출장소 민락리, 1957년 1월 1일 부산시 동래구 수영출장소 민락동, 1975년 10월 1일 부산직할시 남구 민락동, 1995년 3월 1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이 되었다.



〈1950년대 민락동 본동〉

2) 마을 이름의 유래

○ 널구지 : 지금의 민락초등학교 동편 민락교 부근을 널구지라 했다. 널구지는 판곶(板串)이라고도 했는데 이는 주변이 평평하게 넓은 티끌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보리전 : 지금의 수영교 근방을 보리전이라 하며, 이곳이 조선시대 좌수영 산하의 포이진(包伊鎭)이 있던 곳이다. 보리전이라 부르게 된 데는 두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포이진의 음이 변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선시대 좌수영 산하에 범법자가 곤장을 맞기 위하여 보리 양식을 매고 와서 기다리는 곳이었다는 데서 유래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 광기전(廣器塵) : 각종 그릇 종류와 목물류를 팔고 사는 시장이 형성되어 서 붙여진 이름이다.

○ 백산(白山) : 민락동의 주산으로 백산 꼭대기를 백자대(白紫臺)로 부르기도 했다. 백산이라 부르게 된 데는 몇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수영강의 안개가 이 산을 하얗게 덮고 있어서 붙여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영교 부근이 옛날에는 갈대밭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학들이 날아와 백산에 놀곤해서 백학산(白鶴山), 백산이라 불렀다 한다.

또한 백산의 모습이 수영을 두고 바다를 향해 달아나는 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하여 수영아류(무형문화재 제43호)의 제4과장에서는 담비(범-호랑이)를 사자의 머이로 주며 달래고 있다.

○ 포이포(包伊浦) : 원래 울산의 장기에 있었던 수군영 이었으나 임진왜란을 겪고 나서 동래군 남촌(수영)으로 옮겨 왔는데, 지금의 수영교 근방이라 보고 있다.

○ 칠포리(漆浦里) : 원래 경북 흥해에 있던 '수군영'이었으나 임진왜란 후 부

산포로 옮겨 왔다가 다시 동래군 남촌면(수영)으로 이전하였다. 지금의 민락동 진조말산 서남쪽 부근으로 보고 있다.

○ 감포(甘浦) : 원래 경주에 있던 수군영이었으나 임진왜란 후 부산포로 옮겨 왔다가 다시 동래군 남촌면(수영)으로 옮겨 왔는데, 지금의 민락동 진조말산 동쪽 부근으로 보고 있다.

○ 진조암(眞潮岩) : 민락동 남단 진조말산에 있는 자연석 바위이다. 조선시대 그 해의 첫 어로작업이 시작 되던 날, 수영 수사(水使)가 이곳에 나와 의자처럼 생긴 바위에 앉아 어부와 수군들을 격려하였다고 하며, 이곳은 수영강과 바닷물이 합쳐지는 곳으로서 고기가 많이 잡힌 곳으로 유명하다.

○ 첨이대(覘夷臺) : 일명 '첨이대'라고 하며 조선시대 이곳 바다를 침략하는 왜구들을 살피는 망대가 있었던 곳이다. 수영강 하구의 진조말산 남단에 있다.



2. 수영의 인물

가. 박중질(朴仲質) : 고려말의 무관으로서 동래 현령을 하다가 나중에 수영 지역의 염장관(소금을 만드는 염장의 관리)이 되었다고 한다. 이성계가 역성혁명(易姓革命)을 일으켜, 최영장군이 죽음을 당하자 그의 막하 장수였던 박중질은 수영의 염부들을 선동해 반란을 일으켰다가 삼족이 멸하는 화를 입었다고 한다. 수영지역에 모셔진 최영장군 사당에 그의 넋이 함께 있다고 보고 기려왔다고 하나 정확한 문헌적 연구가 된 것은 아니다.

나. 박홍(朴泓, 1534-1593) : 조선시대의 무신으로 자(字)는 청원(淸原)이고 본관은 울산(蔚山)이며, 1556년(명종 11)에 무과에 급제하였다. 경상 좌수사로 와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겁을 먹고 수영성을 버리고 혼자 도망을 갔던 관계로 역사에는 출장(出牆)으로 남아 있다.

다. 변봉금(卞鳳今, 1880-1958) : 일제 강점기(日帝強占期)에 독립운동에 이바지한 부부 항일투사(夫婦抗日鬪士)로서 그의 남편은 최상운(崔尙雲)이다. 변봉금은 부산진 좌천동에서 조선조 말 부산첨사 밑에서 무장을 지낸 변광지(卞光之)의 셋째딸로 태어났다. 19세에 30세 노총각인 최상운과 결혼하여 서울(연지동), 만주, 부산 수영 등지에 살면서 독립운동을 지원했다. 수영에서는 당시 많은 독립투사들이 변봉금의 집에 피신해서 숨어 살고 있었다.

라. 안용복(安龍福) : 좌수영 수군의 능로군(노 젓는 병사)에 속해 있던 군졸로서 1693년(숙종 19)과 1696년(숙종 22) 두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 동해의 울릉도와 독도를 침략한 왜인들을 물이내고 일본으로 건너가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약 받아온 사람이다. 후세 사람들에 의해 장군으로 봉해졌으며, 그의 충절을 기리는 사당이 수영동 수영사적공원 내에 있다.

마. 25의용(義勇) : 25의용이란 임진왜란 때 경상좌수사 박홍이 성을 버리고 도망쳐버리자 이 곳 수군과 성민 등 25인이 7년 동안 왜군과 맞서 싸운 항토의 의병결사대를 말하는데, 25의용의 넋을 모셔놓은 25의용 사당이 수영동 수영사적공원내에 있다.

▶ 25의용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水營 25義勇 諸人 (無順)

김옥계(金玉戒), 정인강(鄭仁彊), 최승엽(崔松葉), 최수만(崔守萬),
박지수(朴枝樹), 김평령(金彭良), 박응복(朴應福), 심 님(沈 男),
이은준(李銀春), 정수원(鄭壽元), 박 림(朴 林), 신 복(辛 福),
이 수(李 壽), 이희복(李希福), 최한연(崔汗連), 최한손(崔汗孫),
최막내(崔莫乃), 최밀령(崔堯良), 김달명(金達亡), 김덕봉(金德奉),
이실정(李實貞), 김하농(金許弄), 주난금(朱難金), 김종수(金從守),
김진옥(金進玉)

바. 정서(鄭敍, 호는 과정 瓜亭) : 고려 의종(毅宗) 때 충신으로 익을하게 역모죄로 몰려 동래로 귀양을 와서 지금의 수영구 망미2동 4-7번지 인근의 수영강변에서 오이를 기르며 살았다. 그가 임금을 그리며 자은 유명한 가사인 정과정곡은 《악학궤범》에 실려 있다. 수영강변 정과정유적지에 그를 기리는 시비가 세워져 있다.



(정과정 시비)

내 남를 그리△와 우니다니
山(산) 접동새 난 이슷흐요이다.
아니시며 거즈르신 둘 아으
殘月曉星(잔월효성)이 아무시리이다.
넉시라도 남은 혼디 너찌라 아으
벼기더시니 뉘려시니잇가.
遇(과)도 허물도 千萬(천만) 업소이다.
ложения마리신더
술웃분더 아으.
니미 나를 향마 나즈시니잇가.
아소 남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서.

(악학궤범 제5권에서)

사. 최한복(崔漢福 1895~1968) : 수영에서 태어나서 서울의 보성(普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40년간을 초등학교 교사로서 향리의 후진들을 교육했다. 말년에는 고등공민학교를 몸소 세워 가난해서 중학교에 못 들어간 학생들을 모아 가르쳤다. 일제 침략기에는 우리 역사 발굴과 보존에 힘을 쏟아 25의용단 제향의 맥을 잊기 위하여 몸소 집례를 주관하여 야간에 제를 올리기도 했다. 해방 후에는 수영의 향토사 발굴에 힘을 쏟아 '수영야류'를 발굴 복원하고 수영 역사서인 '수영유사'를 직접 저술하여 후세에 수영지역의 문화재 발굴과 역사정리에 힘을 쏟기도 하였으며, '수영팔경'을 발굴하여 국문학지에 알리는 등 수영지방을 위해 노력한 진정한 향토 교육자이다.



제 3 편 수영사적공원과 문화재

1. 보물
2. 천연기념물
3. 유형문화재
4. 무형문화재
5. 기념물
6. 문화재자료
7. 기타유적
8. 명승지
9. 수영사적공원 및
좌수영성지 복원

수영 역사 문화 팀방

제 3 편 수영사적공원과 문화재

1. 보물

- 고려 십육나한도(제7 가리가존자) (高麗 十六羅漢圖(第七迦理迦尊者))
○ 지 정 : 보물 제1882-1호(2016.01.07.)
○ 소재지 : 부산 수영구(소유자 : 현승훈)
○ 내 용 : 이 나한도는 16나한도 중 제7 존자인
가리가존자를 표현한 것으로, 의자에 앉아 고요
하게 사색하는 이국적인 모습의 수행자를 수묵
담채로 담담하게 담아내었는데, 바위와 수목을
배경으로 하는 고려 오백나한도와 화연히 구분
되는 도상적 특징이다. 이 작품은 국토의 태평,
국왕의 장수 등을 발원하며 병신년에 그려진 것
인데, 필선과 색채, 표현방식 등에서 1235년에서 1236년 사이에 제작된
고려 나한도와 거의 같은 내용과 형식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의
제작시기인丙申年은 1236년으로, 다른 나한도와 마찬가지로 동량(棟梁)
김의인(金義仁) 등 무인들의 주도 하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불화가 제작될 당시는 몽고의 병란이 있었던 국가적 위기의 상황으로, 국
난 시 크게 베풀어졌던 나한 신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제작된 사례로
그 역사적 의의가 있다. 이 불화는 고려시대 제작된 나한도와 16나한도
중 몇 안 되는 작품 중 하나이며, 16나한도로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제15
아벨다존자와 이 작품이 유일하다. 현존하는 고려불화 중 13세기에 제작
된 불화는 매우 드물고 특히 16나한도는 그 예가 거의 없어, 이 작품은 고
려시대 16나한 신앙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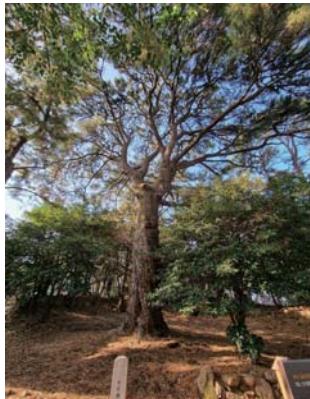


〈고려 십육나한도〉

2. 천연기념물

가. 부산좌수영성지 곱솔

- 지 정 : 천연기념물 제270호(1982. 11. 9)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성로 43(수영사적공원 내)
- 내 용 : 수영사적공원 입구인 수영성 남문에서 10m 떨어진 곳의 보호침책 울타리 안에 있으며, 수령(나무나이)이 약 400년 이상된 해송종류의 오래된 나무로서, 좌수영성 수군(水軍)의 군신목(軍神木)이다. 나무의 높이는 27m, 나무 둘레는 4.5m, 수관의 폭은 23.5m 정도이다. 옛날 좌수영이 이곳에 진영을 갖추어 군선을 제조할 때면 이 나무에 목신(木神)이 있어 제조한 군선을 보호한다고 믿어 이 나무에 군사들이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부산좌수영성지 곰솔〉

나. 부산좌수영성지 푸조나무

- 지 정 : 천연기념물 제311호(1982. 11. 9)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성로 43(수영사적공원 내)
- 내 용 : 수영사적공원 남문에서 서쪽으로 약 50m정도 떨어진 보호철책 울타리안에 있으며, 수령(나무나이)이 약 500년 이상된 느릅나무과의 오래된 나무로서, 마을의 안녕을 지켜주는 지신목(地神木)이다. 나무의 높이는 17.2m, 수관의 폭은 24m 정도이다. 푸조나무에서 40m 떨어진 자리에 임진왜란 이전에 세워진 것으로 전해지는 수영고당(송씨합배당)이 있어 해마다 정월보름이면 한해의 무사안녕을 비는 마을제사를 지낸 후 수영아류를 연회했다고 한다. 이 푸조나무에는 송씨합배의 낚이 깃들어 있어 나무에서 떨어져도 다치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좌수영성지 푸조나무〉

3. 유형문화재

가. 수영성 남문(水營城 南門)

- 지 정 :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7호(1972.6.26)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성로 43(수영사적공원 내)
- 내 용 : 조선시대 경상좌수영성(京商左水營城)의 주문인 남문으로서 현재는 수영사적공원 입구에 보존되어 있다. 성문의 육축과 누각은 없어지고 홍예(아치형문)만 남아 보존되고 있다. 그 양측에 돌로 새겨진 박견(狛犬)이 석주(石柱) 위에 놓여져 있다. 이 남문은 원래 수영동 286-1번지의 좌수영성의 남문으로 있었으나, 한때 수영팔도시장 인근에 있었던 수영초등학교쪽으로 옮겨져 교문으로 이용하다가 현재의 수영사적공원 동쪽 입구로 다시 옮겨졌다.



〈수영성 남문〉

나. 자수책거리병풍(刺繡冊巨里屏風)

- 지 정 :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74호(2006.11.25)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황령산로 15번길 12
- 내 용 : 작품연대는 19세기(조선시대말기) 중반 이후에 제작된 8폭 병풍으로 기물들의 묘사가 아주 세밀하고 사실적이며 형태가 정확하고 반듯할 뿐 아니라, 명암법·투시도법이 적용되었고, 색채도 강렬한 원색보다 고이하고 은은한 톤이 주조를 이루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수준 높은 도화서 화원이 밀그림을 그리고 궁중의 수방(繡房)에서 궁수(宮繡)를 놓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묘사된 내용으로 보아 홍문관, 독서당, 규장각 등 궁궐의 입직소에서 사용하였거나 내사품으로 양반의 사랑재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며 현재는 부산대학교박물관에서 위탁관리중이다.



〈자수책거리병풍〉

다. 황련사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黃蓮寺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 지 정 : 부산광역시지정 유형문화재 제127호 지정(2013.5.8.)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97번 나길 25 황련사
- 수 량 : 6권2책(목판본)
- 관리단체 : 황련사
- 내 용 :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은 출여서『대방광원각경』,『원각수다라요의경』,『원각요의경』,『원각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체 중생의 본래성불(本來成佛)을 드러내는 '원각(원만한 깨달음)'을 설명하는데 있어 가장 뛰어난 경전이라는 뜻이 된다.
- 황련사 소장『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은 목판본으로 1588년(선조 21) 청도 운문사서 개판한 것이다. 6권 2책의 원본으로 책1에는 변상도(變相圖), 서(序), 권1~4, 시주질이, 책2에는 권5, 6과 시주질이 각각 수록되어 있다. 황지홍사(黃紙紅絲)에 오침안정법(五針眼訂法)의 선장(綱裝)으로 장장되어 있으며, 보존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이 책은 임진왜란 이전 판본으로 드물게 변상도가 있는 판본인데, 지금 까지 알려진 24종의 판종 중 변상도가 있는 판본은 황련사 소장 판본과 훨씬 후대인 1861년(철종 1)의 전봉사본(乾鳳寺本), 그리고 1883년(고종 20)의 봉인사본(奉印寺本) 뿐이다.

칠곡 송림사에 소장되어 있는 동일한 판본이 복장 전적 일괄 유물로 경상북도지정 유형문화재 제366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경판이 아직도 운문사에 장판되어 있다. 간행에 관련한 기록도 풍부하여 조선 전기 불교 판본 연구에 소중한 자료이다.

라. 황련사 몽산화상 육도보설(황련사 蒙山和尚 六道普說)

- 지 정 : 부산광역시지정 유형문화재 제179호(2017. 5. 24.)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97번나길 25
- 형 태 : 목판본(책자)
- 관리단체 : 황련사
- 내 용 : 「몽산화상 육도보설(蒙山和尚 六道普說)」은 중국 원나라의 임제종 승려인 몽산덕이(蒙山德異)가 승속(僧俗)이 모여 화엄경(華嚴經) 간송법회를 가진 뒤 그 공덕(功德)을 회향하기 위해 실행된 무차대회(無遮大會)에서 법회에 참여한 대중들을 위해 설해진 것이다. 그 내용은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입장에서 중생이 업에 따라 윤회하는 여섯 가지 길인 육도(六道), 즉 지옥도(地獄道) · 아귀도(餓鬼道) · 축생도(畜生道) · 악수라도(阿修羅道) · 인간도(人間道) · 천상도(天上道) · 성문(聲聞) · 연각(緣覺) · 보살(菩薩) · 불(佛)의 사성(四聖) 등 십계(十界)를 학인들에게 설법한 책이다.

이 「육도보설」은 현재 중국에서는 보이지 않고 우리나라에서만 현전하고 있다. 몽산의 「육도보설」에서 보설(普說)은 선종사원에서 집단의

협력,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동원과 교화의 수단인 보청(普請)이 발전한 것으로, 대중을 모아놓고 설법한 내용을 모은 형태이다. 이러한 보설은 불경을 근거로 들어 현실을 선사상(禪思想)에 연결시키고자 하는 현실성이 담겨있다. 법어(法語)가 높은 수준의 고승에게 설법한 이론을 담은 저술이라면, 보설은 승속을 포함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성, 보편성을 지닌다. 개인적, 소규모적이었던 선종이 불교계를 주도해 나감에 따라 대중과 사원의 규모가 커지고, 이에 따라 남송에서는 선종 임제종 양기파의 묵조선(默照禪)보다 간화선(看話禪)이 풍미하게 된다. 보설은 바로 이 간화선 풍미화의 결과로 당시의 불교계를 주도한 선종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부산 수영구 황련사 소장 「몽산화상육도보설」은 1539년(중종 34) 경상도 안동 하가산(下柯山) 광흥사(廣興寺)에서 간행된 13자본계의 목판본이다. 「몽산화상육도보설」은 고려 말 이후 현재까지 한국불교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온 蒙山德異의 저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간행시기가 임진왜란 이전으로 현존하는 전래본이 많지 않고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4. 무형문화재

가. 수영야류(水營野遊)

- 지 정 : 국가무형문화재 제43호(1971. 2. 24)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성로 43(수영사적공원 내)
- 내 용 : 수영야류는 약 250여년 전부터 수영지역에 연희되어 오던 들놀음으로서 초기 범마리 장터(현 경남 합천군 덕곡면 율지리)에서 전해져 왔다고 한다.

수영지역의 서민들이 타락한 양반계층을 희롱하던 이 텔놀음은 준비과정과 길놀이와 군무, 탈놀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반과장, 영노과장, 할미·영감과장, 사자무과장 등 4과장으로 연희된다. 정월 대보름날 저녁에 마을사람 전체가 모여 함께 즐기던 마을축제의 한 형태이다.

현재는 수영동 수영사적공원내에 있는 수영민속예술관에서 전수 보존되고 있으며, (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가 관리하고 있다.



〈수영야류〉

나. 좌수영어방놀이(左水營漁坊놀이)

- 지 정 : 국가무형문화재 제62호(1978. 4. 1)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성로 43(수영사적공원 내)
 - 내 용 : 좌수영(左水營)은 경상좌도수군절도사영(慶尙左道水軍節度使營)의 준말로 수영(水營)이란 지명이 여기서 유래 하였다. 수영은 연안 어업이 성하여 어업 협업체로 어방(漁坊)이 형성되었다. 어방놀이는 이 어방을 중심으로 멸치잡이와 고기잡이 교육을 하던 것을 현대에 맞게 재구성한 놀이이다. 후릿그물을 만들면서 부르던 내왕소리, 바다에 쳐놓은 그물을 끌어 당기면서 부르던 사리소리, 잡은고기를 퍼내어 소가래로 운반하며 부르던 가래소리, 모든 작업을 마치고 풍어를 자축하며 부르던 칭창소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영만 일원에서 멸치잡이 할 때 부르던 노래가 불려지며 매년 여름 해수욕장이면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재현되고 있다.
- 현재는 수영동 수영사적공원 내에 있는 수영민속예술관에서 전수 보존되고 있으며 (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가 관리하고 있다.



〈좌수영어방놀이〉

다. 수영농청놀이(水營農廳놀이)

- 지 정 :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호(1972.2.18)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성로 43(수영사적공원 내)
 - 내 용 : 수영은 조선시대 경상좌도수군절도사영(慶尙左道水軍節度使營)이 있었던 곳으로서 수영성 남·북문 주변에는 농업이 발달해 있었다. 따라서 이 지역에는 농사 협업체인 농청이 형성되어 1960년대까지 남아 있었다.
- 농청은 성인 남녀로서 구성되는데, 현재에 재현되고 있는 농청놀이는 한 해의 농삿일을 현대에 맞게 재구성한 것으로서 모심기 노래 등 벼농사와 관련된 농요가 함께 불리진다. 모찌기노래, 모심기노래, 김매기노래, 보리타작소리 등이 있다. 수영동 수영사적공원 내 수영민속예술관에서 전수되고 있으며 (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수영농청놀이〉

라. 수영지신밟기

- 지 정 :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2호(2014.1.1.)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성로 48(수영사적공원 내)
- 내 용 : 수영지신밟기는 250여 년 전부터 수영동 일원에서 정초에 가가 호호를 둘며 마을의 태평과 주민들의 제액초복을 벌어 주던 의례이자 정월 대보름날 행해지는 수영 아류의 경비조달을 위한 사전 준비과정의 성격을 가진 민속놀이이다.

참여 인원은 약사 30명, 잡색 21명이며, 당산풀이, 우물풀이, 인사굿, 마당밟기, 성주풀이, 조왕풀이, 장독풀이, 곡간풀이, 정낭풀이, 삽짜풀이, 편놀이, 기소각제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락은 단아하면서도 깊이가 있으며, 소리도 타 지역에 비해 시김새가 적어 끗끗한 경상도 메나리조의 소리 길을 확인하게 드러내는 특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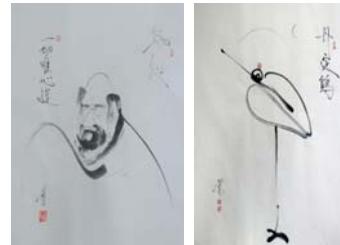
현재는 수영동 수영사적공원 내에 있는 수영민속예술관에서 전수보존되고 있으며 (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수영지신밟기〉

마. 선화(禪畫)

- 지 정 :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9호 (2013.5.8.)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521번길 63 부산전통예술관
- 내 용 : 선화는 승려의 선 수행(禪修行)의 과정이자 결과로 화법이나 서법의 구애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경지의 형상화 한 한국 선(禪) 불교의 유산이다. 1970년대 중반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하여 현재는 회화의 특별한 장르로 정착되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 선 미술(禪美術)이란 선이 체득되어진 자의 미술품이어야 하므로 선 수행자가 있는 곳에서는 선 문화(禪文化)내지 선 미술은 형성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선화는 선의 결과물인 동시에 선화제작에 몰두하는 것 역시 선에 대한 하나의 방편으로 인식되고 있다.
- 선화 보유자로는 박만식(法明成覺)이 있으며 현재 부산전통예술관에서 활동 중에 있으며, 선화제작 과정에서 참선과 수행을 통한 선승으로서의 자질이 선화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점이 높이 평가되며, 선을 통한 운필 능력이 일정한 경지를 넘어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작품의 미적 완성도도 높다라고 할 수 있다.



5. 기념물

가. 좌수영성지(左水營城址)

- 지 정 :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8호(1972.6.26)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일원
- 내 용 : 원래 경상좌수영은 동래 부산포에 있었으나 세조때(1459년) 울산 개운포(開雲浦)로 옮겼다가 다시 임진왜란 직전에 동래 남촌(수영동)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그 연대는 확실하지 않다.

1636년(인조 13) 사천(絲川, 수영천)의 홍수로 선창의 수로가 매몰되어 벗길이 통하지 않아 다시 갑만이포로 옮겼으나, 갑만이포는 왜관과 가까워 군사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 하여 1652년(효종 3)에 또 다시 옛 터인 수영으로 옮겨 1894년(고종 31) 군제개혁으로 수영이 폐지되기까지 243년간 현재의 위치에 있었다.

경상좌수영에는 무관 정3품의 경상좌도수군절도사(약칭 경상좌수사)가 주재하고 그 관하에는 1개의 첨사영(僉使營)이 있었으며, 경상좌도의 바다를 방어하는 총 책임을 맡고 있었다.



〈조선시대 일종의 해군기지인 좌수영(左水營)이 1895년 갑오개혁으로 폐지될 즈음 찍은 것으로 보이는 좌수사(左水使)와 그 관리들〉



〈좌수영성지〉

현존하는 좌수영성이 언제 처음 축조 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임진왜란을 계기로 폐허화되고 그 후 1652년 김만이포에서 남촌 구기로 다시 이건(移建)되면서 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좌수영은 石城으로, 규모는 둘레 1,193보, 9,190여척, 높이는 13~16척 정도이고, 옹성이 3곳, 치성이 6~7곳이며 여장(女牆)은 375~3840이며 4대문이 있었다.

동문을 영일문(迎日門), 서문을 호소문(虎嘯門), 남문을 주작문(朱雀門), 북문을 공진문(拱辰門)이라 하였고, 이들 성문에는 각기 문루가 있었다.



〈1998년 발굴당시 수영성 서문지 치성 주변 모습〉

성문은 일정한 시각에 폐문루(閉門樓)와 관해루(觀海樓)에 달아 둔 북을 울리는 것을 신호로 열고 닫았다.

좌수영성 축성공사에 동원된 인력 현황은 알 수 없으나, 현재 남아 있는 성돌에 언양, 양산 등의 지명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부산 인근 각지의 백성을 동원하여 성을 쌓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랫부분의 큰 성곽들을 보면 견고한 성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동시에 축성 공사가 얼마나 고된 노역이었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성문 중 남문의 규모가 가장 크고, 동문·서문·북문은 각각 2층으로 되어 있었으며, 성내에는 4곳에 수문이 설치되어 있었다.(수영성의 총 길이는 1,480m)

현재 좌수영성지는 도시화 과정에서 허물어지고 없으며 수영성의 주산인 수영사적공원 인근의 620m 정도만 남아 있다.

나. 25의용단(二十五義勇壇)

- 지 정 :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기념물 제12호(1972.6.26)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성로 43(수영사적공원 내)
- 내 용 :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경상좌수사 박홍은 왜적과 항전도 하지 않



고 수영성을 버리고 도망을 쳤다. 수영에 침입한 왜군이 이곳에 주둔하며 부녀자와 주민을 약탈, 살륙하자 이를 보다 못한 성민이 죽기를 각오하고 7년 동안 유격전을 펼쳐 적에 대항하였다. 이를 기리기 위하여 1609년(광해군 원년) 동래부사 이안눌이 확인이 되는 25분의 의용을 찾아내어 그들의 후손에게 군역을 면해주고 집집마다 '의용'이란 풋말을 붙여 충절을 기렸다.

그후 1853년(철종 4) 경상좌수사 장인식이 수영사적공원에 비를 세우고 의용단이라 이름하였다.

매년 춘추(음력 3, 9월) 2회씩 추모 제행(향사)을 지내오다 2006년부터는 음력 9월 말정일(未丁日) 추계에만 1회 지내고 있다.

○ 25의용단 사당건립 및 정화 : 기존의 의용단은 지형적으로 저습지로 배수가 원활하지 못해 잔디 등 수목 생육이 어렵고 임진란 이후 400여년 동안 사당도 없이 의용 제인비가 노천에 설치되어 우천시 재향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지역민의 정신적 뿌리인 의용의 충의 정신이 서려있는 제단이 행



〈25의용 제인비〉

적에 비하여 시설이 너무 왜소하여 후손된 도리에 맞지 않다 하여, 수영구 개청과 더불어 수영구청과 수영지역의 원로가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의 간절한 염원인 사당건립 및 정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사업구모는 사당 1동(56.1m²), 관리사 1동(19.8m²), 내삼문(17.8m²), 외삼문(10.9m²), 담장 1동(56.1m²), 관리사 앞 주차장 설치, 조경사업 등으로 1999년 9월 기초 사업 계획을 출발점으로, 수영지역 원로 등과 함께 사업 설명회 등을 거쳐, 2000년 3월 3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00년 5월 10일 공사를 착공하여 2000년 12월 4일자로 사당문안 선정 자문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25의용단 사당 현판 문안을 선정하고 2001년 2월2일 준공하였다.

본당인 사당(祠堂)문안은 목숨을 버려 나라를 지킨 25의용의 위패를 모시는 곳 이라는 뜻의 '의용사(義勇祠)', 내삼문(內三門)은 길이길이 품어 오래도록 잊지 않는다는 뜻의 '영회문(永懷門)', 외삼문(外三門)은 성심(誠心)을 간직한다는 뜻의 '존성문(存誠門)', 관리사(管理舍)는 25사당 관리 및 향사봉행시 제실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사당(典祀堂)'으로 하였다.

○ 향사 유래 과정

- 1609년(광해군 원년) 동래부사『이안눌』이 25인의 사적(事績)을 채빙하여 정방록에 계재, 대상자 집집마다 의용지정 부착
- 1853년(철종 4) 경상좌수사 장인식이 수영공원에 의용단비와 제실을 세우고 춘추 2회 제향을 지냄(제주:좌수사)
- 1895년 갑오년 군제개혁으로 좌수영이 폐지되자 지방민이 제향(제주: 수영면장)
-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 면장이 부임하자 공식적으로 제사를 지내지 못하고 지역민들이 숭모계를 조직하여 야간을 틈타 제실 등에 위폐를 모셔놓고

제향을 올립(제주:수영기로회)

- 1974년 9월 10일~12월 9일 부산시에서 우풍에 낡은 비석단 3개소에 의용 제인비 25기를 건립하고 외삼문 1동과 한식답장을 설치하여 새롭게 단장하였다.
- 1977년부터 (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와 수영향우회에서 주제하고 있다.

다. 정과정 유적지(鄭瓜亭 遺蹟址)

○ 지 정 :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기념물 제54호(2003.5.2)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맹미2동 17번지 일원(3,129.11m²)

○ 내 용 : 고려시대 문신인 정서가 유배생활을 할 때 정자를 짓고 오이밭을 일구며 임금을 그리워하는 고려가요인 정과정곡을 지은 곳으로 '동국여지승람', '동래부지' 등에 의하면 과정(瓜亭)은 "동래부 남쪽 10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자는 없으나 그 터는 남아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특히 정과정 유적지는 우리말로 적혀 전하는 고려가요 가운데 유일하게 작지를 알 수 있는 작품으로 우리나라 가사문학 연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



(정과정 유적지)

을뿐 아니라 '충신연주지사' 및 '유배문학의 원류'라 할 수 있는『정과정곡』을 자은 곳이라는 점에서 문학사적, 역사적 가치가 매우 중요한 문화유적 자라 할 수 있다.

부산시에서는 2003년 부산정보 지방산업단지 지원도로 개설공사와 연계하여 정과정유적지 조성계획을 수립, 기존의 정과정비와 자연석(경암)을 공원내로 이전하고 팔각정과 놀이마당, 벤치 등을 설치하여 문화재보호와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 2007년 12월에 완공하였다.

6. 문화재자료

□ 옥련선원 마애지장보살좌상(磨崖地藏菩薩坐像)

○ 지 정 :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자료 제7호(2001. 5. 16)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257번길 58

○ 내 용 : 지금의 옥련선원(전통사찰 지정 제28호/98년 10월 17일) 옛 자리에는 삼국시대(三國時代)부터 백산사(白山寺)가 있었다. 이 마애불(磨崖佛)은 그 때 조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 불상(佛像)은 미륵불(彌勒佛)의 좌상이다.

조각 수법은 선각(線刻)으로 섬세하고 정직

했으나 지금은 마멸이 심해서 그 원형을 찾

아보기 힘들다. 어느 때에 벼락이 쳐서 돌이

거꾸로 누워 현재 위치로 놓이게 되었다. 원

래 이 도량은 미륵부처님의 용화세계(龍華

世界)를 지향하는 사찰로서 옛부터 호국의

원찰로 유명했다.



(소재지 : 민락동 327-2번지)

7. 기타 유적

가. 안용복장군 사당

안용복장군은 조선시대 독도 및 동해안 수호의 대표적 인물로, 1967년 수영공원 산정에 안용복장군 기념사업회에서 충혼탑을 건립하여 기려오던 것을 장군의 업적에 비하여 충혼탑의 왜소함을 안타까이 여겨, 수영사적공원 정비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2000년 5월 10일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00년 7월 31일 착공, 2001년 3월 27일에 준공하였다.

수영공원 남단에 총 경액 337m²(102평) 규모로 사당1동(30.2m²)을 짓고 현상공모를 통하여 동상1기를 설치하였으며, 기존의 충혼탑을 이전하였다. 또한 2013년 3월 관리사를 건축하여 효율적으로 수강사를 관리하고 있고, 외벽에 독도실시간영상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안용복장군 기념사업회에서는 사당 현판을, 독도를 지켰다는 뜻의 '수강사(守疆祠)'로 정하고 매년 4월 18일 연례제향을 올리고 있다.



(안용복장군 사당, 동상)

나. 독신묘(蠶神廟)와 수영산신당(水營山神堂)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363(수영사적공원 내)
- 내용 : 기존 '송씨할매당(수영 고당), 조씨할매당'으로 불려온 수영사적 공원 내 2개동의 노후사당 중, 송씨할매당(수영 고당) 건립은 400여 년 전으로 추측되며 1981년 5월 11일 애향인 김기배씨에 의해 재건립되어 수영향우회에서 관리하여 왔고, 조씨할매당은 1922년 3월 18일 건립되어 수영기로회에서 관리하여 왔는데, 종래 조선시대 경상좌수영 군대의 출정 깃발을 모시고 마을 주민들의 안정을 기원하였던 '독신묘'를 독립된 하나의 당으로 건립하고 마을주민의 당집으로서 기능하였던'기존의 송씨할매당과 조씨할매당'은 당제를 같이 모심에 따라 독립된 하나의 신당으로 건립하니 합당하다라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2017년 9월 초에 철거를 시작하여 2018년 2월에 정비를 완료하였다. 그리하여 아래 그림의 우측 건축물을 '독신묘(蠶神廟 / 廟 : 사당 묘)'라고 하고 좌측 건축물을 '수영산신당(水營山神堂)'이라 정하였다.



〈독신묘 및 수영산신당〉

기존 송씨할매당(수영고당)과 조씨할매당에 대한 제의는, 전자에 대하여 수영향우회에서 2006년부터 정월 대보름날 제를 지내고 있으며 후자에 대하여는 수영기로회에서 정월 열나흘날 자정에 당산제를 지내았으나, 노후 사당의 정비가 완료되어 관련 단체인 수영향우회에서 매년 정월대보름에 두 사당(독신묘와 수영산신당)의 제의를 합동하여 지내고 있다.

다. 최영장군사당(무민사, 武愍祠)

- 소재지 : 옛 수영성의 동문밖 원편의 큰바위 앞에 위치
(수영성로3번길 16 소재)

- 내용 : 옛날 최영장군이 왜구를 격퇴하던 장소라 하여 매년 음력 정월보름 새벽에 애향인 태덕수씨가 제를 지내오다 2006년부터 수영향우회에서 음력 3월 3일 제를 지내고 있다. 사당 뒤에는 선서바위라 하여 임진왜란 때 향도 의병결사대인 25의용이 왜구와 싸워 죽기를 다짐한 큰 바위가 있다. 원래 이 자리는 강신무녀가 최영장군 영정을 모시고 살던 오두막집이었는데 건물이 노후되어 혈고 1973년 건립하였으나 훼손되어 2005년 5월(규모 7m²) 목조·기와 팔작지붕으로 재건립하였다.



〈최영장군 사당〉

라. 장대골 순교지

종교 유적지인 수영장대골은 조선 고종 때 천주교인들이 순교당한 순교지이다.

박근기 사건으로 체포되어 수영장대에서 1868년 음력 8월 4일 군문효수를 당한 전교회장 이정식, 그의 아들 이관복, 며느리 박소사, 조카 이삼근 · 이월주 · 양재현 · 옥소사 · 차장득 등 8명이 순교하였다.

이들은 1977년 7월 17일 광안 본당 베드로 신부에 의해 발굴되었는데 장대석 8개, 기와 조각, 동전 등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의 유해는 현재 오륜대(부산 금정구 부곡동 산 15-1번지)에 있으며 기념비는 1988년 9월 30일 광안 천주교회에서 설립하였다.



(장대골 순교비)

마. 동래 고읍성(古邑城)터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동래현의 고적조에 고읍성이 나오는데 그 설명으로 “해운포에 있다. 동남은 석축이고 서북은 토축으로 둘레가 4,430척(1,330m)인데 지금은 허물어졌다”고 하였다. 《동래부지》 성곽조에 서는 고읍성을 “해운포의 수영 서쪽에 있다”고 하였다.

현재 동래구에 동래읍이 형성되기 이전에 망미동에 동래읍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부산지방병무청의 인접지역으로 추정되며 해당 부지(망미동 640-7번지 일원)의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매장문화재 시굴조사가 시행되어 통일신라 시대 후기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토성 등이 발굴되었다.



<동래 고읍성>

그리하여 2007년 유적지 보호를 위해 망미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옛 유적과 동일한 형태로 보존하기로 하였다.

바. 수사선정비

《동래영지》의 기록을 보면 조선시대 경상좌수영의 수사로 역임한 분이 임진년(1592년)에서 경술년(1850년)까지 258년간 188명으로 되어 있다. 현재의 수사비는 수영성 남문주변에 흩어져 있던 것을 연대순으로 한자리에 세웠다. 수사선정비는 33기(수사 32기, 우후 1기)로서 연대는 조선 인조 17년(1639)부터 고종27년(1890) 사이에 수군절도사와 부관인 우후의 재임 중 공덕을 칭송하는 비이다.



<수사선정비>

사. 박인로 가사비(朴仁老 歌辭碑)

노계 박인로의 정신을 후세에 기리고자 토향회(土鄉會)에서 민락동 진조 말산 무궁화동산(민락동 110-13번지)에 가사비를 2002년 4월 6일 건립하였다. 가사비 전면에는 1598(선조31년)년 정유재란 당시 왜군의 침입과 병사들의 활약·승전·개선을 읊은 『태평사(太平詞)』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 후면에는 박인로 가사비 전립 취지문이 기록되어 있다.



〈박인로가사비〉

아. 임진왜란좌수영무주망령천도비(壬辰倭亂左水營無主亡靈薦度碑)

임진왜란때 당시 좌수영 수사였던 박홍(朴鴻)은 군영을 이탈하여 도망갔으나 25의용을 비롯한 수영강변 토민들은 고향을 지키기 위하여 결사대를 조직하여 왜적에 대항하다 죽어갔다. 전란이 끝난지 400여년이 지난 오늘 날 그들의 억울함을 달래주고 무주(無主)의 망령(亡靈)이 된 그들의 한을 풀어주려고 1999년 8월 25일 토향회에서 백산 높은 양지 바른 곳에 이 비를 건립하였다. 옥련선원(민락동 327-2) 입구에서 50m거리에 위치한다.

※ 천도(薦度) : 죽은 사람의 넋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일



〈무주망령천도비〉

자. 최한복 기념비(崔韓福 記念碑)

최한복(1895~1968)은 수영출신으로 수영을 사랑하며 한결같이 교육자로서 애국자의 길을 걸어 오시면서 민족정신과 고향사랑하기 교육에 헌신해 오셨다. 일제 침략기에는 우리 역사 발굴과 보존에 힘을 쏟아 야간에 25의용단 제향을 주관하였고 해방 후에는 수영의 향토사 발굴에 힘써 수영아류를 발굴 복원하고 수영의 역사서인 수영유사를 직접 저술하여 수영



〈최한복 기념비〉

지역의 문화재 발굴과 역사를 정리하여 후세에 전하게 되었다. 특히 수영 팔경을 발굴하여 수영의 아름다움을 전한 진정한 향토 교육자로서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2004년 11월 20일 토향회에서 수영사적공원 25의 8단 좌측 뒤편에 기념비를 세웠다. 기념비 전면에는 수영팔경의 서사를 새겼고, 후면에는 수영팔경사비 건립 취지문을 새겼다.

차. 수영성(水營城) 남문(南門)터

수영성 남문은 조선시대 경상좌도수군절도사영의 주문으로서 1972. 6. 26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7호로 지정 현재는 성문의 육축과 누각은 없어지고 홍예(이치형문)만 남아 있고 그 양측에 돌로 세워진 박전(舶殿)이 석축위에 놓여져 있으며 원래 수영동 286-1번지에 있었으나 수영사적공원 인근에 있었던 수영초등학교로 옮겨져 교문으로 이용하다가 1962년 학교가 이전하면서 현재의 수영구민의 향토정서와 역사적 정체성을 고취하고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옛 수영성 남문 위치에서 10m정도 떨어진 수영동 297번지 도로위에 2002년 9월 건립하였다.



〈수영성 남문터〉

카. 수영성(水營城) 장대(將臺)터

장대는 군사를 지휘할수 있도록 높은 곳에 설치된 대를 말하며 좌수영이 있었을때 수군이 무술을 닦는 곳으로서 무술시험을 했던 곳이기도 하다. 이 무술시험은 매년 10월 1일에 행해졌는데 시험에 합격하면 수사(水使)가 수군의 긴부가 될 수 있는 사령장이 주어졌다. 또한 이 장대에는 적의 침략을 살피는 망루가 설치되어 있어 광안리 앞바다에 침입해 오는 적선을 관측하고 지휘하는 척후소이며 지휘소였다. 또한 조선 고종때 천주교인들이 순교한 순교지이기도 하다. 현재의 위치는 수영중학교 뒤편 광안4동 547번지 일원으로 수영성 장대 표석은 수영구민의 향토정서와 역사적 정체성을 고취하고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광안4동 산33-3번지 체육공원내에 2003년 12월 건립하였다.



〈수영성 장대터〉

타. 좌수영(左水營) 선소(船所) 유허비(遺虛碑)

좌수영 선소는 조선시대 좌수영 수군의 군선이 정박하던 수영강 하구를

말한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에 우리 군선이 여기서 출발하여 왜선을 격멸했던 역사적 사실과 선조들의 희생이 깃든 장소이다. 현재의 선소 유허비는 1988년 4월 6일 부산의 뜻있는 학자들이 힘을 모아 유허비문과 노계박인로 선상탄의 일부를 새겨 수영동 현대아파트를 시공한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기증받아 현대아파트 관리사무실 옆에 세웠다.



〈좌수영 선소 유허비〉

8. 명승지

가. 수영의 명산(名山)

수영을 형성하고 있는 내륙의 산으로는 남천동·광안동·수영동의 북쪽 배산(背山)이 되는 금련산(金蓮山, 415m)과 망미동의 북쪽 배산(背山)인 배산(盃山, 254.9m), 민락동을 형성하면서 바다로 불쑥 내밀려 수영만(水營灣)을 형성하고 있는 백산(白山, 129.5m)이 있다.

1) 금련산(金蓮山) : 금련산은 남천동, 광안동의 북쪽 배산(背山)이 되고 망미동의 남쪽 배산(背山)이 된다. 황령산과 몸을 같이 하면서 망미동의 배산

(盃山)을 마주 보고 있다. 태백산맥이 부산으로 빠져내려 금련산맥과 금정산맥으로 나뉠 때 금련산은 금련산맥의 중심이 되는 산이다. 금련산이라 불려지게 된 연유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산 정상의 능선들이



〈금련산〉

연꽃 모양이라 해서 그렇다는 말도 있고, 부처님 앞에 공양을 올릴 때의 황금색 금련화(金蓮花)로 말미암아 불려지게 되었다는 말도 있다. 그런데 여자의 예쁜 발을 금련(金蓮)이라고 하고, 미인의 정숙한 걸음걸이를 금련보(金蓮步)라고도 한다. 금련산에는 반야암(般若岩)과 바라밀다사(波羅蜜多寺)가 있었지만(마하사 맞은 편) 지금은 없어지고 축대만 남아 있다. 또한 금련산에서 들려오는 절의 종소리가(연산모종—蓮山暮鐘) 유품이라 하여 수영팔경(水營八景)에 들어 있다.

2) 배 산(盃山) : 망미 1동 뒷산인 배산(254m)은 수영구와 연제구에 걸쳐 있는 유서 깊은 산이다. 산 중턱에는 옛 거칠산국(居柒山國)의 유적으로 추정되는 배산성지(盃山城址)가 있으며, 이 지역이 옛 거칠산국의 중심지로 추정된다.



〈배산〉

옛부터 이 지역의 주변 경치가 수려하여 고려조에는 선인(仙人) 김겸효(金謙孝)가 기거했다는 겸효대(謙孝臺)가 있었다 하나 지금은 자취를 찾을 길이 없다.

3) 백 산(白山) : 수영강이 바다와 어울리는 자리에 민락동의 배산(背山) 노릇을 하는 산이 백산이다. 높이는 129.5m정도이고 수영교의 오른편에 있다.

옛 문헌에 보면 지금의 백산을 소백산, 대백산으로 분리하여 표기하고 있다. 백산이라 불리게 된 연유에는 몇가지 설이 있는데, 예전에는 백산 아래에 갈대가 우거져 있어 백학(白鶴)이 찾아들어 백학산(白鶴山)이라



<백산>

한 것이 백산이 되었다는 말도 있고, 수영천과 바다에 안개가 깔릴 때면 산 전체가 허옇게 보여 그렇게 불렸다는 말도 있다. 한편으로 이 산의 옛 이름이 향산(向山)인데 향산을 잘못 써서 백산(白山)이 되었다는 말이 있으나 《동래부지》나 《동래영지》에도 백산으로 표기하고 있다.

산 정상에는 호랑이 굴이 있었는데, 지금은 무속인들이 주술(呪術)하는 곳이 되어 있다. 또한, 백산의 형상이 마치 수영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자의 모습이라 하여 수영지역의 번영을 기원하는 뜻에서 수영야류 제4과장(사자무과장)에는 호랑이를 사자의 먹이로 제공하는 특이한 점이 있다. 또한 백산 앞에 있는 작은 산을 속칭 진조말산이라 부르고 있는데, 문헌에는 진조말산이란 산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지역에 있었던 진조암(眞潮岩)·일명 조망대(眺望臺) 격인 점이대(覲夷臺)의 다른 이름인 듯 함)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 변형되어 불려진 듯 하다.

나. 수영의 명대(名臺)

- 1) 겸효대(謙孝臺) : 양미1동 뒷산인 배산(盃山) 산정에 고려시대의 선인(仙人) 김겸효(金謙孝)가 기거했다는 겸효대가 있었다고 한다. 당시 동래현령 정추(鄭福)나 조선시대 동래부사 윤훤(尹瑄), 이춘원(李春元)의 시에도 겸효대를 노래하고 있다. 이를 볼 때 배산 산정의 겸효대에서 바라본 수영의 모습이 무척이나 아름다웠으리라 여겨진다.

2) 망경대(望鏡臺) : 남천동 KBS 방송국 남쪽 아랫길에서 좀더 바다쪽으로 나간 자리(현재 수영구청 인근)에 두 토산(土山)이 마주보고 있었는데 바다 정관을 바라보기 좋은 언덕이 있었다. 그래서 거울같은 바다를 바라보는 대(臺)라 하여 거울 경(鏡)사를 써서 망경대라 한 것 같다.



<첨이대 표석>

3) 첨이대(覲夷臺) : 일명 '점이대'라고도 하며, 민락동 백산(白山) 남쪽, 속칭 진조말산 남단에 있다. 조선시대 촉수영 수군이 바다를 침략하는 왜구들을 살피는 망대(첩후처-斥候處)가 있던 곳이다. 일부 지도에는 이 자리를 점미대(覲美臺)라 적고 있으나, 점미대라면 아름다움을 점망(覲望) 한다는 뜻 일테지만 이는 점이대가 변해서 생겨난 이름으로 여겨진다. 점이대 앞에는 기장(旗章)바위가 있어서 척후병이 척후를 할 때 아무런 일이 없으면 백기를 올리고, 일이 발생하면 적기를 올렸다는 말이 있으나 확인할 수는 없다. 1998년 5월 "부산을 가꾸는 모임"에서 백산 정상에 기념비를 세워 놓았다.

다. 광안리해수욕장(廣安里海水浴場)

남천동의 삼익비치아파트 동쪽에서 민락동 바다 매립지까지의 사장(沙場)



〈광안리 해변테마거리 야경〉

을 말한다. 해수욕장은 총면적 82,000m², 사장길이 1.4Km, 사장폭은 25~110m이다. 금련산에서 내린 걸 좋은 사질(沙質)에 완만한 반월형(半月形)으로 휘어진 사장은 전국적으로 이름난 해수욕장이다. 1964년 신부산 구획정리로 광안리 일대가 정리되기 전까지만 해도 해수욕장 주위는 논과 밭이 있는 한적한 마을이었다. 1971년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해수욕장 주변에 휴식공간인 만남의 광장, 해변공원 등을 조성하였다. 해수욕장 주변에는 제각기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레스토랑, 커피숍이 즐비하며, 진미를 자랑하는 음식점과 생선 횟집이 모여 있다. 백사장내에 야외상설무대를 설치하여 각종 공연 장소로 활용하며 광안리어방축제, 바다축제, 무용제 등 예술문화행사를 제공하고 있다. 해변을 따라 조성된 해변테마거리는 넓은 보행자 도로와 녹지공간을 두어 사계절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면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현수교(0.9km)인 광안대교가 웅장한 자태를 자랑하며 아간이면 바다·빛미술관과 함께 화려한 경관조명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부산의 명소이다.



〈광안대교〉

라. 광안대교

광안리 앞 바다를 가로지르는 광안대교는 수영구 남천동 49호 광장에서 해운대구 센텀시티 부근을 잇는 총연장 7.42km, 중앙현수교 900m, 폭 18~25m, 왕복 8차선의 국내 최대 해상 복층 교량으로서의 웅장한 모습과 국내에서 처음으로 예술적 조형미를 갖춘 첨단 조명 시스템이 구축되어 10만 가지 이상의 색상으로 연출할 수 있는 환상적인 야간 조명은 광안리 해수욕장의 야경과 어우러져 낭만과 휴식을 제공하는 부산의 관광명소가 되었다. 또한 광안대교에서는 해맞이 축제와 부산불꽃축제, 국제마라톤대회 등을 개최, 차량통제를 실시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개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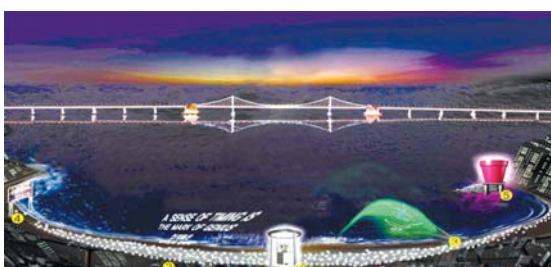
마. 바다·빛 미술관

광안리 야간경관조명사업의 일환으로 광안리 해수욕장 일원에 조성된 「바다·빛미술관」은 국제현상공모를 거쳐 3년여의 준비끝에 2007년 4월에 준공된 세계 최초의 '빛'을 주제로 한 야외미술관(Museum)으로 일반적인 도시경관조명과는 달리 세계적인 거장들의 예술작품을 빛과 영상으로 채

색하여 광안리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열린 미술관으로 재창조하여 기존 광안대교 야경과 더불어 매일밤 자연과 예술의 환상적인 만남을 연출한다.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 고 백남준 선생의 ① '디지테이션'은 광안리 중심에서 자연과 예술, 뉴미디어의 만남을 상징하고 미국의 개념미술가 제니 홀 쳐의 ② '빛의 메시지'는 백사장에 삶과 사회에 대한 협축적인 메시지를 프로젝터로 그려낸다. 심문섭 작가의 ③ '섬으로 가는 길은 수막 스크린에 레이저를 투사 환상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고 해변 왼쪽 전광판에서는 샤를 드 모의 ④ '영상 인터랙티브'가 상영되고 해변 오른쪽에는 양 피에르 레노의 회분 中 최대작인 ⑤ '생명의 원천'이 자리 잡고 있다. 프랑스의 조명 연출가 얀 카슬레의 '은하수 바다'는 테마거리 1.4km를 따라 화려하면서도 은은한 경관조명을 연출해 낸다.

광안리는 이제 새로운 '빛'의 미술관으로 변신하여 피서를 위해 찾는 단순한 해수욕장이 아닌 예술과 품격이 숨쉬는 연중 휴양지이자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바다·빛 미술관〉



〈민락 수변공원〉

바. 민락 수변공원

바다와 휴식공간을 결합한 국내최초의 수변공원으로 해운대와 광안리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여 부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길이 543m, 너비 60m이며, 면적은 33,000m² 규모로 4만명을 수용할 수 있다. 바다에는 컬러블록을 깔고 화단과 그늘막, 벤치 등의 편의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바다를 바라보며 각종 문화공연을 감상할 수 있도록 아외무대도 마련되어 있다.

사. 수영민속예술관과 수영사적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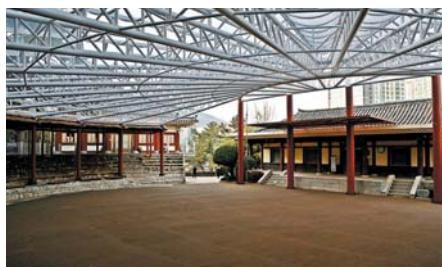
○ 수영민속예술관과 야외놀이마당

수영은 지리적으로 수영천과 광안리해변이 가까이 있어서, 일찍부터 농어업과 관련된 민속이 많았다. 수영야류, 좌수영 어방놀이, 수영농정놀이 등은 문화재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학술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유명한 민속유산으로서 수영구의 자랑이다. 수영민속예술관 건립 및 놀이마당 증설사업은 '95년 7월 수영사적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시발점으로 토지보상,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00년 5월 탄생하게 되었다. 시설규모는 연건 평 264m²(한옥 2층), 놓이마당 1,221m²(1,500석)이며, 부대시설은 사직원 및 실내 연습실 등이 있다. 수영야류등 국가무형문화재와 전통민속공연이 열리고 있으며, 풍물·전통·춤·민요·민속 등의 전통문화학교가 개설되어 일반인 누구나 참여하여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체험을 만끽할 수 있다.

○ 수영사적원

수영은 오랜 역사를 가진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고장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 전시관이 없어서 안타까워 하던 것을 수영 역사의 현장인 수영사적공원내에 민속자료 등을 전시할 사적원을 설치하게 되었다. 기존의 수영고적민속관 건물을 개·보수하여 좌수영 성지의 역사적 배경을 소개하고 전통 문화재, 민속놀이 소품 등을 전시하여 수영공원을 찾는 외래 관광객에게 수영의 특성, 역사 등을 알기 쉽게 보여주고 있다. 기존 건물 132m²을 개·보수하여 99m² 규모의 전시관을 설치하고 국립 민속박물관등 다른 지역의 전시관을 참고로 하고 관계전문가를 위촉하여. 2000년 9월 공사에 착공 2001년 3월에 준공하였다.



〈수영민속예술관과 수영사적원〉



〈사적원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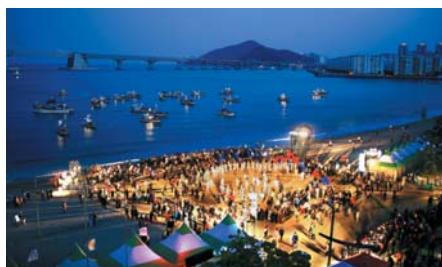
아. 수영팔경(水營八景)

한국의 등줄기 태백산맥이 마지막 정기를 모아 부산 시내로 들어서서 금련산맥(金蓮山脈)을 이루고 그 금련산맥이 황령산(荒嶺山), 금련산(金蓮山)과 더불어 남천만을 이루었다.

수영의 서남쪽은 부산항의 부산만(釜山灣)이 되고, 동남쪽은 수영만과 수영강이 되었다. 물과 바다와 강이 어우러진 수영은 그 전체가 명승지라 할 수 있다. 이 명승지에서 옛 사람들은 수영팔경을 자랑했다. 수영 팔경은 지금의 수영동(수영성)에서 바라본 절경을 노래한 것으로서 수영의 향토 사학자 최한복(崔漢福) 선생을 통해 국어학자 박지홍에 전해져 알려졌다고 한다.

- 1) 운대귀범(雲臺歸帆) : 해운대쪽에서 돌아오는 둑단배의 감회어린 정감을 노래한 것이다.
- 2) 봉대월출(烽臺月出) : 해운대 뒷산인 간비오산에 있었던 봉수대에 달이 떠오르는 모습을 노래 한 것이다.
- 3) 진두어화(津頭漁火) : 수영강 하구에 고기잡이 배의 불빛 모습을 노래한 것이다.

- 4) 남장낙안(南場落雁) : 남촌(南村) 앞 사장을 남장(南陽 — 광안리 해변)이라 했고, 그 넓은(廣) 모래 언덕(岸)을 광안(廣岸)이라 했다. 그 광안의 안(岸)을 덕명인 편안할 안(安)자로 고쳐 광안(廣安)이라 쓰고 있다. 광안리해변에 기러기가 내려앉는 모습을 노래한 것이다.
- 5) 장산낙조(長山落照) : 해운대구의 주산(主山)인 장산(長山)에 해지는 모습이 되 비추어진 모습을 노래한 것이다.
- 6) 백산만취(白山晚翠) : 해질녘 백산의 푸르름이 바다에 드리워진 경관을 노래한 것이다.
- 7) 재송작화(裁松織火) : 수영동에서 건너보이는 재송마을(재송동)의 베찌는 배틀기의 불빛을 노래한 것이다.
- 8) 연산모종(蓮山暮鐘) : 해질녘 연산(蓮山—금련산 金蓮山) 저 멀리서 사바 세계를 누비며 들려오는 범종소리를 말한다. 금련산에는 마하사와 빙아암, 바라밀다사가 있었으나 지금은 마하사만 남아 있다.



〈진두어회(津頭漁火)제현—광안리어방축제〉



〈1960년대 광안리해수욕장〉



〈1979년 광안리해수욕장〉



〈2021년 광안리해수욕장〉

9. 수영사적공원 및 좌수영지 복원

1995년 3월 1일 수영구 개청과 더불어 수영의 뿌리찾기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영사적공원 정비 복원사업은 비교적 정비복원이 용이하고 수영성과 관련된 문화재가 많은 수영사적공원 일원의 문화재를 정비 복원하여 역사 교육장 및 시민휴식처로 활용하는 한편 관광객과 외국인에게 불거리 제공하는 등 수영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부산의 새로운 역사유적관광지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공원 안에는 천연기념물인 좌수영 곰솔(제270호), 좌수영 푸조나무(제311호), 시지정 유형문화재인 수영성 남문(제17호)을 비롯하여, 시지정 기념물인 25의용단(제12호), 좌수영성지(제8호)가 있으며, 국가무형문화재인 수영야류(제43호), 좌수영 어방놀이(제62호)와 시지정 무형문화재인 수영농청놀이(제2호), 수영지신밟기(제22호)를 보존 관리하고 있는 수영민속예술관 등이 있다.



〈수영사적공원 기본 정비계획 조감도〉

■ 주요 추진성과 ('95~현재까지)

- 토지보상, 성지발굴, 공원정비 공사 등
- 수영민속예술관 건립 및 놀이마당 증설(2000년 5월 준공)
- 성지진입도로 개설 L=100m, B=8m (2000년 6월 준공)
- 공원내 화장실 견립(2000년 12월 준공)
- 25의용단 사당 건립 및 충혼탑 정화사업(2001년 2월 준공)
- 안용복장군 사당 및 동상 건립(2001년 3월 준공)
- 수영사적원 설치(2001년 3월 준공)
- 25의용단 주차장 설치 및 수사선정비 이전(2002년 2월 준공)
- 수사선정비(337t) 이전 건립(2002년 3월 준공)
- 공원 확충, 녹지대 조성(794m²), 수사비 보호체 설치(2007년 9월 준공)
- 25의용사 앞 잔여검물 매입, 녹지대 조성
- 좌수영성지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 완료(2011년 12월)
- 좌수영성지 복원정비계획 수립(2012년 2월)
- 시지정문화재주변 현상변경 기준안마련(2012년 5월 2일 고시)
- 좌수영성지 정비복원 사업 추진
—연도별 토지매입 현황(2013년 4필지, 2014년 2필지, 2015년 4필지, 2016년 3필지, 2018년 9필지, 2021년 2필지)

■ 향후 추진계획

- 남문 및 성곽복원에 필요한 부지매입(남문 및 서문 성문, 성곽복원)



〈1960년대 수영교차로 주변〉



부 록

1. 수영의 문화시설
2. 수영자랑 13가지
3. 부산의 문화재 현황

수영 역사 문화 팀방

1. 수영의 문화시설

가. 방송국

1) KBS 부산방송총국 : 남천동 수영로 765에 자리잡고 있는 공영방송국으로서 1988년 5월 20일자로 남천동 새 사옥으로 옮긴 후 라디오, TV 등 각종 방송시설과 3,300석의 공연장, 전시실 등을 갖추고 부산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2) MBC 부산문화방송국 : 부산문화방송국(개국 : 1959. 4. 15. 중구 중앙동)은 1998년 4월 15일 개국 39주년을 맞이하여 수영구 민락동 백산길 470에 새로이 문을 열었다. 문화방송은 연면적 23,605m²의 지하 1층, 지상 14층의 현대식 건물로서 TV, 라디오 방송 및 MBC아트홀 등을 갖춘 부산문화의 미래를 이끌어갈 상업 방송국이다.



나. 수영구 도서관

이전 해운대교육청을 개·보수하여 2002년 7월 개관한 수영구 도서관은 노후건축물 안전 및 공간 협소의 문제로 재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부지면적 6,604m², 연면적 4,290m²(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종합자료실, 동아리실, 강의실 및 북카페 등의 시설을 갖추고 내년 상반기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수영구의 대표도서관으로서 21세기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복합도서문화공간으로 가듬날 예정이다.



다. 수영구 어린이도서관

2021년 6월 25일 개관한 수영구 어린이도서관(수영구 장대골로 75-6)은 연면적 949.97m²(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유아자료실, 아동자료실, 다목적강당, 북카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4,073권(아동 6,522권, 유아 5,327권, 기타 2,224권) 및 정기간행물의 자료를 비치하고 독서문화강좌 및 어린이(동화 구연 등)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라. 수영구생활문화센터 / 구락생활문화센터

수영구 생활문화센터는 기존 상업시설을 매입하여 1997년부터 문화센터로 사용되다가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11월 1일 개소하였다. 지하1층 ~ 지상5층, 연면적 2,461.55m²의 규모로 1층은 해수욕장 개장기간동안 바다경찰서와 수상구조대로 사용되며 그 외 기간에는 광인리 해변 문화창작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2층에는 바다갤러리, 어울림공간, 3층은 동아리방 3개실, 4층은 댄스 및 밴드연습실, 개인연습실, 청자실, 5층은 다목적 강당, 미루연습실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일상속에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구락생활문화센터는 2019년 11월 11일자로 개소했으며 지역주민들의 거점 생활문화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조성 단계부터 주변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역주민들의 문화욕구를 만족시키고자 다목적강당, 유아놀이방, 마루연습실, 청자공방, 오픈카페 옥상데크 등 다양한 공간을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마. 수영성 마을박물관

2017년 6월 24일 개관한 '수영성 마을박물관'은 수영동행정복지센터 인근 수영성로 32번길 28에 위치하고 있었던 3층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통하여, 수영동 마을의 지역자산을 활용한 컨텐츠를 바탕으로 방문객들에게 마을의 정보를 제공하고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1층은 방문객들이 지도, 잡지 등을 통해 마을에 대한 정보를 안내받고 쉴 수 있는 인포메이션 센터인 '마을다방'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2층은 사진, 영상, 주민들의 사연이 깃

든 물건 등 마을 컨텐츠를 바탕으로 수영동의 생활사를 볼 수 있는 '마을전시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3층은 주민 커뮤니티 프로그램이나 방문객들을 위한 체험 및 교육 장소 등 커뮤니티 공간인 '문화사랑방'으로 활용되고 있다.



바. 광안리 해변 야외상설무대

민락동 광안리 해변가에 조성된 야외 무대는 매년 바다축제, 광안리야방축제 등 지역 주민들의 문화행사 제공을 위해 상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가 개최된다. 시원한 바다를 배경으로 건전한 놀이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2021년 5월 비점 오염저감 시설과 함께 세단장을 하였다.



사. 금련산 청소년수련원

금련산 청소년수련원은 광안 4동 산60-3번지, 광안리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금련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주요시설은 수련 시설과 숙박시설, 접회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청소년들의 체력단련과 정서함양, 자연 과학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 광안리 해양레포츠센터

2011년 4월 15일 개소한 광안리 해양레포츠센터(수영구 광안리해변로 54번길 222)는 지하1층~지상 1층의 육상부 931.05㎡와 계류시설인 해상부 2,837.9㎡로 구성되어 있으며, 패들보드, 카약 등 총 11종 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제트보트, SUP, 카약 등 183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광안리 해변 해양스포츠 활성화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자. 비콘그라운드

비콘(B-Con)그라운드는 수영고가 도로 하부 유류공간을 재생시킨 공간으로 고가도로로 인하여 양분되어 낙후된 지역을 연결하고 부족한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복합-생활-문화 공간"으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관광개발사업에 선정, 2017년 공사 착공 및 시행으로 2020년 2월 준공되었다.



차. F1963

수영공장은 고려제강의 모태가 되는 첫 공장으로 1963년부터 2008년까지 45년 동안 와이어를 생산하는 공장이었다. 2016년 부산비엔날레를 계기로 탄생한 F1963의 “F”는 Factory(공장), 1963은 수영공장이 완공된 연도를 의미한다. 재생건축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재생의 이름다움이 더욱 돋보이는 공간으로 재탄생한 F1963은 서점, 도서관, 전시, 공연, 카페, 식당 등 다양한 문화예술의 컨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다.



2. 수영자랑 13가지

광안대교

남천동 49호 광장에서 부산센텀시티 사이를 잇는 길로 7,42m, 넓이 18~25m의 해상교량으로서 2층(복층) 구조의 왕복 8차로 규모에 10만가지 이상의 색상 연출이 가능한 첨단조명시설을 갖추고 있다. 총공사비 7,899억원과 공사기간 8년(1994~2002년)을 소요하여 내진 1등급의 지진은 물론 평균 초속 45m의 태풍 및 높이 7m의 파도 등에도 견딜 수 있는 반영구적 공법으로 시공되었다.



광안리해수욕장과 바다·빛 미술관

광안리해수욕장은 깨끗한수질과 반달 형태의 넓은 백사장, 그리고 낭만이 깃든 카페와 횟집, 녹지대, 야외무대, 해변테마거리 등이 위치하고 있는 해양관광명소이다.



바다·빛 미술관은 빛과 영상이 조화를 이룬 멀티미디어 테마파크로서 매일밤 환상적인 야경을 연출하는데 세계 유명작가들의 작품 6점이 설치되어 있다.

수영시적공원

조선시대 경상좌수영성이 있던 곳으로 임진왜란 때 왜적에 항거하여 순절한 25인의 의로운 넋을 모신 25의용사와 독도 수호에 공헌한 인용복 장군의 사당인 수강사, 수영성 남문, 천연기념물인 수영동 꼼술 및 푸조나무와 함께 국가무형문화재인 수영야류, 좌수영어방놀이 등을 보전하는 수영민속예술관이 소재하고 있다.



좌수영어방놀이

수영만의 멀치잡이 후리소리를 연희화한 놀이로 어로작업의 호흡을 맞추고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르던 어업 노동이다. 중요 무형문화재 제62호로 지정되었으며 내왕소리, 사리소리, 가래소리, 칭칭소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영야류

약 250년 전부터 수영지역에서 행해지던 들놀음으로서 정월 대보름날 저녁에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즐기던 마을 축제의 한 형태이다. 타락한 양반계층을 희롱하는 서민들의 놀이로 양반, 영노, 할미·영감, 사자무의 4과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국가무형문화재 제43호이다.



수영지신밟기

250여 년의 전부터 수영동 일원에서 정초에 가가호호를 둘며 마을의 태평과 주민들의 제액초복을 빌어 주던 의례이자 정월 대보름날 행해지는 수영야류의 경비조달을 위한 사전준비과정의 성격을 가진 민속놀이이다.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2호로 지정되어 있다.



광안리어방축제

매년 4월 넷째주 어벙이라는 수영의 전통문화 특성을 소재로 광안리해변 일원에서 열리는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봄축제이다. 화려한 거리파레이드, 실경 뮤지컬 그물끌기 한마당, 진두어화, 개페막공연 어벙민속마을, 체험프로그램, 민속공연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광안리 M 드론 라이트쇼

매주 토요일 저녁 밤하늘을 수놓는 300대 이상의 드론을 광안리해수욕장 일원에서 만날 수 있다. 장기간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야간관광 특화 사업으로 계절 및 주제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광안리를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부산불꽃축제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경축하기 위해 그 해 11월 16일 광안리해수욕장에서 펼쳐졌던 해상 불꽃쇼가 기원으로서 2006년부터 정례적으로 광안대교 및 광안리해수욕장 일원에서 화려한 불꽃잔치를 연출함으로써 해마다 백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다.



남천·민락 횟촌

광안리해수욕장의 서쪽인 남천동과 동쪽인 민락동 지역에 300여개소가 넘는 횟집들이 밀집하여 형성된 “남천·민락 횟촌”은 싱싱하고 저렴한 가격의 회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최고 수준 횟집타운으로 연중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금련산

해발 415m인 금련산의 명칭은 산의 형태가 연꽃 모양이라 해서 붙여졌다는 이야기가 있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때 나타난 황금색 연꽃에서 유래했다는 말도 있다. 반야암 등이 있던 위치에는 아직 죽대 흔적이 남아 있고 현재는 청소년수련원, 약수터, 체육시설 등이 자리잡아 시민들의 체력단련과 정서함양을 위한 중요한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민락수변공원

민락수변공원은 바다와 휴식공간을 결합한 국내 최초의 친수공원으로 친수호안, 화단, 벤치 등의 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며 길이 543m, 너비 60m, 면적 33,000㎡(4만명 수용 가능) 규모이다. 2021년 8월 공공미술프로젝트를 통해 코로나 19 방역을 위해 설치한 거리두기 구간을 공공미술 작품으로 조성하였다.



수영강

수영강은 강변 양쪽으로 대단지 아파트와, 공원, 산책로, 친수공간 등이 조화를 이뤄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이루고 있다. 또한, '수영강변 일원 조형작품 조성사업'으로 국내외 유명 작가의 조형작품이 설치되어 주변의 수려한 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환상적인 광경을 연출하고 있으며 이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일상 속에서 현대미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4. 부산의 문화재 현황

가. 국가지정문화재

1) 국보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심지백 개국원종공신녹권 (沈之伯 開國原從功臣錄券)	제69호	1397년	동아대학교박물관
조선왕조실록, 태백산사고본 (朝鮮王朝實錄 太白山史庫本)	제151-2호	조선시대	국가기록원
금동보살입상(金銅菩薩立像)	제200호	통일신라	부산박물관
전 산청 석남암사지 납석사리호 (傳 山淸 石南巖寺址 磨石舍利壺)	제233-2호	766년	부산박물관
동궐도(東闕圖)	제249-2호	조선시대	동아대학교박물관
백자 달항아리(白磁壺)* (三國遺事 卷四~卷五)	제310호	조선시대	국립고궁박물관 위탁보관
삼국유사 권4~5	제306-4	1394년	범어사성보박물관

2) 보물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부산 범어사 삼층석탑 (釜山 梵魚寺 三層石塔)	제250호	통일신라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김자운니묘법연화경 권3 (金紙銀泥妙法蓮華經 卷三)	제269-3호	1422년	동아대학교박물관
부산 범어사 대웅전(釜山 梵魚寺 大雄殿)	제434호	조선시대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안중근의사유묵_견리사의견위수명 (安重根義士遺墨_見利思義見危授命)	제569-6호	1910년	동아대학교박물관
안중근의사유묵_고막자어자사 (安重根義士遺墨_孤莫孤於自恃)	제569-16호	1910년	남구 분포로 111
박민정 해서암행일기 (朴萬鼎 海西暗行日記)	제574호	17세기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3
허목 전서 애군우국(許穆 篆書 愛君憂國)	제592-3호	17세기	남구 분포로 111
자수 초충도 병풍(刺繡 草蟲圖 屏風)	제595호	조선시대	동아대학교박물관
토기 용기문 밸트기(陶器 龍起文 鉢)	제597호	신석기시대	동아대학교박물관
도기 말미장식 뽕잔(陶器 馬頭飾 角杯)	제598호	삼국시대	동아대학교박물관
생지총통(雙字銅筒)	제599호	1583년	동아대학교박물관
묘법연화경 권7	제692-1호	고려시대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산타운아파트 101-2004호
의령보리사지 금동여래입상 (宜寧菩提寺址 金銅如來立像)	제731호	통일신라	
조대비 사순칭경진하도 병풍 (趙大妃 四旬稱慶陳賀圖 屏風)	제732호	1847년	동아대학교박물관
현종 기례진하도 병풍 (憲宗嘉禮陳賀圖 屏風)	제733-1호	1844년	동아대학교박물관
자자총통(地字銅筒)	제863호	1557년	동아대학교박물관
주범망경(注梵網經)	제894-2호	고려말기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진실주집(眞實珠集)	제921-3호	조선시대	삼광사 (부산박물관 위탁보관)
선조국문유서(宣祖國文諭書)	제951호	조선시대	부산박물관
묘법연화경 권4~7(妙法蓮華經 卷四~七)	제961-2호	조선전기	영도구 증복길 490 법화사
박문수 초상(朴文秀 肖像)	제1189-2호	조선후기	남구 분포로 111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이경(연해) 권하 1의1~2, 2의1~2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解)]	제1219-3호	조선시대	취정사
불조삼경(佛祖三經)	제1224-2호	고려말기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부신 범어사 조계문 (釜山 梵魚寺 曹溪門)	제1461호	17세기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조선후기 문인 초상(朝鮮後期 文人 肖像) 이덕성 초상 및 관련자료 일괄 (李德成 肖像 및 關聯資料 一括)	제1498호	조선후기	남구 분포로 111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이경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제1518-2호	고려시대	삼광사 (부산박물관 위탁보관)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	제1522호	1565년	동아대학교박물관
금장오집경 권1~2 [金藏要集經 卷一~二]	제1525호	고려말~ 조선전기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부산 범어사 모조석가여래삼존좌상 (釜山 梵魚寺 木造釋迦如來三尊坐像)	제1526호	1661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목장지도(牧場地圖)	제1595-2호	1678년	부산대학교도서관
경상총여도(慶尙摠輿圖)	제1599호	18세기	남구 분포로 111
예안 김씨 가전 계획도 일괄 (醴安金氏傳契會圖一括)	제1616호	1546년 1581년 1606년	남구 분포로 111
부산 국청사 청동북 (釜山 國淸寺 青銅金鼓)	제1733호	1666년	금정구 북문로 42 (범어사성보박물관 위탁보관)
기장 장안사 대웅전 (機張 長安寺 大雄殿)	제1771호	1657년 증창	기장군 장안읍 장안로 482 장안사
칠태부인경수연도(七大夫人慶壽宴圖)	제1809호	18세기 전반	부산박물관
황리현명 청동북(黃利縣銘 青銅金鼓)	제1810호	1085년	동아대학교박물관
기장 장안사 석조석가여래삼불좌상 (機張 長安寺 石造釋迦如來三佛坐像)	제1824호	1659년	기장군 장안읍 장안로 482 장안사
고려 심육나한도(제7 기비기조선) [高麗 六十羅漢圖(第七 迦理迦尊者)]	제1882-1호	1236년	수영구 수영로 481번길 17
운수사 대웅전(雲水寺 大雄殿)	제1896호	1655년	사상구 모라로219번길 173 운수사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조선왕조의궤(朝鮮王朝儀軌)	제1901-6호	조선시대	한국순교지박물관
양산 금조총 출토 유물 일괄 (梁山 金鳥塚 出土 遺物 一括)	제1921호	삼국시대	경남 김해시 가야의길 190 국립김해박물관 (동아대박물관 입시보관)
김운겸필 영남기행화첩 (金允謙 筆 楊南紀行畫帖)	제1929호	1770년	동아대학교박물관
자치屡강 권57~60 (資治通鑑 卷五十七~六十)	제1281-5호	조선시대	기장군 일광면 용천리 752 취성사
재조본 사본을 권47~50 (再雕本 四分律 卷四十七~五十)	제1943호	고려시대	서구 옥전로 141-22 대성사
부산 북천동 22호분 출토 청동칠두령 (釜山 福泉洞 二十二號墳 出土 青銅七頭鎗)	제2019호	삼국시대	국립김해박물관
부산 북천동 38호분 출토 철제갑옷 일괄 (釜山 福泉洞 三十八號墳 出土 鐵製甲冑 一括)	제2020호	삼국시대	국립김해박물관 (복천박물관 입시보관)
불설장수멸죄호재동자다니경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제1092호	1416년	강서구 낙동남로 754-16 수능암사
인천안목(人天眼目)	제1094호	1395년	기장군 장안읍 해맞이로 253-38 모판음사
관북어지도(關北輿地圖)	제2061호	18세기	동아대학교박물관
백자 향이근(白磁 大壺)	제2064호	조선후기	부산박물관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 병풍 (新舊功臣相會題名之圖 屏風))	제2080호	17세기	동아대학교박물관
고려사(高麗史)	제2115-4호	17세기	동아대학교박물관

3) 사적(史蹟)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부산 동래 패총(釜山 東萊 貝塚)	제192호	삼한시대	동래구 온천천로 319번길 60
부산 금정산성(釜山 金井山城)	제215호	조선후기	금정구 긍성동 일원
부산 동삼동 패총(釜山 東三洞 貝塚)	제266호	신석기시대	영도구 태종로 729
부산 북천동 고분군(釜山 福泉洞 古墳群)	제273호	삼국시대	동래구 북천로 66
부산 연산동 고분군(釜山 蓮山洞 古墳群)	제539호	삼국시대	연제구 연산동 신30-4 일원
임시수도 대통령관저(臨時首都 大統領官邸)	제546호	1926년	임시수도기념관

4)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부산 영정동 배봉나무 (釜山 楊亭洞 배봉나무)	제168호	약 800년	부산진구 동평로 335
부산 범어사 등나무군락 (釜山 梵魚寺 등나무群落)	제176호	약 120년	금정구 청룡동 신2-1 일원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洛東江 下流 철새 渡來地)	제179호	약 130종	시하구, 강서구, 사상구 일원
부산 전포동 구상반려암 (釜山 田浦洞 球狀斑蠻岩)	제267호	제3기초	부산진구 전포동 산12 일원
부산 좌수영성지 곱슬 (釜山 左水營城址 곰솔)	제270호	약 400년	수영구 수영성로 43
부산 구포동 당숲(釜山 龜浦洞 堂숲)	제309호	약 500년	북구 구포동 1206-23 일원
부산 좌수영성지 푸조나무 (釜山 左水營城址 푸조나무)	제311호	약 500년	수영구 수영성로 43

5) 명승(名勝)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부산 영도 태종대(釜山 影島 太宗臺)	제17호		영도구 전망로 24
부산 오륙도(釜山 五六島)	제24호		남구 용호동 936 일원

6) 국가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문화재명	지정번호	소재지
동래야류(東萊野遊)	제18호	동래구 우정대로 195-46
수영야류(水營野遊)	제43호	수영구 수영성로 42
대금산조(大斧散音調)*	제45호	동래구 금강로153번길 70
좌수영어방놀이(左水營漁坊놀이)	제62호	수영구 수영성로 42
자수정(刺繡匠)	제80호	금정구 중앙대로1793번길 50
동해안별신굿(東海岸別神굿)	제82-1호	기장군 기장읍 차성서로 95

7) 국가민속문화재(重要民俗文化財)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의왕 원유관(義王 遠遊冠)	제274호	1900년	오륜대 한국순교자박물관
전 순정효황후 주칠 나전가구 (傳 純貞孝皇后 朱漆 蟠鈿家具)	제277호	1930년대	동아대학교박물관

8) 등록문화재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부산 임시수도정부청사(釜山 臨時首都政府廳舍)	제41호	1925년	동아대학교박물관
부산 송정역(釜山 松亭驛)	제302호	1940년	해운대구 송정중앙로8번길 60
부산 북병산배수지(釜山 伏兵山配水池)	제327호	1910년	중구 생길 10
부산 구 경남상업고등학교 본관 (釜山 舊 廣南商業高等學校 本館)	제328호	1927년	서구 망양로33번길 12
부산 구 남선전기 사옥 (釜山 舊 南鮮電氣 社屋)	제329호	1936년	서구 까치고개로 252
부산 수정동 일본식 가옥 (釜山 水晶洞 日本式 家屋)	제330호	1943년	동구 흥곡로 75
부산 초량동 일본식 가옥 (釜山 草梁洞 日本式 家屋)	제349호	1925년	동구 고관로13번나길 22
부산 재한유엔기념공원 (釜山 在韓 유엔기념公園)	제359호	1951년	남구 유엔평화로 93
부산 구 성지곡수원지 (釜山 舊 聖知谷水源池)	제376호	1909년	부산진구 새싹로 295
디젤전기기관차 2001호 (디젤電氣機關車 2001號)	제416호	1950년	부산진구 범천동 1219번지 부산철도차량관리단
광복군가집 제1집(光復軍歌集 第一集)	제474호	1943년	서구 해돋이로 297-2
부산 전차(釜山 電車)	제494호	1927년	서구 구덕로 225 동아대학교
해양조사연보(海洋調查年譜)	제554호	1928년 ~1967년	기장군 기장읍 해안로 152-1 국립수산과학원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부산 경남고등학교 덕령관 (釜山 廣南高等學校 德馨館)	제568호	1956년	서구 망양로111번길 65 경남고등학교
대한성공회 부산주교좌성당 (大韓聖公會 釜山主教座聖堂)	제573호	1924년	중구 대청로99번길 5-1
부산대학교 구 본관 (釜山大學校 舊 本館)	제641호	1959년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부산대학교 무지개문 및 구 수위실 (釜山大學校 무지개門 및 舊 守衛室)	제642호	1957년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부산 구 백제병원(釜山 舊 百濟病院)	제647호	1927년	동구 종암대로209번길 16
부산 우암동 소막마을 주택	제715호	1924년 (추정)	남구 우암동 189-1123 외
부산 구 동래역사	제753호	1934년	동래구 낙민동 112-3번지
대한민국임시정부 특별, 추조, 면지 및 소봉투	제774-3호	1931년	서구 구덕로 225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구 부산나병원기념비	제781호	1930년	동구 청공단로 27, 일신기독병원

나. 부산시지정문화재

1)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동래부 동헌 충신당(東萊府 東軒 忠信堂)	제1호	1636년	동래구 명륜로112번길 61
다대진 동헌(多大鎮 東軒)	제3호	조선후기	사하구 물운대1길 73
망미루(望美樓)	제4호	1742년	동래구 명륜로112번길 61
동래부 동헌 외대문(東萊府 東軒 外大門)	제5호	조선후기	동래구 명륜로112번길 61
동래학교 대성전(東萊鄉校 大成殿)	제6호	1813년	동래구 동래로 103
충렬사(忠烈祠)	제7호	조선시대	동래구 충렬대로 345
동래 장관청(東萊 將官廳)	제8호	1706년	동래구 명륜로94번길 36-6
오층석탑(五層石塔)	제9호	신라말 ~고려초	부산대학교박물관
삼층석탑(三層石塔)	제10호	고려말 ~조선초	동아대학교박물관
원효암 동편 삼층석탑 (元曉庵 東便 三層石塔)	제11호	신라말 ~고려초	금정구 범어사로 256 원효암
원효암 사면 삼층석탑 (元曉庵 西便 三層石塔)	제12호	신라말 ~고려초	금정구 범어사로 256 원효암
민덕사지 당간지주(萬德寺址幢竿支柱)	제14호	고려시대	복구 만덕동 784
범어사 당간지주(梵魚寺幢竿支柱)	제15호	동일신라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석등(梵魚寺 石燈)	제16호	동일신라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경상좌수영성 남문(慶尙左水營城 南門)	제17호	조선후기	수영구 수영성로 43
동모(銅矛)	제18호	청동기 시대	부산진구 부전2동 160 (복천박물관 위탁보관)
동모(銅矛)	제19호	청동기 시대	부산진구 부전2동 160 (복천박물관 위탁보관)
동파두(銅把頭)	제20호	청동기 시대	부산진구 부전2동 160 (복천박물관 위탁보관)
군관청(軍官廳)	제21호	조선후기	동래구 충렬대로 345 충렬사 내
범방동 삼층석탑(凡方洞 三層石塔)	제23호	고려시대	강서구 미음동 1530-2 일
동래부 동하면 고문서 (東萊府 東下面 古文書)	제24호	한 말	남구 유엔평화로 63 부산박물관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범어사 청룡암시 목판 (梵魚寺 靑龍巖詩 木板)	제25호	조선시대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천수 책판(梵魚寺 千手 冊板)	제26호	1676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어산집 책판(梵魚寺 魚山集 冊板)	제27호	1700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기념비 범어사 찬건사적, 범어사 고적판 (梵魚寺 紀念碑 梵魚寺 創建事蹟, 梵魚寺古蹟板)	제28호	조선시대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신문찰요 책판 (梵魚寺 神門帳要 冊板)	제29호	1908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권왕문 책판 (梵魚寺 劍王文 冊板, 언문판)	제30호	1908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태진화상주심경 (梵魚寺 太顛和尚注心經)	제32호	1411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험여록(梵魚寺 函虛錄)	제33호	1440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지공직지(梵魚寺 指空直指)	제34호	1475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선종영가집(梵魚寺 禪宗永嘉集)	제35호	1542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불설대보부모은중경 (梵魚寺 佛說大報父母恩重經)	제36호	1562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육조대사법보단경 (梵魚寺 六祖大師法寶壇經)	제37호	1569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금강보아비라밀경 (梵魚寺 金剛般若波羅密經)	제38호	1570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불조역대통재 (梵魚寺 佛祖歷代通載)	제39호	1576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웅신화상법어약록 (梵魚寺 蒙山和尚法語略錄)	제40호	1579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묵법연화경(梵魚寺 妙法蓮華經)	제41호	조선시대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내원정사 진언집(內院精舍 眞言集)	제42호	1658년	서구 엄광선로40번길 80 내원정사
내원정사 조상경(內院精舍 造像經)	제43호	1720년	서구 엄광선로40번길 80 내원정사
내원정사 엄불보권문 (內院精舍 念佛普勸文)	제44호	1765년	서구 엄광선로40번길 80 내원정사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내원정사 묘법연화경 (内院精舍 妙法蓮華經)	제45호	1632년 1649년	서구 엄광산로40번길 80 내원정사
범어사명 유제시루(梵魚寺銘 鏹製시루)	제46호	1664년	부산박물관
내원정사 목조관음보살좌상 (内院精舍 木造觀音菩薩坐像)	제47호	1730년	서구 엄광산로40번길 80 내원정사
유원각선생 미안감고비 및 비각 (柔遠閣先生埋案感古碑 및 碑閣)	제48호	1906년	부산박물관
포은시고(圃隱詩藁)	제49호	조선시대	부산시립시민도서관
가덕도 등대(加德島 燈臺)	제50호	1909년	강서구 가덕해안로 1237
범어사 사천왕도(梵魚寺 四天王圖)	제51호	1869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세석신중도(梵魚寺 帝釋神衆圖)	제52호	1817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관음전 백의관음보살도 (梵魚寺 觀音殿 白衣觀音菩薩圖)	제53호	1882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마하사 현왕도(摩訶寺 現王圖)	제54호	1792년	연제구 봉수로 138 마하사
범어사 의상대사 영경 (梵魚寺 義湘大師 影幘)	제55호	1767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기영각 시첩(耆英閣 詩帖)	제57호	1763년	동아대학교박물관
금강전도 12곡병(金剛全圖 十二曲屏)	제58호	조선후기	동아대학교박물관
동래 고지도(東萊 古地圖)	제59호	조선후기	동아대학교박물관
대원군 초상화(大院君 肖像畫)	제60호	조선후기	동아대학교박물관
복천사 지장사왕도(福泉寺 地藏十王圖)	제61호	1892년	영도구 산정길 41 복천사
복천사 아미타국락회상도 (福泉寺 阿彌陀極樂會上圖)	제62호	1892년	영도구 산정길 41 복천사
범어사 팔상·도성·나한전 (梵魚寺 拏相·獨聖·羅漢殿)	제63호	1906년 중건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대방광불화엄경 권40 (大方廣佛華嚴經 卷四十)	제64호	1728년	서구 구덕로 225 동아대학교박물관
복천사 조상경(福泉寺 造像經)	제65호	1575년	영도구 산정길 41 복천사
복천사 선원지진진도서 (福泉寺 禪源諸詮集都序)	제66호	1579년	영도구 산정길 41 복천사
범어사 대웅전 영산회상도 (梵魚寺 大雄殿 靈山會上圖)	제67호	1882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대웅전 상장보살도 (梵魚寺 大雄殿 三藏菩薩圖)	제68호	1882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범어사 대웅전 신중도 (梵魚寺 大雄殿 神衆圖)	제69호	1882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관음전 목조관음보살좌상 (梵魚寺 觀音殿 木造觀音菩薩坐像)	제70호	1722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비로전 목조비로자나삼존불좌상 (梵魚寺 毘盧殿 木造毘盧遮那三尊佛坐像)	제71호	17세기 ~18세기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미륵전 목조여래좌상 (梵魚寺 瑪勒殿 木造如來坐像)	제72호	17세기 ~18세기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석조연화대좌 하대석 (梵魚寺 石造蓮花臺座 下臺石)	제73호	통일신라말 ~고려초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자수 책거리 병풍(刺繡 冊巨里 屏風)	제74호	조선후기	수영구 흥령산로15번길 12
남지기로회도(南池耆老會圖)	제75호	1629년	동아대학교박물관
불설장수멸죄도(滅罪諸童子陁羅尼經)	제76호	16세기	금정구 중앙대로 2104
여전준천제명첩(御前濬川題名帖)	제77호	1760년	부산박물관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	제78호	18세기	부산박물관
이의양 필 산수도(李義養 筆 山水圖)	제79호	1811년	부산박물관
범어사 금강분야비단밀경 (梵魚寺 金剛般若波羅密經)	제80호	1415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보리달마시행론 (梵魚寺 菩提達摩行論)	제81호	14세기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신문연송집(梵魚寺 禪門拈頌集)	제82호	14세기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대방광불화엄경 권41 (大方廣佛華嚴經 卷四十一)	제83호	고려후기	동아대학교박물관
이덕성가 문적(李德成家 文籍)	제84호	17세기 ~18세기	부산박물관
장인사 응진전 석조석가삼존심온나한상 (長安寺 應真殿 石造釋迦三尊十六羅漢像)	제85호	1684년	기장군 장안읍 장안로 482 장인사
장인사 명부전 석조지장사임상 (長安寺 冥府殿 石造地藏十王像)	제86호	1684년	기장군 장안읍 장안로 482 장인사
장인사 대웅전 영산회상도 (長安寺 大雄殿 靈山會上圖)	제87호	1856년	기장군 장안읍 장안로 482 장인사
장인사 응진전 영산회상도 (長安寺 應真殿 靈山會上圖)	제88호	1882년	기장군 장안읍 장안로 482 장인사
장인사 명부전 지장보살도 (長安寺 冥府殿 地藏菩薩圖)	제89호	1856년	기장군 장안읍 장안로 482 장인사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범어사 동종(梵魚寺 銅鐘)	제90호	1728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운수사 대웅전 석조여래삼존좌상(雲水寺 大雄殿 石造如來三尊坐像)	제92호	17세기 ~18세기	사상구 모리로219번길 173 운수사
산임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仙巖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및 腹藏遺物)	제95호	조선전기	부산진구 백양산로 138 산임사
범어사 원종암 목조관음보살좌상(梵魚寺 元曉庵 木造觀音菩薩坐像)	제96호	1674년	금정구 범어사로 256 원종암
원광사 영산회상도(圓光寺 鏡山會上圖)	제97호	1791년	동래구 쇠미로 3~22 원광사
동래향청 고왕록(東萊鄉廳 考往錄)	제98호	1605년 ~1903년	부산박물관
동래향교 고왕록(東萊鄕校 考往錄)	제99호	1782년 ~1900년	부산박물관
흑유호 및 흑유정병(黑釉壺 및 黑釉淨瓶)	제101호	12세기	동아대학교박물관
분청사기인화문사사부대호(粉青沙器印花菊花文四耳附胎壺)	제102호	15세기	동아대학교박물관
갑인춘 친정도(甲寅春 親政圖)	제103호	1734년	동아대학교박물관
천안사 법어(天安寺 法語)	제105호	1577년	부산진구 백양산로 54번길 72 천안사
장안사 명부전(長安寺 明府殿)	제106호	1774년	기장군 장안읍 중건 장안로 482 장안사
장안사 응진전(長安寺 應真殿)	제107호	1899년	기장군 장안읍 장안로 482 장안사
선광사 석가여래성도기(仙光寺 穩迦如來成道記)	제108호	15C (세조연간)	사상구 백양대로804번길 42~123 선광사
김홍도 필 산수인물도(金弘道 筆 山水人物圖)	제109호	1800년 경	부산박물관
심사정 필 산승보님도(沈師正 筆 山僧補衲圖)	제110호	18세기	부산박물관
류성룡 필 진사무자 조고(柳成龍 筆 進士務翁 草稿)	제111호	1592년	부산박물관
백자철화용문호(白磁鐵畫龍文壺)	제112호	17세기	부산박물관
곤여전도(坤輿全圖)	제114호	18세기	부산박물관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금정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金井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및 腹藏遺物)	제115호	1677년	동래구 우장초로 157~59 금정사
해광사 선월제전집도서(海光寺 瞳源詩贊集都序)	제117호	1579년	기장군 기장을 기장해인로 340 해광사
해광사 대방광불화엄경 권23(海光寺 大方廣佛華嚴經 卷二十三)	제118호	고려시대 (12~13세기)	기장군 기장을 기장해인로 340 해광사
석조관음보살좌상(石造觀音菩薩坐像)	제119호	고려말기	동아대학교박물관
목조보살좌상(木造菩薩坐像)	제120호	17세기	동아대학교박물관
시왕도(十王圖)	제121호	17세기	동아대학교박물관
동제 화엄경변상도 경상(銅製 菩提經變相圖 經床)	제122호	조선시대	동아대학교박물관
계사명 사리구(奚已銘 舍利具)	제123호	조선후기	동아대학교박물관
전 경주 출토 승사리구(傳 慶州 出土 僧舍利具)	제124호	조선후기	동아대학교박물관
박기종 유물 일괄(朴琪宗 遺物 一括)	제125호	19C후반 ~20C전반	부산박물관
칠보사 목조관음보살좌상(七寶寺 木造觀音菩薩坐像)	제126호	1730년대	서구 해동이로109번길 17 칠보사
황련사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黃蓮寺 大方廣圓覺修多羅義經)	제127호	1588년	수영구 수영로497번나길 25 황련사
동래향교 명륜당(東萊鄉校 明倫堂)	제128호	1815년	동래구 동래로 103 동래향교
폭포사 모법연화경(瀑布寺 妙法蓮華經)	제129호	1477년	해운대구 장산로 331~112 폭포사
금천선원 모법연화경(金泉禪院 妙法蓮華經)	제130호	1477년	금정구 금샘로 271 금천선원
고불사 모법연화경(古佛寺 妙法蓮華經)	제131호	1493년	기장군 철마면 고촌로 28번길 77 고불사
백운사 모법연화경 권1~3(白雲寺 妙法蓮華經 卷1~3)	제132호	조선전기	해운대구 운봉길 315 백운사
백운사 모법연화경 권4~7(白雲寺 妙法蓮華經 卷4~7)	제133호	조선전기	해운대구 운봉길 315 백운사
진주성도(晋州城圖)	제134호	19세기	동아대학교박물관
거제부도(巨濟府圖)	제135호	19세기	동아대학교박물관
분청사기 마흥목처 신반진씨 지석(粉青沙器 馬興牧妻 新反陳氏 誌石)	제136호	1467년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부산대학교박물관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자치통강감목(資治通鑑綱目)	제137호	조선전기	기장군 일광면 상곡길 55
백련사 약사여래본원공덕경 (白蓮寺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	제138호	고려초기 (11~12C)	남구 이기대공원로 85~74 백련사
범어사 사지암 석조보살좌상 (梵魚寺 獅子庵 石造菩薩坐像)	제139호	1904년	금정구 삼아1길 26 시지암
청동북(青銅金鼓)	제140호	고려시대	서구 구덕로 225 동아대학교박물관
범어사 원효암 아미타삼존도 (梵魚寺 元曉庵 阿彌陀三尊圖)	제141호	1892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성보박물관 위탁보관)
아미타내영도(阿彌陀來迎圖)	제142호	1813년	부산대학교박물관
칠성도(七星圖)	제143호	19C중반	부산대학교박물관
목조아미티여래좌상 (木造阿彌陀如來坐像)	제144호	1765년	부산대학교박물관
삼광사 석조여래좌상 (三光寺 石造如來坐像)	제145호	17C후반 ~18C초반	부산진구 조읍천로 43번길 77 삼광사
해동용궁사 금강반야비라밀경문 (海東龍宮寺 金剛般若波羅密經論)	제147호	조선시대	기장군 기장을 용궁길 86 해동용궁사
해동용궁사 성가니분노 금강동지보살성취의배경 (海東龍宮寺 聖迦尼忿怒 金剛童子菩薩成就儀軌經)	제148호	조선시대	기장군 기장을 용궁길 86 해동용궁사
해운정사 전법계(海雲精舍 傳法偈)	제149호	1925년 ~1967년	해운대구 우동2로 40~6 해운정사
해동용궁사 목조여래좌상 (海東龍宮寺 木造如來坐像)	제150호	17C전반	기장군 기장을 용궁길 86 해동용궁사
자비암 육경합부(慈悲庵 六經合部)	제151호	조선전기	동래구 복천로5번가길 46 자비암
자비암 선림보훈(慈悲庵 禪林寶訓)	제152호	1525년	동래구 복천로5번가길 46 자비암
기장 장관청(機張 將官廳)	제153호	1835년	기장군 읍내길 68번길 23~1
금동십일면관음보살좌상 (金銅十一面觀音菩薩坐像)	제154호	고려시대	부산대학교박물관
범어사 비로진(梵魚寺 毘盧殿)	제155호	1684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범어사 미륵전(梵魚寺 彌勒殿)	제156호	1887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금동관음보살좌상(金銅觀音菩薩坐像)	제157호	14세기	부산박물관
목조지장보살좌상(木造地藏菩薩坐像)	제158호	16세기	부산박물관
목조여래좌상(木造如來坐像)	제159호	17세기 전반	부산박물관
목조여래좌상(木造如來坐像)	제160호	18세기 후반	부산박물관
목조아미타여래좌상(木造阿彌陀如來坐像)	제161호	18세기 전반	부산박물관
동래무첨선생인(東萊武廳先生案)	제162호	1705년~ 19C 후반	동래구 수인동 동래기영회 인력동 충렬사관리사무소
경상좌수영선생인(慶尙左水營先生案)	제163호	1627년~ 18C 후반	동래구 충렬대로 345 충렬사관리사무소
다대진선생인(多大鎮先生案)	제164호	1627년 ~1894년	동래구 충렬대로 345 충렬사관리사무소
용적사 신중도(龍積寺 神衆圖)	제165호	1864년	강서구 한적로 41~56 용적사 금정구
훈몽자회 책판(蒙字會 冊板)	제166호	조선시대	부산대학교로63번길 2 부산대학교박물관
범어사 극락암 칠성도 (梵魚寺 極樂庵 七星圖)	제167호	1861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승자총통(勝字銘筒)	제168호	1583년	부산대학교로63번길 2 부산대학교박물관
고불사 목조여래좌상 (古佛寺 木造如來坐像)	제169호	조선후기	기장군 철마면 고촌로 28번길 77 고불사
청동북(青銅金鼓)	제170호	고려전기 ~중기	남구 유엔평화로 63 부산박물관
장안사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	제171호	조선후기	기장군 정안읍 정안로 48(장안리, 장안사)
장안사 응진전 석조석가여래삼존상 복장물 일괄	제172호	조선시대	기장군 정안읍 장안로 48(장안리, 장안사)
범어사 원효암 목조관음보살좌상 복장을 일괄(梵魚寺 元曉庵 木造觀音菩薩坐像 復蓋物)	제173호	조선시대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감지금니묘법연화경(結紙金泥妙法蓮華經)	제174호	1276년	기장군 정안읍 죽천2길 46, A동 304호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삼층석탑(三層石塔)	제175호	통일신라시대 59~15	금정구 상현로 79번길
범어사 목조팔각불감 (梵魚寺 木造八角佛龕)	제176호	조선후기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설뫼탐진안씨분재기(立山耽津安氏分財記)	제177호	1650(효종2) 1681(숙종7) 1784(정조8)	부산대학교 박물관
범어사 삼불연(梵魚寺 三佛龕)	제178호	조선후기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몽산화상육도보설(蒙山和尚 六道普說)	제179호	1539년 (중종34)	수영구 수여로 497번 나길 25
원수명 가죽투구와 갑옷 어깨장식 (元帥名 皮胄 甲 肩韁)	제180호	18C 말~ 19C 전반 경	동아대 석당박물관
부산박물관 백자청화운룡문호 (白磁青畫雲龍文壺)	제181호	조선시대 18C	남구 유엔평화로 63 부산박물관
동아대학교 명현초상 일괄(名賢肖像一括)	제182호	19C	동아대 석당 박물관
해주도 병풍(海州圖 屏風)	제183호	조선시대 19C	동아대 석당 박물관
범어사 원효대사 진영(梵魚寺 元曉大師 眞影)	제184호	1863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시명대사 진영(梵魚寺 泗冥大師 眞影)	제185호	1863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고승 진영(梵魚寺 高僧 眞影)	제186호	조선시대 19C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민간호 필사본 일괄(閔建鎬 筆寫本 一括)	제187호	19C 말 ~20C 초	남구 유엔평화로 63 부산박물관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제188호	1861년	부산대학교도서관
장안사 명부전 석조지장보살삼존 및 사원상 목간유물 (長安寺 明府殿 石造地藏菩薩三尊 및 十王像 腹藏遺物)	제189호	조선후기 17C후반	기장군 장안읍 장안로 482
관음보살도 및 목제감(觀音菩薩圖) 및 木製龕	제190호	조선시대	부산박물관
의령 금란계안(宜寧 金蘭楔案)	제191호	17C초 ~ 20C	부산대학교 도서관
벽자 달항아리(白磁 壺)	제192호	조선시대	수영구 수영로 481번길 17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전등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傳燈寺 造阿彌陀如來坐像)	제193호	18세기	동래구 동래로 215번길 22~13 전등사
나전합(蠟鉢函)	제194호	19세기	부산박물관
임오명 어피인장합(壬午銘 魚皮印章函)	제195호	1882년	부산박물관
어피인장합(魚皮印章函)	제196호	조선후기	부산박물관
해동용궁사 목조보살좌상 (海東龍宮寺 木造菩薩坐像)	제197호	16세기	기장군 기장을 시랑리 418~3번지
이덕형 초상 초본(李德馨 肖像 初本)	제198호	조선후기	동아대학교 박물관
도기 집모양 명기陶器 家形 明器)	제199호	삼국시대	정관박물관
한글조선전도(한글朝鮮全圖)	제200호	19세기	국립해양박물관
원오사 고분화상선요 (圓悟寺 高峰和尚禪要)	제201호	조선중기	해운대구 윗반송로 124~5 원오사
정선 필 청풍계지각(鄭敎 筆 清風溪池閣)	제202호	조선후기	동아대학교 박물관
법계성범수록승회수재의궤 (法界聖凡陸勝會水齋儀軌)	제203호	1558년	서구 대신공원로 32 (명종13)
김두량 필 삼설개금斗櫟 犬圖)	제204호	1743년 (영조8)	수영구 수영로 481번길 17
고불사 대장일람집 권7~10 (古佛寺 大藏一覽集 卷七~十)	제205호	13세기	기장군 철마면 고촌로 중염 28번길 77 고불사
고불사 불조역대통재 권1~12 (古佛寺 佛祖歷代通載 卷一~十二)	제206호	1576년 (선조9)	기장군 철마면 고촌로 28번길 77 고불사
고불사 불설대보부모은증경 (古佛寺 佛說大報父母恩重經)	제207호	1573년 (선조6)	기장군 철마면 고촌로 28번길 77 고불사
이원천 필 호도(李元禪 筆 虎圖)	제208호	조선후기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45 국립해양박물관
나전칠국화모란님줄무늬상자 (蠟鉢漆菊花牡丹唐草文箱子)	제209호	18세기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45 국립해양박물관
관세음보살42수진언집 (觀世音菩薩四十二手真言集)	제210호	1387년 (우왕13)	금정구 종암대로 1667번길
보광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普光寺 木造阿彌陀如來三尊坐像)	제211호	조선후기	동구 범선로 1번길 35 보광사
해운정사 심충석탑 (海雲精舍 三層石塔)	제212호	통일신라 40~6 해운정사	해운대구 우동2로 40~6 해운정사
총현주 필 산수도(洪顯周 筆 山水圖)	제213호	조선후기	서구 구덕로 225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제214호	1477년	강서구 낙동남로 754~16 수영역사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현수제승법수(賢首諸乘法數)	제214호	1500년	금정구 중앙대로 1667번길 8, 101-2004호, 해유
현수제승법수(賢首諸乘法數)	제216호	1500년	해운대구 대천로 103번길 61, 정충영
소총통(小銚筒)	제217호	1592년	금정구 부산대학교로 63번길 2, 부산대학교박물관
후대용 평면해시계(平面日影) (携帶用平面時計(平面日影))	제218호	1870년	서구 구역로 225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독례집요 목판(讀禮輯要 木板)	제219호	1909년	남구 유인봉화로 63 부산박물관

2)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수영농청놀이(水營農廳놀이)	민속놀이 (농요)	제2호	수영구 수영상로 42 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동래학춤(東萊鶴舞)	민속무용	제3호	동래구 우장준로 195-46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동래지신밟기(東萊地神밟기)	민속놀이	제4호	동래구 우장준로 195-46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충렬사제행(忠烈祠祭享)	제 의	제5호	동래구 충렬대로 345 충렬사인력서원
부산농악(釜山農樂)	농 악	제6호	서구 대신공원로 34-91 부산구민속예술보존협회
다대포후리소리	민속놀이 (어로요)	제7호	시하구 다대동로 12 다대포후리소리보존협회
가야금산조(伽倻琴散調)	기 악	제8호	동래구 우장준로 195-46 강태총류가야금산조보존회
부산영산재(釜山靈山齋)	불교의식	제9호	시성구 벽암대로 950번나길 80-42 부산영산재보존협회
동래고무(東萊鼓舞)	교방무용	제10호	동래구 우장준로 195-46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구덕망깨소리	민속놀이 (노동요)	제11호	서구 대신공원로 34-91 부산구덕민속예술보존협회
주성장(鑄成匠, 鑄鐘)	범종제작	제12호	기장군 정관면 용수공동1길 14 홍종사
사기정(沙器匠)	백자제작	제13호	기장군 일광면 기장대로 1201-20 심주요
동래한랑춤(東萊閑良舞)	민속무용	제14호	동래구 우장준로 195-46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불화장(佛畫匠)	전통불화제작	제15호	북구 구남로 15번길 36
아쟁산조(牙箏散調)	기 악	제16호	동래구 온천장로 102
화해장(靴鞋匠)	전통신발제작	제17호	시하구 임남공원로 521번길 19
부산 고분도리걸립	민속놀이	제18호	서구 대신공원로 34-91 부산구덕민속예술보존협회
선희(禪)	선희제작	제19호	수영구 민락수변로 9-1 원각산원
목조각장(木影刻匠)	불상조각	제20호	강서구 신도전로 63 금강불교조각연구소
지연장(紙鳶匠)	동래 전통연재작 및 연날리기	제21호	동래구 우장준로 31번길 15-2
수영지신밟기	민속놀이	제22호	수영구 수영로 42 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부산 기장 오구굿	무 속	제23호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 436번길 28
전각장(篆刻匠)	전통전각제작	제24호	금정구 금생로 591
하단돛배 조선장(造船匠)	조선장	제25호	시하구 하단2동 낙동대로 575번길 삼경맨션 21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장각장(銅章刻匠)	동장각장	제26호	동장각장 달맞이 117번길 111, 502호

3) 기념물(記念物)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만덕사지(萬德寺址)	제3호	고려시대	북구 만덕동 30 일원
배산성지(盃山城址)	제4호	삼국시대	연제구 연산동 산38-1 일원
동래읍성지(東萊邑城址)	제5호	1731년	동래구 복천 안락동 일원
구포왜성(龜浦倭城)	제6호	1593년	북구 덕천동 510 일원
부산지성(釜山鎮城)	제7호	조선시대	동구 자성로 99 일원
경상좌수영성지(慶尙左水營城址)	제8호	조선시대	수영구 수영동 일원
윤공단(尹公壇)	제9호	1765년	시하구 윤공단로 112
정공단(鄭公壇)	제10호	1766년	동구 정공단로 23
송공단(宋公壇)	제11호	1742년	동래구 동래시장길 27
25의용단(二五義勇壇)	제12호	1853년	수영구 연수로379번길 42
임진동래의총(壬辰東萊義塚)	제13호	1731년	동래구 우장초로 155 (금강공원 내)
은정개간비(溫井改建碑)	제14호	1766년	동래구 금강로 124번길 23-17
금정산성 부설비(金井山城 復設碑)	제15호	1808년	금정구 금강로 217
내주죽성비(萊州築城碑)	제16호	1735년	동래구 복천동 3-2번지 일원
이조제찰비(統制制札碑)	제17호	1683년	부산박물관
척화비(斥和碑)	제18호	1871년	부산박물관
부신진성 서문 성곽우주석 (釜山鎮城 西門 城郭隅柱石)	제19호	조선시대	동구 범일동 321-29번지
정운공 순의비(鄭運公 素義碑)	제20호	1798년	시하구 대대동 산145(물운대 내)
동래 남문비(東萊 南門碑)	제21호	1688년	부산박물관
물운대(沒雲臺)	제27호	시하구 대대동 산144 일원	
신선대(神仙臺)	제29호	남구 용당동 산170 일원	
이설교비(利涉橋碑)	제33호	1694년	동래구 낙민동 86-2번지 온천천시민공원
천성진성(天城鎮城)	제34호	조선시대	강서구 천성동 1613 일원
가덕도 척화비(加德島 斥和碑)	제35호	1871년	강서구 천가길 335 전기초등학교
가덕도 동백군락(加德島 冬柏群落)	제36호	강서구 대봉동 산13-2 일원	
기장 아이봉수대(機張 阿爾烽燧臺)	제38호	조선시대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산1-1 일원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기장항교(機張鄉校)	제39호	조선시대	기장군 기장을 차성로 41번길 35
기장읍성(機張邑城)	제40호	조선시대	기장군 기장을 동부·서부·대라리
기장 척화비(機張 斥和碑)	제41호	1871년	기장해안로 577 대변초등학교
노포동 고분군(老圃洞 古墳群)	제42호	삼국시대	금정구 노포동 142-1 일원
생곡동 가달고분군(生谷洞 加達古墳群)	제43호	삼국시대	강서구 생곡동 산86 일원
범방동 폐총(凡方洞 貝塚)	제44호	신석기시대	강서구 가락대로 929 부산경남경마공원
해운대 석각(海雲臺 石刻)	제45호	고려시대	해운대구 우1동 710-4
해운대 동백섬(海雲臺 冬柏섬)	제46호	해운대구 우1동 710 일원	
김해 죽도왜성(金海 竹島倭城)	제47호	1593년	강서구 죽림동 787 일원
기장 죽성리와성(機張 竹城里倭城)	제48호	1594년	기장군 기장을 죽성리 601 일원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산지점 (舊 東洋拓殖株式會社 釜山支店)	제49호	1929년	중구 대청로 104 부산근대역사관
기장 죽성리해송(機張 竹城里海松)	제50호	250~300년	기장군 기장을 죽성리 249
부산지방기상청(釜山地方氣象廳)	제51호	1934년	중구 복병산길32번길 5-11 남구 유엔평화로 63
사처석교비(四處石橋碑)	제52호	1781년	부산박물관
정과정 유적지(鄭平亭 遺蹟址)	제54호	고려시대	수영구 망미동 산7-29일원
부신진일신여학교 (釜山鎮日新女學校)	제55호	1905년	동구 정공단로17번길 17
영도대교(影島大橋)	제56호	1934년	중구 중앙동~영도구 대교동
망신도·유주암(望山島·維舟巖)	제57호	삼국시대	강서구 송정동 산188 일원
기장 동부리 회화나무	제58호	300년	기장군 기장을 읍내길68번길 23-1
기장산성(機張山城)	제59호	삼국시대	기장군 기장을 대리리, 서부리·칠마면 안평리 일원
가덕도 동백군락(加德島 冬柏群落)	제36호		강서구 대형동 산13-2 일원
동래부 동헌(東萊府 東軒)	제60호	조선후기	동래구 명륜로112번길 61 일원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동래향교(東萊鄉校)	제61호	1815년	동래구 동래로 103 일원
금정산 금샘(金井山 金井)	제62호		금정구 청룡동 산2-1
금곡동 올리 바위그늘유적 (金谷洞 栗里 鮫陰遺蹟)	제63호	신석기 말기	북구 금곡동 산24
총장공 전발(忠壯公 鄭撥 戰亡碑)	제64호	1761년	동구 청공단로 23(청공단 내)

4) 민속문화재(民俗文化財)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범어사 황실축원 장엄수 (梵魚寺 皇室祝願 莊嚴舡)	제1호	한 말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다대첨시영 갑주(多大僉使營 甲冑)	제2호	조선후기	동래구 충렬대로 345 충렬사기념관
동래영 갑주(東萊營 甲冑)	제3호	조선후기	동래구 충렬대로 345 충렬사기념관
동래영 구군복(東萊營 具軍服)	제4호	조선후기	동래구 충렬대로 345 충렬사기념관
장안사 연(長安寺 燭)	제5호	1760년	기장군 장안읍 장안로 482 장안사
장산 마고당·천제단 (長山 麻姑堂·天祭壇)	제6호	1924년중간	하운대구 우동 산 148-1
박기종 관복 일월(朴琪宗 官服 一括)	제7호	19세기 말	부산박물관
박기종 대례복 일월(朴琪宗 大禮服 一括)	제8호	20세기 초	부산박물관
박기종 통상복 일월(朴琪宗 通常服 一括)	제9호	20세기 초	부산박물관
장안사 명부전 삼번상 (長安寺 冥府殿 三幡床)	제10호	1748년	기장군 장안읍 장안로 482 장안사
장안사 응진전 법대경상 (長安寺 應真殿 法臺經床)	제11호	1706년	기장군 장안읍 장안로 482 장안사
해련사 동래부 인상(海蓮寺 東萊府 印床)	제12호	조선후기	영도구 범꽃길 177 해련사
해련사 장엄의식구(海蓮寺 莊嚴儀式具)	제13호	조선후기	영도구 범꽃길 177 해련사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소림사 오방幡(少林寺 五方幡)	제14호	조선말기 ~근대	동구 조량상로65번길 7 소림사
소림사 칠여래幡(少林寺 七如來幡)	제15호	조선말기 ~근대	동구 조량상로65번길 7 소림사
수영이류 탈	제16호	1964년	동아대학교박물관
범어사 목조(梵魚寺 木槽)	제17호	1757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오방幡(梵魚寺 五方幡)	제18호	조선말기~근대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농기(農旗)	제19호	1905년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45 국립해양박물관

5) 문화재자료(文化財資料)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반송 삼절사(盤松 三節祠)	제1호	1839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기장 남산봉수대(機張 南山烽燧臺)	제2호	조선시대	기장군 기장을 죽성리 신52번지
범어사 청동은입사 향완 (梵魚寺 青銅銀入絲 香盤)	제3호	1651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유제 대발(梵魚寺 鍮製 大鉢)	제4호	1825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대웅전 청동북 (梵魚寺 大雄殿 青銅金鼓)	제5호	1862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선방 축성폐(梵魚寺 碇房 祝聖牌)	제6호	한 말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옥련선원 마애지장보살좌상 (玉蓮禪院 磨崖地藏菩薩坐像)	제7호	조선후기	수영구 광남로257번길 58 옥련선원
동래부사 유심 선정비 (東萊府使 柳沈 善政碑)	제8호	1651년	남구 유엔평화로 63 부산박물관
혜원정사 팔상도(慧苑精舍 八相圖)	제9호	1925년	연제구 고분로68번길 47 혜원정사
범어사 아미타극락회상도 (梵魚寺 阿彌陀極樂樂會上圖)	제10호	1860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범어사 청풍당 아미타극락회상도 (梵魚寺 淸風堂 阿彌陀極樂會上圖)	제11호	1860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아미타이십육보살도 (梵魚寺 阿彌陀二十六菩薩圖)	제12호	1887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빠로나불화도 (梵魚寺 普盧遮那佛會圖)	제13호	18세기 ~19세기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칠성도(梵魚寺 七星圖)	제14호	1891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마하사 영산회상도(摩訶寺 靈山會上圖)	제15호	1906년	연제구 봉수로 138 마하사
마하사 응진전 영산회상도 (摩訶寺 應真殿 靈山會上圖)	제16호	1910년	연제구 봉수로 138 마하사
마하사 응진전 16나한도 (摩訶寺 應真殿 十六羅漢圖)	제17호	1910년	연제구 봉수로 138 마하사
마하사 대웅전 석조석가여래삼존상 (摩訶寺 大雄殿 石造釋迦如來三尊像)	제18호	조선후기	연제구 봉수로 138 마하사
마하사 응진전 목조석가여래좌상 (摩訶寺 木造釋迦如來坐像)	제19호	조선후기	연제구 봉수로 138 마하사
마하사 응진전 석조나한상 (摩訶寺 應真殿 石造羅漢像)	제20호	조선후기	연제구 봉수로 138 마하사
범어사 목조사방삼보자존파 (梵魚寺 木造十方三寶慈壽牌)	제21호	조선후기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목조석가여래위파 (梵魚寺 木造釋迦如來位牌)	제22호	조선후기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목조옴마니반매홀洙箇	제23호	조선후기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목제어피인통 (梵魚寺 木製魚皮印)	제24호	조선후기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연(梵魚寺 輩)	제25호	조선후기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비라(梵魚寺 饒欵)	제26호	조선후기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선암사 패불령(仙巖寺 掛佛幘)	제27호	1926년	부산진구 백양산로 138 선암사
변관식 필 영도교(卞寔植 筆 影島橋)	제28호	1948년	서구 구덕로 225 동아대학교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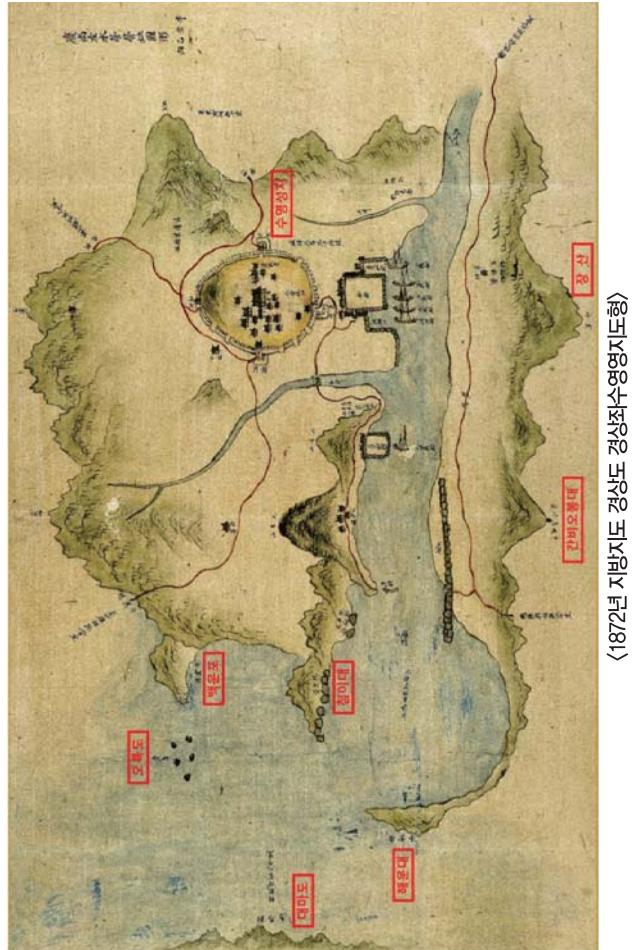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안적사 지장시왕도 (安寂寺 地藏十二王圖)	제29호	1919년	기장군 기장을 내리길 461-16 안적사 (범어사성보박물관 위탁보관)
안적사 아미타극락회상도 (安寂寺 阿彌陀極樂會上圖)	제30호	1874년	기장군 기장을 내리길 461-16 안적사 (범어사성보박물관 위탁보관)
대원사 독성도(大願寺 獨聖圖)	제31호	19세기	부산진구 가야공원로 110 대원사
미인도(美人圖)	제32호	한 말	서구 구덕로 225 동아대학교박물관
연등사 영산회상도(燃燈寺 靈山會上圖)	제33호	1924년	동구 좌천동로 17-3 연등사
청량사 영산회상도(淸涼寺 靈山會上圖)	제34호	1918년	강서구 제도로 29 청량사
복천사 영산회상도(福泉寺 靈山會上圖)	제35호	1921년	영도구 산정길 41 복천사
금정진 관아터(金井鎮 官衙址)	제36호	조선후기	금정구 금성동 280 일원
선암사 청동북(仙巖寺 青銅金鼓)	제37호	조선후기	부산진구 백양산로 138 선암사 (범어사성보박물관 위탁보관)
복천사 독성도 및 복장유물 (福泉寺 獨聖圖 및 腹藏遺物)	제38호	1892년	영도구 산정길 41 복천사
복천사 현왕도 및 복장유물 (福泉寺 現王圖 및 腹藏遺物)	제39호	근 대	영도구 산정길 41 복천사
동래부산도병(東萊釜山圖屏)	제40호	1905년 경	남구 유엔평화로 63 부산박물관
척판암 석조여래좌상(鷲板庵 石造如來坐像)	제41호	조선후기	기장군 장인읍 장인로 490-156 척판암
묘관음사 오여래탱(妙觀音寺 五如來幘)	제42호	조선후기	기장군 장인읍 해맞이로 253-38 묘관음사
운수사 아미타삼존도 (雲水寺 阿彌陀三尊圖)	제43호	1907년	사상구 모라로 210번길 173 운수사
국청사 금정산성승장인 (國清寺 金井山城僧將印)	제44호	조선후기	금정구 북문로 42 국청사 (범어사성보박물관 위탁보관)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범어사 수복문 병풍 (梵魚寺 刺繡 壽福文 屏風)	제45호	조선말기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묘관음사 불자(妙觀音寺 拂子)	제46호	조선말기~일제강점기	기장군 성안읍 범맞이로 253-38 묘관음사
범어사 내원암 석조보살좌상 (梵魚寺 內院庵 石造菩薩坐像)	제48호	조선후기 (19세기)	금정구 범어사로 248 내원암
복천사 석조석가여래 및 보살좌상 (福泉寺 石造釋迦如來 및 菩薩坐像)	제49호	1922년	영도구 신정길 41 보천사
관음정사 석존상(觀音精舍 石尊像)	제50호	조선시대	해운대구 재반로 282번길 113 관음정사
교린수지(交隣須知)	제51호	1881년	부산진구 월드컵대로 462 부산시립서민도서관
석조여래좌상(石造如來坐像)	제52호	1892년	금정구 종양대로 2104 금정중학교
선암사 삼층석탑(仙巖寺 三層石塔)	제53호	고려시대	부산진구 백양산로 138 선암사
쌍구장경호(雙口長頸壺)	제54호	삼국시대	동아대학교박물관
마문장경호(馬文長頸壺)	제55호	삼국시대	동아대학교박물관
전 이순신 초상(傳 李舜臣 肖像)	제56호	조선말기	동아대학교박물관
범어사 고라삼층석탑 (梵魚寺 高麗三層石塔)	제57호	고려초기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신흥사 치성광심존도 (新興寺 燔盛光三尊圖)	제58호	1885년	부산진구 가야공원로 77-20 신흥사
용적사 독성도(龍積寺 獨聖圖)	제59호	1909년	강서구 한작로 41-56 용적사
관음사 모법연화경(觀音寺 妙法蓮華經)	제60호	15세기 전반	사하구 제석로 79번길 33 관음사
백련사 석조여래좌상(白蓮寺 石造如來坐像)	제61호	1906년	남구 이기대공원로 85-74 백련사
취정사 석조여래좌상(鶴井寺 石造如來坐像)	제62호	18세기	기장군 일광면 상곡길 55 취정사
기장향교 풍화루(機張鄕校 風化樓)	제63호	1885년 중건	기장군 기장을 차성로 417번길 35 기장향교
홍제사 보광암명 범종 (弘濟寺 寶光庵銘 梵鍾)	제64호	1935년	부산진구 진남로 304번길 34 홍제사
동래향교 반화루(東萊鄕校 攀華樓)	제65호	1815년	동래구 동래로 103 동래향교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안심사 삼세불회도(安心寺 三世佛會圖)	제66호	1879년	북구 공해4길 98-100 안심사
원각사 현왕도(圓覺寺 現王圖)	제67호	19세기	해운대구 장산로 427-291 원각사
승학사 석조여래좌상 (乘鶴寺 石造如來坐像)	제68호	18세기	사상구 학감대로 49번길 54-36 승학사
원각사 현왕도(圓覺寺 現王圖)	제69호	19세기	해운대구 장산로 427-291 원각사
승학사 석조여래좌상 (乘鶴寺 石造如來坐像)	제70호	18세기	사상구 학감대로 49번길 54-36 승학사
금강사 도법연화경(金剛寺 妙法蓮華經)	제71호	1646년	동래구 우장춘로 211 금강사
구 한국은행 부산본부 (舊 韓國銀行 釜山本部)	제72호	1963년	중구 대청로 112
삼강형실도(三綱行實圖)	제73호	17세기 ~18세기	부산대학교도서관
광포도(廣浦圖)	제74호	1573년	동아대학교박물관
고불사 선종영가집(古佛寺 禪宗永嘉集)	제75호	1575년	기장군 철미면 고촌로 28번길 77 고불사
대해보각선사서(大慧普覺禪師書)	제76호	조선시대	남구 이기대공원로 85-74 백련사
백련사 고려사(白蓮寺 高麗史)	제77호	19세기 말 ~20세기 초	금정구 상아길 26 시지암
범어사 사자암 칠성도 (梵魚寺 獅子庵 七星圖)	제78호	1636년	해운대구 우동2로 40-6 해운정사
해운정사 선문염송집 (海雲精舍 篡門拈頌集)	제79호	1647년	해운대구 우동2로 40-6 해운정사
동림사 모법연화경 卷4-7 (東林寺 妙法蓮華經 卷四七)	제80호	1531년	기장군 기장을 기장대로 143-12 동림사
거제선생안(巨濟先生案)	제81호	1751년 ~1904년	부산대학교도서관
한중일관계사료초(韓中日關係史料抄)	제82호	1926년 ~1927년	부산대학교도서관
실상사 신중도(實相寺 神衆圖)	제83호	1929년	동구 수정로 68번길 7 실상사
실상사 칠성도(實相寺 七星圖)	제84호	1929년	동구 수정로 68번길 7 실상사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금산사 산신도(金山寺 山神圖)	제85호	1856년	기장군 장안읍 신리길 17~37 금산사
석조석가여래좌상(石造釋迦如來坐像)	제86호	근대	부산대학교박물관
대성사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 [大成寺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解)]	제87호	조선중기	서구 옥천로 141~22 대성사
구 부산 임시축우소 청사 [舊 釜山 臨時畜貯所 廳舍]	제88호	1905년	중구 흑교로 59번길 16~4
용적사 산신도(龍積寺 山神圖)	제89호	1909년	강서구 한적로 41~56 용적사
옥정사 지장시왕도(玉井寺 地藏十王圖)	제90호	1924년	기장군 일광면 달음길 101 옥정사
옥정사 신중도(玉井寺 神衆圖)	제91호	1924년	기장군 일광면 달음길 101 옥정사
옥정사 칠성도(玉井寺 七星圖)	제92호	1924년	기장군 일광면 달음길 101 옥정사
법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개품			
제신경하 (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 第十卷下)	제93호	고려후기 ~조선전기	기장군 일광면 성곡길 55
범어사 왕비전하수제연폐 (梵魚寺王妃殿下壽齊年牌)	제94호	조선후기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세자자지하수전주폐 (梵魚寺世子低下壽千秋牌)	제95호	조선후기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유제로(梵魚寺 翁製爐)	제96호	조선후기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청수관(梵魚寺 清水罐)	제97호	근대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기장 지장암 칠성도 (機張 地藏庵 七星圖)	제98호	1930년대	기장군 철마면 임기리 산 166~1 지장암
국립해양박물관 백지칠희운릉문호 (國立海洋博物館 白磁鐵畫雲龍文壺)	제99호	17세기 ~18세기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45 국립해양박물관
범어사 영탱(梵魚寺 影頌)	제100호	조선후기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현김당 묘진대사 진영 (梵魚寺 玄鑑堂 妙全大師 真影)	제101호	조선후기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석조(梵魚寺 石槽)	제102호	조선후기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연등사 석조지장보살좌상 (燃燈寺 石造地藏菩薩坐像)	제103호	조선후기	동구 좌천동로 17~3 연등사
범어사 나한전 석가모니불회도 (梵魚寺 羅漢殿 積迦牟尼佛會圖)	제104호	1905 (광무9)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나한전 십육나한도 (梵魚寺 羅漢殿 十六羅漢圖)	제105호	1905 (광무9)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팔상전 석가모니불회도 (梵魚寺 八相殿 積迦牟尼佛會圖)	제106호	1905 (광무9)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미륵사 불설대보부모은중경 (彌勒寺 說大報父母恩重經)	제107호	17세기	북구 백양대로 1016번길 71 미륵사
조행일록(潛行日錄)	제108호	1862~1863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45 국립해양박물관
죽천이(公行蹟錄) (竹泉李公行蹟錄)	제109호	17세기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45 국립해양박물관
청량사 예님미타도랑침법 권6~10 (淸涼寺 禮念彌陀道場懶法 卷六~十)	제110호	조선후기	기장군 철마면 임부길 12 청량사
고불사 권수정혜결사문 (古佛寺 勸修定慧結社文)	제111호	1608년 (선조41)	기장군 철마면 고촌로 28번길 77 고불사
회명사 묘법연화경 권1 (晦明寺 妙法蓮華經 卷一)	제112호	1568년 (선조1)	금정구 금샘로 17번 안길 41 회명사
박주부 초상 (朴主薄 肖像)	제113호	조선후기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45 국립해양박물관
현수제승법수 (賢首諸乘法數)	제114호	1500년	부산진구 가야공원로 110, 대원사
법어(法語)	제115호	1577년	해운대구 대천로 103번길 61
법집별행록절오법임사기 (法集別行錄節 오법임사기)	제116호	1486년	사상구 주례로 93



<1872년 지방지도 경상좌수영경지도형>

참 / 고 / 문 / 현

- 항도부산 제7호(부산시사편찬위원회, 1969)
부산시사 제1권(부산직할시사편찬위원회, 1989)
부산의 내력(부산직할시, 1989)
경상좌수영성지 학술조사보고서(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0)
남구지(부산광역시 남구, 1994)
수영 전통문화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1997)
부산지명총람 제6권(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00)
수영의 민속과 문화(부산광역시 수영구, 2005)
부산의 문화재(부산광역시, 2006)
그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등 관련자료

이 책은 수영구와 관련이 있는 자료를 별도로 발췌하여
수영구 문화관광과에서 재편집한 것입니다.

수영
역사
문화
탐방

2000年 12月 31日 初版 發行

2021年 11月 30日 改訂版 12차發行

발 행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편 집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051)610-4063, FAX.610-4069

인쇄 한글그라픽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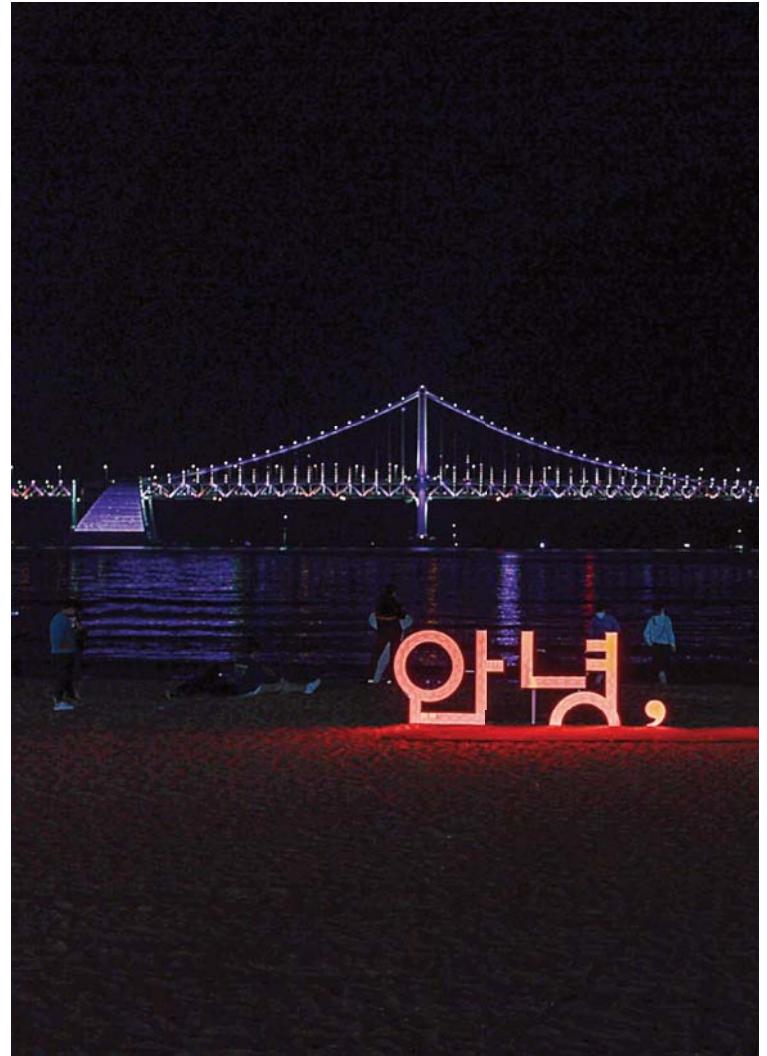
051)632-7842, FAX.639-03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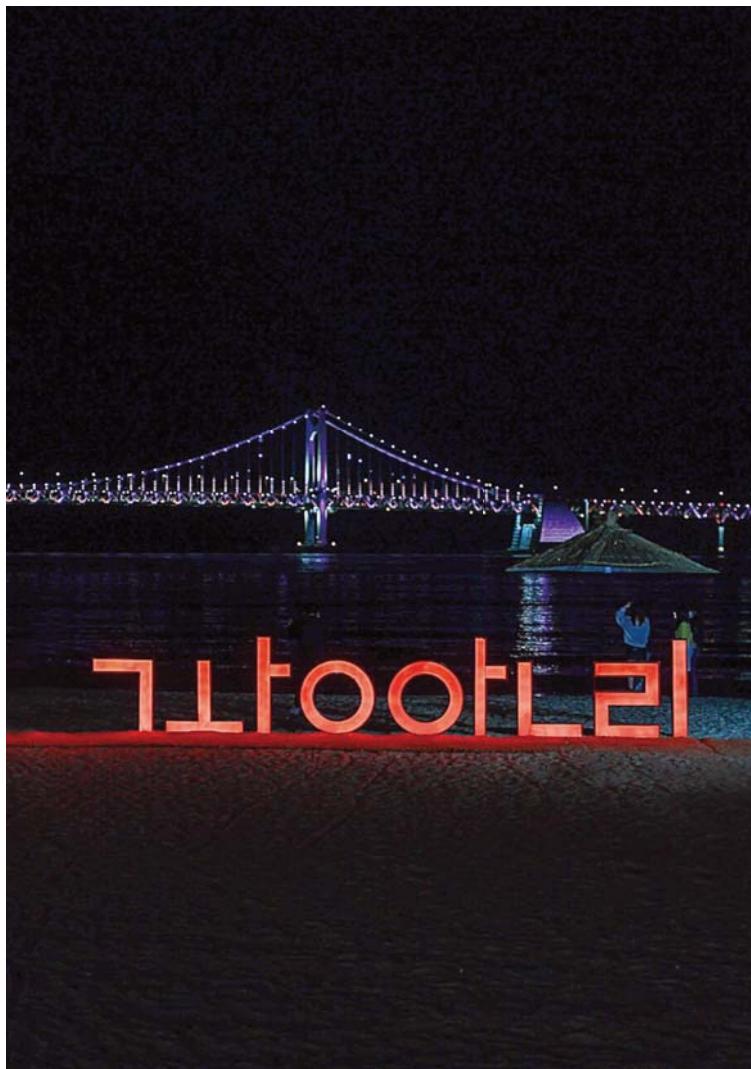
사진출처 수영성문화마을, 비짓부산 홈페이지.

수영구 SNS서포터즈 이재원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 26500-86100-37-0005

〈비매품〉





수영
역사
문화
탐방



수군에서 '수(水)'자와 절도사영에서 '영(營)'자를 따와서 수영이라 한 데서 동명이 생겨났다.

수영동은 1914년 4월 1일 동래군 남면 수영리에서 1942년 10월 1일 부산부 수영출장소 수영리, 1957년 1월 1일 부산시 동래구 수영출장소 수영동, 1973년 3월 10일 부산직할시 부산진구 대연출장소 수영동, 1975년 10월 1일 부산직할시 남구 수영동, 1995년 3월 1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이 되었다.

2) 마을 이름의 유래

○ 남수 : 수영동을 일제강점기에는 남수리(南壽里)라고도 했다.

○ 좌수영장 : 조선후기 부산지역의 5일장으로 동래읍내장, 좌수영장, 부산장, 독지장, 하단장이 있었다.

좌수영 앞에 열렸던 좌수영장은 1876년 이후 자료에는 5일과 10일장으로 되어있다. 현재의 수영말도시장의 전신으로 볼 수 있다.

다. 망미동(望美洞)

1) 역사

○ 망미동은 삼국시대에는 거칠산군이었는데 현재의 망미1동 부산지방병무청이 그 중심지였으며 성곽이 있었다고 한다. 이곳의 지명은 조선시대에는 동래부 남촌이었으나 한말에는 동래부 남상면으로 개칭되었으며, 일제에 병합된 후 동래군 남면으로 개칭되었다.



〈1950년대 수영강 주변〉

일제 때 망미동은 동래군 남면 남수리(南壽里)라 하고, 숭정리(崇亭里)는 망미리(望美里)라 했다. 망미리라 이름하게 된 유래는 고려시대 충신 정서(鄭徐)가 이곳에서(지금의 망미2동 수영강) 귀양살이를 하면서 초하루와 보름날에는 북쪽을 바라보며(望) 임금(美)을 향하여 절을 했다는 뜻에서 생겼다는 말도 있고, 망미동 망산(望山)의 망(望)자와 배미산(盃美山)의 미(美)자를 합쳐서 되었다는 말도 있다.

망미동은 1914년 4월 1일 동래군 남면 수영리에서 1942년 10월 1일 부산부 수영출장소 수영동, 1957년 1월 1일 부산시 동래구 수영출장소 수영동, 1973년 10월 1일 부산직할시 남구 수영동, 1979년 1월 1일 수영동에서 분리되어 망미동으로 독립, 1982년 9월 1일 망미1·2동으로 분동, 1995년 3월 1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망미1·2동이 되었다.

2) 마을 이름의 유래

○ 구락리(鷀樂里) : 망미2동의 수영강변에 옛날에는 흰 모래가 많았는데, 이곳에 흰 갈매기가 많이 날아와 놀고 있어서 그렇게 불렀다는 말도 있고, 이곳이 빨이었는데 황새들이 많이 날아와서 그렇다는 말도 있다.

○ 오옹건너 : 정서(鄭徐)가 정과정 모래톱에서 귀양살이를 할 때 건너편 해운대 쪽의 들녘에 참외와 오이를 가꾸며 지냈는데, 오이 할아버지가 건너다니던 곳이라 하여 이를 붙여졌다라는 말도 있고, 이곳에서 용두갑까지 정서를 나룻배로 건네준 노어부가 있었는데 성씨가 오씨였으며, 오옹이 나룻배로 건네주었다고 하여 이 나룻터를 오옹건너라고 불렀다는 말도 있다.

지금의 망미2동 4~7번지 일원으로 1985년도에 토향회(土鄉會)에서 화강암으로 된 시비를 세워 놓았다.

○ 조치막(調治幕) : 망미1동 815번지 자리를 말하는데, 옛날에 음식물을 조

리하던 장소여서 붙여진 이름이다. 조니골(調尼谷)이라고도 한다.

- 옥성골(鶴城谷) : 망미1동 445번지, 지금의 부산지방병무청의 북편인데, 옛날에 이곳에 옥사(獄舍)가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새양골(혹은 시양골) : 망미1동 537번지, 옛날에 이곳에 서당이 있었다고 서당골이라 한 것이 음이 변전하여 새양골 혹은 시양골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풋고개 : 배산의 동쪽에 있었던 고개로 지금의 연산동 망미 주공아파트 앞 길이 이에 해당된다.

풋고개의 이름은 배산 동쪽 기슭 입구 남쪽으로 향한 오목한 자리에 토곡마을이 있었다. 그 토곡으로 해서 '토곡고개'라 한것이 줄어들어 '풋고개'가 되고 '토고개'를 한자로 표현한 것이 '토현(土峴)'이 된 것이다.

라. 광안동(廣安洞)

1) 역사

- 광안동에 언제부터 마을이 형성되어 사람�이 살아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조선시대 후기에는 남문외리에 해당하는 곳이다. 8:15해방 전에는 수영로 윗쪽을 윗각단(윗뜸), 아래쪽을 아래각단(아래 뜰)이라 불렸고, 남천동쪽을 옛날부터 범의 형상을 한 바위가 있다고 하여 범바우(虎岩)라 불렸다.



〈1950년대 광안동 주변〉

광안(廣安)이란 명칭을 사용하게 된 것은 현재의 광안리 해수욕장인 남촌(南村) 앞 사장(沙場)을 남장(南場)이라 했는데, 그 남장에는 넓은(廣) 모래 언덕(岸)이 있어 广岸이라 썼다. 그 광안의 안(岸)을 덕명인 편안할 안(安)으로

고쳐 광안(廣安)이라 쓰고 있다.

광안동은 1740년(영조 16년) 동래부 남촌면 축산동에서 1903년(광무 7년) 동래부 남상면 광안리, 1910년 동래부 남면 광안리, 1942년 10월 1일 부산부 수영출장소 광안리, 1946년 10월 1일 부산부 수영출장소 광안동, 1957년 1월 1일 부산시 동래구 수영출장소 광안동, 1975년 10월 1일 부산직할시 남구 광안동, 광안 1·2동 분동, 1979년 8월 8일 광안 1동이 광안 1·3동으로 분동, 1982년 9월 1일 광안 2동이 2·4동으로 분동, 1995년 3월 1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안 1·2·3·4동이 되었다.

2) 마을 이름의 유래

- 범바위 : 광안 4동의 베네딕도 수녀원 근처에 범 모양의 바위가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 장대골 : 장대란 적의 침략을 살피는 군사시설의 하나였고, 조선시대 수영중학교 뒷편에 장대(將臺)가 있었다. 이곳에서 매년 10월 1일 좌수영 수사가 무사들의 무예를 시험했던 곳이라 한다.
- 어구정(蠻甿亭) : 현 광안동 842번지에 어구정이란 정자가 있었다. 이곳은 수영무사들의 궁술 훈련장이었다.
- 칠포영(溪浦營) : 지금의 광안리 해수욕장 부근에 임진왜란 직후에 수군이 주둔했던 칠포영이 있었는데, 무관 종4품의 만호를 수장으로 하는 만호영을 홍해에서 옮겨와서 광안리 일대의 바다를 방위토록 했다.

마. 민락동(民樂洞)

1) 역사

- 민락동에 언제부터 마을을 이루어 사람이 살아왔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으나 구전에 의하면 백산 북쪽의 '보리전(泡梨煎-泡伊鎮)'마을과 백산 남쪽의 '널구지(널꽃이-板串里)'마을은 약 300년 전부터 있어 왔다고 한다.

일제 때는 널구지 마을을 평민동(平民洞)이라 했고, 보리전 마을을 덕민동(德民洞)이라 했는데, 이 두 마을을 합쳐서 민락동이라 불렀다.

민락(民樂)은 여민동락(與民同樂), 여민해락(與民偕樂)의 준말로서 임금은 즐거움을 홀로 차지하지 않고 백성과 함께 즐긴다는 뜻이 있다. 마을 고로(古老)들에 의하면 민락동의 유래는 수영 수사(水使)가 수졸(水卒)을 훈령할 때 진산(鎮山-진조말산)에서 군악(軍樂)을 연주해서 그렇다고 하나 실상을 알기는 어렵다.

민락동은 8·15 해방 전까지만 해도 어업을 주업으로 하고 약간의 농사를 지으면서 조용하게 살아가던 50여 가구의 어촌이었으나, 1926년도에 시작된 중앙 부두 조성에 따라 중앙 부두 인근에 살던 주민들이 정책적으로 이곳에 옮겨와서 살게 되고, 1969년도에 완공된 신부산 구획정리사업으로 널구지에 56,100m²(17,000평) 규모의 부지를 조성하여 태창목재 주식회사가 설립되면서 민락동이 현대 산업사회로 변모하게 되었다.

민락동은 1740년(영조 16)에 동래부 남촌면 감포리에 소속되어 있다가 1914년 1월 1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평민동(널구지)과 덕민동(보리전)을 합하여 민락동이 되었고, 1936년 4월 1일 부산부 부산진출장소에 소속되었다가 1941년 3월 1일 동래군 용주면에 소속되었다.

1942년 10월 1일 부산부 수영출장소 민락리, 1957년 1월 1일 부산시 동래구 수영출장소 민락동, 1975년 10월 1일 부산직할시 남구 민락동, 1995년 3월 1일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이 되었다.



〈1950년대 민락동 본동〉

2) 마을 이름의 유래

○ 널구지 : 지금의 민락초등학교 동편 민락교 부근을 널구지라 했다. 널구지는 판곶(板串)이라고도 했는데 이는 주변이 평평하게 넓은 티끌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보리전 : 지금의 수영교 근방을 보리전이라 하며, 이곳이 조선시대 좌수영 산하의 포이진(包伊鎭)이 있던 곳이다. 보리전이라 부르게 된 데는 두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포이진의 음이 변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조선시대 좌수영 산하에 범법자가 곤장을 맞기 위하여 보리 양식을 매고 와서 기다리는 곳이었다는 데서 유래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 광기전(廣器塵) : 각종 그릇 종류와 목물류를 팔고 사는 시장이 형성되어 서 붙여진 이름이다.

○ 백산(白山) : 민락동의 주산으로 백산 꼭대기를 백자대(白紫臺)로 부르기도 했다. 백산이라 부르게 된 데는 몇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수영강의 안개가 이 산을 하얗게 덮고 있어서 붙여진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영교 부근이 옛날에는 갈대밭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학들이 날아와 백산에 놀곤해서 백학산(白鶴山), 백산이라 불렀다 한다.

또한 백산의 모습이 수영을 두고 바다를 향해 달아나는 사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 하여 수영아류(무형문화재 제43호)의 제4과장에서는 담비(범-호랑이)를 사자의 머이로 주며 달래고 있다.

○ 포이포(包伊浦) : 원래 울산의 장기에 있었던 수군영 이었으나 임진왜란을 겪고 나서 동래군 남촌(수영)으로 옮겨 왔는데, 지금의 수영교 근방이라 보고 있다.

○ 칠포리(漆浦里) : 원래 경북 흥해에 있던 '수군영'이었으나 임진왜란 후 부

산포로 옮겨 왔다가 다시 동래군 남촌면(수영)으로 이전하였다. 지금의 민락동 진조말산 서남쪽 부근으로 보고 있다.

○ 감포(甘浦) : 원래 경주에 있던 수군영이었으나 임진왜란 후 부산포로 옮겨 왔다가 다시 동래군 남촌면(수영)으로 옮겨 왔는데, 지금의 민락동 진조말산 동쪽 부근으로 보고 있다.

○ 진조암(眞潮岩) : 민락동 남단 진조말산에 있는 자연석 바위이다. 조선시대 그 해의 첫 어로작업이 시작 되던 날, 수영 수사(水使)가 이곳에 나와 의자처럼 생긴 바위에 앉아 어부와 수군들을 격려하였다고 하며, 이곳은 수영강과 바닷물이 합쳐지는 곳으로서 고기가 많이 잡힌 곳으로 유명하다.

○ 첨이대(覘夷臺) : 일명 '첨이대'라고 하며 조선시대 이곳 바다를 침략하는 왜구들을 살피는 망대가 있었던 곳이다. 수영강 하구의 진조말산 남단에 있다.



2. 수영의 인물

가. 박중질(朴仲質) : 고려말의 무관으로서 동래 현령을 하다가 나중에 수영 지역의 염장관(소금을 만드는 염장의 관리)이 되었다고 한다. 이성계가 역성혁명(易姓革命)을 일으켜, 최영장군이 죽음을 당하자 그의 막하 장수였던 박중질은 수영의 염부들을 선동해 반란을 일으켰다가 삼족이 멸하는 화를 입었다고 한다. 수영지역에 모셔진 최영장군 사당에 그의 넋이 함께 있다고 보고 기려왔다고 하나 정확한 문헌적 연구가 된 것은 아니다.

나. 박홍(朴泓, 1534-1593) : 조선시대의 무신으로 자(字)는 청원(淸原)이고 본관은 울산(蔚山)이며, 1556년(명종 11)에 무과에 급제하였다. 경상 좌수사로 와서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겁을 먹고 수영성을 버리고 혼자 도망을 갔던 관계로 역사에는 출장(出牆)으로 남아 있다.

다. 변봉금(卞鳳今, 1880-1958) : 일제 강점기(日帝強占期)에 독립운동에 이바지한 부부 항일투사(夫婦抗日鬪士)로서 그의 남편은 최상운(崔尙雲)이다. 변봉금은 부산진 좌천동에서 조선조말 부산첨사 밑에서 무장을 지낸 변광지(卞光之)의 셋째딸로 태어났다. 19세에 30세 노총각인 최상운과 결혼하여 서울(연지동), 만주, 부산 수영 등지에 살면서 독립운동을 지원했다. 수영에서는 당시 많은 독립투사들이 변봉금의 집에 피신해서 숨어 살고 있었다.

라. 안용복(安龍福) : 좌수영 수군의 능로군(노 젓는 병사)에 속해 있던 군졸로서 1693년(숙종 19)과 1696년(숙종 22) 두 차례에 걸쳐 우리나라 동해의 울릉도와 독도를 침략한 왜인들을 물이내고 일본으로 건너가 독도가 우리 땅임을 확약 받아온 사람이다. 후세 사람들에 의해 장군으로 봉해졌으며, 그의 충절을 기리는 사당이 수영동 수영사적공원 내에 있다.

마. 25의용(義勇) : 25의용이란 임진왜란 때 경상좌수사 박홍이 성을 버리고 도망쳐버리자 이 곳 수군과 성민 등 25인이 7년 동안 왜군과 맞서 싸운 항토의 의병결사대를 말하는데, 25의용의 넋을 모셔놓은 25의용 사당이 수영동 수영사적공원내에 있다.

▶ 25의용의 이름은 다음과 같다.

水營 25義勇 諸人 (無順)

김옥계(金玉戒), 정인강(鄭仁彊), 최승엽(崔松葉), 최수만(崔守萬),
박지수(朴枝樹), 김평령(金彭良), 박응복(朴應福), 심 님(沈 男),
이은준(李銀春), 정수원(鄭壽元), 박 림(朴 林), 신 복(辛 福),
이 수(李 壽), 이희복(李希福), 최한연(崔汗連), 최한손(崔汗孫),
최막내(崔莫乃), 최밀령(崔堯良), 김달명(金達亡), 김덕봉(金德奉),
이실정(李實貞), 김하농(金許弄), 주난금(朱難金), 김종수(金從守),
김진옥(金進玉)

바. 정서(鄭敍, 호는 과정 瓜亭) : 고려 의종(毅宗) 때 충신으로 익을하게 역모죄로 몰려 동래로 귀양을 와서 지금의 수영구 망미2동 4-7번지 인근의 수영강변에서 오이를 기르며 살았다. 그가 임금을 그리며 자은 유명한 가사인 정과정곡은 《악학궤범》에 실려 있다. 수영강변 정과정유적지에 그를 기리는 시비가 세워져 있다.



(정과정 시비)

내 남를 그리△와 우니다니
山(산) 접동새 난 이슷흐요이다.
아니시며 거즈르신 둘 아으
殘月曉星(잔월효성)이 아무시리이다.
넉시라도 남은 혼디 너찌라 아으
벼기더시니 뉘려시니잇가.
遇(과)도 허물도 千萬(천만) 업소이다.
ложения마리신더
술웃분더 아으.
니미 나를 향마 나즈시니잇가.
아소 남하 도람 드르샤 괴오쇼서.

(악학궤범 제5권에서)

사. 최한복(崔漢福 1895~1968) : 수영에서 태어나서 서울의 보성(普成)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하고 40년간을 초등학교 교사로서 향리의 후진들을 교육했다. 말년에는 고등공민학교를 몸소 세워 가난해서 중학교에 못 들어간 학생들을 모아 가르쳤다. 일제 침략기에는 우리 역사 발굴과 보존에 힘을 쏟아 25의용단 제향의 맥을 잊기 위하여 몸소 집례를 주관하여 야간에 제를 올리기도 했다. 해방 후에는 수영의 향토사 발굴에 힘을 쏟아 '수영야류'를 발굴 복원하고 수영 역사서인 '수영유사'를 직접 저술하여 후세에 수영지역의 문화재 발굴과 역사정리에 힘을 쏟기도 하였으며, '수영팔경'을 발굴하여 국문학지에 알리는 등 수영지방을 위해 노력한 진정한 향토 교육자이다.



제 3 편 수영사적공원과 문화재

1. 보물
2. 천연기념물
3. 유형문화재
4. 무형문화재
5. 기념물
6. 문화재자료
7. 기타유적
8. 명승지
9. 수영사적공원 및
좌수영성지 복원

수영 역사 문화 팀방

제 3 편 수영사적공원과 문화재

1. 보물

- 고려 십육나한도(제7 가리가존자) (高麗 十六羅漢圖(第七迦理迦尊者))
○ 지 정 : 보물 제1882-1호(2016.01.07.)
○ 소재지 : 부산 수영구(소유자 : 현승훈)
○ 내 용 : 이 나한도는 16나한도 중 제7 존자인
가리가존자를 표현한 것으로, 의자에 앉아 고요
하게 사색하는 이국적인 모습의 수행자를 수묵
담채로 담담하게 담아내었는데, 바위와 수목을
배경으로 하는 고려 오백나한도와 화연히 구분
되는 도상적 특징이다. 이 작품은 국토의 태평,
국왕의 장수 등을 발원하며 병신년에 그려진 것
인데, 필선과 색채, 표현방식 등에서 1235년에서 1236년 사이에 제작된
고려 나한도와 거의 같은 내용과 형식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의
제작시기인丙申年은 1236년으로, 다른 나한도와 마찬가지로 동량(棟梁)
김의인(金義仁) 등 무인들의 주도 하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불화가 제작될 당시는 몽고의 병란이 있었던 국가적 위기의 상황으로, 국
난 시 크게 베풀어졌던 나한 신앙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제작된 사례로
그 역사적 의의가 있다. 이 불화는 고려시대 제작된 나한도와 16나한도
중 몇 안 되는 작품 중 하나이며, 16나한도로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제15
아벨다존자와 이 작품이 유일하다. 현존하는 고려불화 중 13세기에 제작
된 불화는 매우 드물고 특히 16나한도는 그 예가 거의 없어, 이 작품은 고
려시대 16나한 신앙을 보여주는 중요한 예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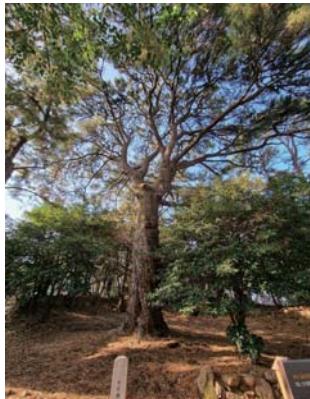


〈고려 십육나한도〉

2. 천연기념물

가. 부산좌수영성지 곱솔

- 지 정 : 천연기념물 제270호(1982. 11. 9)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성로 43(수영사적공원 내)
- 내 용 : 수영사적공원 입구인 수영성 남문에서 10m 떨어진 곳의 보호침책 울타리 안에 있으며, 수령(나무나이)이 약 400년 이상된 해송종류의 오래된 나무로서, 좌수영성 수군(水軍)의 군신목(軍神木)이다. 나무의 높이는 27m, 나무 둘레는 4.5m, 수관의 폭은 23.5m 정도이다. 옛날 좌수영이 이곳에 진영을 갖추어 군선을 제조할 때면 이 나무에 목신(木神)이 있어 제조한 군선을 보호한다고 믿어 이 나무에 군사들이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부산좌수영성지 곰솔〉

나. 부산좌수영성지 푸조나무

- 지 정 : 천연기념물 제311호(1982. 11. 9)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성로 43(수영사적공원 내)
- 내 용 : 수영사적공원 남문에서 서쪽으로 약 50m정도 떨어진 보호철책 울타리안에 있으며, 수령(나무나이)이 약 500년 이상된 느릅나무과의 오래된 나무로서, 마을의 안녕을 지켜주는 지신목(地神木)이다. 나무의 높이는 17.2m, 수관의 폭은 24m 정도이다. 푸조나무에서 40m 떨어진 자리에 임진왜란 이전에 세워진 것으로 전해지는 수영고당(송씨합배당)이 있어 해마다 정월보름이면 한해의 무사안녕을 비는 마을제사를 지낸 후 수영아류를 연회했다고 한다. 이 푸조나무에는 송씨합배의 낚이 깃들어 있어 나무에서 떨어져도 다치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좌수영성지 푸조나무〉

3. 유형문화재

가. 수영성 남문(水營城 南門)

- 지 정 :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17호(1972.6.26)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성로 43(수영사적공원 내)
- 내 용 : 조선시대 경상좌수영성(京商左水營城)의 주문인 남문으로서 현재는 수영사적공원 입구에 보존되어 있다. 성문의 육축과 누각은 없어지고 홍예(아치형문)만 남아 보존되고 있다. 그 양측에 돌로 새겨진 박견(狛犬)이 석주(石柱) 위에 놓여져 있다. 이 남문은 원래 수영동 286-1번지의 좌수영성의 남문으로 있었으나, 한때 수영팔도시장 인근에 있었던 수영초등학교쪽으로 옮겨져 교문으로 이용하다가 현재의 수영사적공원 동쪽 입구로 다시 옮겨졌다.



〈수영성 남문〉

나. 자수책거리병풍(刺繡冊巨里屏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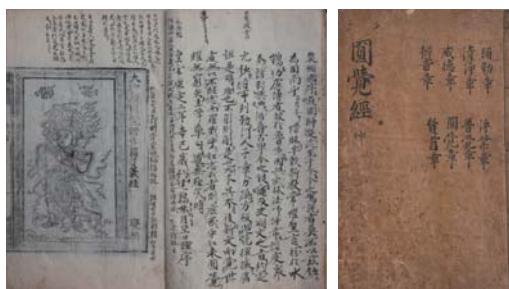
- 지 정 : 부산광역시 유형문화재 제74호(2006.11.25)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황령산로 15번길 12
- 내 용 : 작품연대는 19세기(조선시대말기) 중반 이후에 제작된 8폭 병풍으로 기물들의 묘사가 아주 세밀하고 사실적이며 형태가 정확하고 반듯할 뿐 아니라, 명암법·투시도법이 적용되었고, 색채도 강렬한 원색보다 고이하고 은은한 톤이 주조를 이루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수준 높은 도화서 화원이 밀그림을 그리고 궁중의 수방(繡房)에서 궁수(宮繡)를 놓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묘사된 내용으로 보아 홍문관, 독서당, 규장각 등 궁궐의 입직소에서 사용하였거나 내사품으로 양반의 사랑재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여겨지며 현재는 부산대학교박물관에서 위탁관리중이다.



〈자수책거리병풍〉

다. 황련사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黃蓮寺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 지 정 : 부산광역시지정 유형문화재 제127호 지정(2013.5.8.)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97번 나길 25 황련사
- 수 량 : 6권2책(목판본)
- 관리단체 : 황련사
- 내 용 :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은 출여서『대방광원각경』,『원각수다라요의경』,『원각요의경』,『원각경』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체 중생의 본래성불(本來成佛)을 드러내는 '원각(원만한 깨달음)'을 설명하는데 있어 가장 뛰어난 경전이라는 뜻이 된다.
- 황련사 소장『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은 목판본으로 1588년(선조 21) 청도 운문사서 개판한 것이다. 6권 2책의 원본으로 책1에는 변상도(變相圖), 서(序), 권1~4, 시주질이, 책2에는 권5, 6과 시주질이 각각 수록되어 있다. 황지홍사(黃紙紅絲)에 오침안정법(五針眼訂法)의 선장(綱裝)으로 장장되어 있으며, 보존상태는 매우 양호하다.



이 책은 임진왜란 이전 판본으로 드물게 변상도가 있는 판본인데, 지금 까지 알려진 24종의 판종 중 변상도가 있는 판본은 황련사 소장 판본과 훨씬 후대인 1861년(철종 1)의 전봉사본(乾鳳寺本), 그리고 1883년(고종 20)의 봉인사본(奉印寺本) 뿐이다.

칠곡 송림사에 소장되어 있는 동일한 판본이 복장 전적 일괄 유물로 경상북도지정 유형문화재 제366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그 경판이 아직도 운문사에 장판되어 있다. 간행에 관련한 기록도 풍부하여 조선 전기 불교 판본 연구에 소중한 자료이다.

라. 황련사 몽산화상 육도보설(황련사 蒙山和尚 六道普說)

- 지 정 : 부산광역시지정 유형문화재 제179호(2017. 5. 24.)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97번나길 25
- 형 태 : 목판본(책자)
- 관리단체 : 황련사
- 내 용 : 「몽산화상 육도보설(蒙山和尚 六道普說)」은 중국 원나라의 임제종 승려인 몽산덕이(蒙山德異)가 승속(僧俗)이 모여 화엄경(華嚴經) 간송법회를 가진 뒤 그 공덕(功德)을 회향하기 위해 실행된 무차대회(無遮大會)에서 법회에 참여한 대중들을 위해 설해진 것이다. 그 내용은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입장에서 중생이 업에 따라 윤회하는 여섯 가지 길인 육도(六道), 즉 지옥도(地獄道) · 아귀도(餓鬼道) · 축생도(畜生道) · 악수라도(阿修羅道) · 인간도(人間道) · 천상도(天上道) · 성문(聲聞) · 연각(緣覺) · 보살(菩薩) · 불(佛)의 사성(四聖) 등 십계(十界)를 학인들에게 설법한 책이다.

이 「육도보설」은 현재 중국에서는 보이지 않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만 현전하고 있다. 몽산의 「육도보설」에서 보설(普說)은 선종사원에서 집단의

협력,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동원과 교화의 수단인 보청(普請)이 발전한 것으로, 대중을 모아놓고 설법한 내용을 모은 형태이다. 이러한 보설은 불경을 근거로 들어 현실을 선사상(禪思想)에 연결시키고자 하는 현실성이 담겨있다. 법어(法語)가 높은 수준의 고승에게 설법한 이론을 담은 저술이라면, 보설은 승속을 포함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성, 보편성을 지닌다. 개인적, 소규모적이었던 선종이 불교계를 주도해 나감에 따라 대중과 사원의 규모가 커지고, 이에 따라 남송에서는 선종 임제종 양기파의 묵조선(默照禪)보다 간화선(看話禪)이 풍미하게 된다. 보설은 바로 이 간화선 풍미화의 결과로 당시의 불교계를 주도한 선종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부산 수영구 황련사 소장 「몽산화상육도보설」은 1539년(중종 34) 경상도 안동 하가산(下柯山) 광흥사(廣興寺)에서 간행된 13자본계의 목판본이다. 「몽산화상육도보설」은 고려 말 이후 현재까지 한국불교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온 蒙山德異의 저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간행시기가 임진왜란 이전으로 현존하는 전래본이 많지 않고 보존상태도 양호하다.



4. 무형문화재

가. 수영야류(水營野遊)

- 지 정 : 국가무형문화재 제43호(1971. 2. 24)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성로 43(수영사적공원 내)
- 내 용 : 수영야류는 약 250여년 전부터 수영지역에 연희되어 오던 들놀음으로서 초기 범마리 장터(현 경남 합천군 덕곡면 율지리)에서 전해져 왔다고 한다.

수영지역의 서민들이 타락한 양반계층을 희롱하던 이 텔놀음은 준비과정과 길놀이와 군무, 탈놀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반과장, 영노과장, 할미·영감과장, 사자무과장 등 4과장으로 연희된다. 정월 대보름날 저녁에 마을사람 전체가 모여 함께 즐기던 마을축제의 한 형태이다.

현재는 수영동 수영사적공원내에 있는 수영민속예술관에서 전수 보존되고 있으며, (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가 관리하고 있다.



〈수영야류〉

나. 좌수영어방놀이(左水營漁坊놀이)

- 지 정 : 국가무형문화재 제62호(1978. 4. 1)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성로 43(수영사적공원 내)
 - 내 용 : 좌수영(左水營)은 경상좌도수군절도사영(慶尙左道水軍節度使營)의 준말로 수영(水營)이란 지명이 여기서 유래 하였다. 수영은 연안 어업이 성하여 어업 협업체로 어방(漁坊)이 형성되었다. 어방놀이는 이 어방을 중심으로 멸치잡이와 고기잡이 교육을 하던 것을 현대에 맞게 재구성한 놀이이다. 후릿그물을 만들면서 부르던 내왕소리, 바다에 쳐놓은 그물을 끌어 당기면서 부르던 사리소리, 잡은고기를 퍼내어 소가래로 운반하며 부르던 가래소리, 모든 작업을 마치고 풍어를 자축하며 부르던 칭창소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영만 일원에서 멸치잡이 할 때 부르던 노래가 불려지며 매년 여름 해수욕장이면 광안리 해수욕장에서 재현되고 있다.
- 현재는 수영동 수영사적공원 내에 있는 수영민속예술관에서 전수 보존되고 있으며 (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가 관리하고 있다.



〈좌수영어방놀이〉

다. 수영농청놀이(水營農廳놀이)

- 지 정 :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호(1972.2.18)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성로 43(수영사적공원 내)
 - 내 용 : 수영은 조선시대 경상좌도수군절도사영(慶尙左道水軍節度使營)이 있었던 곳으로서 수영성 남·북문 주변에는 농업이 발달해 있었다. 따라서 이 지역에는 농사 협업체인 농청이 형성되어 1960년대까지 남아 있었다.
- 농청은 성인 남녀로서 구성되는데, 현재에 재현되고 있는 농청놀이는 한 해의 농삿일을 현대에 맞게 재구성한 것으로서 모심기 노래 등 벼농사와 관련된 농요가 함께 불리진다. 모찌기노래, 모심기노래, 김매기노래, 보리타작소리 등이 있다. 수영동 수영사적공원 내 수영민속예술관에서 전수되고 있으며 (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수영농청놀이〉

라. 수영지신밟기

- 지 정 :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2호(2014.1.1.)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성로 48(수영사적공원 내)
- 내 용 : 수영지신밟기는 250여 년 전부터 수영동 일원에서 정초에 가가 호호를 둘며 마을의 태평과 주민들의 제액초복을 벌어 주던 의례이자 정월 대보름날 행해지는 수영 아류의 경비조달을 위한 사전 준비과정의 성격을 가진 민속놀이이다.

참여 인원은 약사 30명, 잡색 21명이며, 당산풀이, 우물풀이, 인사굿, 마당밟기, 성주풀이, 조왕풀이, 장독풀이, 곡간풀이, 정낭풀이, 삽짜풀이, 편놀이, 기소각제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락은 단아하면서도 깊이가 있으며, 소리도 타 지역에 비해 시김새가 적어 끗끗한 경상도 메나리조의 소리 길을 확인하게 드러내는 특징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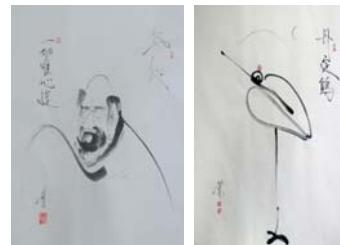
현재는 수영동 수영사적공원 내에 있는 수영민속예술관에서 전수보존되고 있으며 (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수영지신밟기〉

마. 선화(禪畫)

- 지 정 :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9호 (2013.5.8.)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521번길 63 부산전통예술관
- 내 용 : 선화는 승려의 선 수행(禪修行)의 과정이자 결과로 화법이나 서법의 구애를 받지 않는 자유로운 경지의 형상화 한 한국 선(禪) 불교의 유산이다. 1970년대 중반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하여 현재는 회화의 특별한 장르로 정착되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 선 미술(禪美術)이란 선이 체득되어진 자의 미술품이어야 하므로 선 수행자가 있는 곳에서는 선 문화(禪文化)내지 선 미술은 형성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선화는 선의 결과물인 동시에 선화제작에 몰두하는 것 역시 선에 대한 하나의 방편으로 인식되고 있다.
- 선화 보유자로는 박만식(法明成覺)이 있으며 현재 부산전통예술관에서 활동 중에 있으며, 선화제작 과정에서 참선과 수행을 통한 선승으로서의 자질이 선화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는 점이 높이 평가되며, 선을 통한 운필 능력이 일정한 경지를 넘어 자유자재로 구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작품의 미적 완성도도 높다라고 할 수 있다.



5. 기념물

가. 좌수영성지(左水營城址)

- 지 정 : 부산광역시 기념물 제8호(1972.6.26)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일원
- 내 용 : 원래 경상좌수영은 동래 부산포에 있었으나 세조때(1459년) 울산 개운포(開雲浦)로 옮겼다가 다시 임진왜란 직전에 동래 남촌(수영동)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그 연대는 확실하지 않다.

1636년(인조 13) 사천(絲川, 수영천)의 홍수로 선창의 수로가 매몰되어 벗길이 통하지 않아 다시 갑만이포로 옮겼으나, 갑만이포는 왜관과 가까워 군사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있다 하여 1652년(효종 3)에 또 다시 옛 터인 수영으로 옮겨 1894년(고종 31) 군제개혁으로 수영이 폐지되기까지 243년간 현재의 위치에 있었다.

경상좌수영에는 무관 정3품의 경상좌도수군절도사(약칭 경상좌수사)가 주재하고 그 관하에는 1개의 첨사영(僉使營)이 있었으며, 경상좌도의 바다를 방어하는 총 책임을 맡고 있었다.



〈조선시대 일종의 해군기지인 좌수영(左水營)이 1895년 갑오개혁으로 폐지될 즈음 찍은 것으로 보이는 좌수사(左水使)와 그 관리들〉



〈좌수영성지〉

현존하는 좌수영성이 언제 처음 축조 되었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임진왜란을 계기로 폐허화되고 그 후 1652년 김만이포에서 남촌 구기로 다시 이건(移建)되면서 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좌수영은 石城으로, 규모는 둘레 1,193보, 9,190여척, 높이는 13~16척 정도이고, 옹성이 3곳, 치성이 6~7곳이며 여장(女牆)은 375~3840이며 4대문이 있었다.

동문을 영일문(迎日門), 서문을 호소문(虎嘯門), 남문을 주작문(朱雀門), 북문을 공진문(拱辰門)이라 하였고, 이들 성문에는 각기 문루가 있었다.



〈1998년 발굴당시 수영성 서문지 치성 주변 모습〉

성문은 일정한 시각에 폐문루(閉門樓)와 관해루(觀海樓)에 달아 둔 북을 울리는 것을 신호로 열고 닫았다.

좌수영성 축성공사에 동원된 인력 현황은 알 수 없으나, 현재 남아 있는 성돌에 언양, 양산 등의 지명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 부산 인근 각지의 백성을 동원하여 성을 쌓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아랫부분의 큰 성곽들을 보면 견고한 성이었음을 알 수 있으며, 동시에 축성 공사가 얼마나 고된 노역이었던가를 짐작할 수 있다. 성문 중 남문의 규모가 가장 크고, 동문·서문·북문은 각각 2층으로 되어 있었으며, 성내에는 4곳에 수문이 설치되어 있었다.(수영성의 총 길이는 1,480m)

현재 좌수영성지는 도시화 과정에서 허물어지고 없으며 수영성의 주산인 수영사적공원 인근의 620m 정도만 남아 있다.

나. 25의용단(二十五義勇壇)

- 지 정 :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기념물 제12호(1972.6.26)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성로 43(수영사적공원 내)
- 내 용 :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경상좌수사 박홍은 왜적과 항전도 하지 않



고 수영성을 벼리고 도망을 쳤다. 수영에 침입한 왜군이 이곳에 주둔하며 부녀자와 주민을 약탈, 살륙하자 이를 보다 못한 성민이 죽기를 각오하고 7년 동안 유격전을 펼쳐 적에 대항하였다. 이를 기리기 위하여 1609년(광해군 원년) 동래부사 이안눌이 확인이 되는 25분의 의용을 찾아내어 그들의 후손에게 군역을 면해주고 집집마다 '의용'이란 풋말을 붙여 충절을 기렸다.

그후 1853년(철종 4) 경상좌수사 장인식이 수영사적공원에 비를 세우고 의용단이라 이름하였다.

매년 춘추(음력 3, 9월) 2회씩 추모 제행(향사)을 지내오다 2006년부터는 음력 9월 말정일(未丁日) 추계에만 1회 지내고 있다.

○ 25의용단 사당건립 및 정화 : 기존의 의용단은 지형적으로 저습지로 배수가 원활하지 못해 잔디 등 수목 생육이 어렵고 임진란 이후 400여년 동안 사당도 없이 의용 제인비가 노천에 설치되어 우천시 재향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지역민의 정신적 뿌리인 의용의 충의 정신이 서려있는 제단이 행



〈25의용 제인비〉

적에 비하여 시설이 너무 왜소하여 후손된 도리에 맞지 않다 하여, 수영구 개청과 더불어 수영구청과 수영지역의 원로가 중심이 되어 지역주민의 간절한 염원인 사당건립 및 정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사업구모는 사당 1동(56.1m²), 관리사 1동(19.8m²), 내삼문(17.8m²), 외삼문(10.9m²), 담장 1동(56.1m²), 관리사 앞 주차장 설치, 조경사업 등으로 1999년 9월 기초 사업 계획을 출발점으로, 수영지역 원로 등과 함께 사업 설명회 등을 거쳐, 2000년 3월 3일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00년 5월 10일 공사를 착공하여 2000년 12월 4일자로 사당문안 선정 자문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25의용단 사당 현판 문안을 선정하고 2001년 2월2일 준공하였다.

본당인 사당(祠堂)문안은 목숨을 버려 나라를 지킨 25의용의 위패를 모시는 곳 이라는 뜻의 '의용사(義勇祠)', 내삼문(內三門)은 길이길이 품어 오래도록 잊지 않는다는 뜻의 '영회문(永懷門)', 외삼문(外三門)은 성심(誠心)을 간직한다는 뜻의 '존성문(存誠門)', 관리사(管理舍)는 25사당 관리 및 향사봉행시 제실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사당(典祀堂)'으로 하였다.

○ 향사 유래 과정

- 1609년(광해군 원년) 동래부사『이안눌』이 25인의 사적(事績)을 채빙하여 정방록에 계재, 대상자 집집마다 의용지정 부착
- 1853년(철종 4) 경상좌수사 장인식이 수영공원에 의용단비와 제실을 세우고 춘추 2회 제향을 지냄(제주:좌수사)
- 1895년 갑오년 군제개혁으로 좌수영이 폐지되자 지방민이 제향(제주: 수영면장)
-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 면장이 부임하자 공식적으로 제사를 지내지 못하고 지역민들이 숭모계를 조직하여 야간을 틈타 제실 등에 위폐를 모셔놓고

제향을 올립(제주:수영기로회)

- 1974년 9월 10일~12월 9일 부산시에서 우풍에 낡은 비석단 3개소에 의용 제인비 25기를 건립하고 외삼문 1동과 한식답장을 설치하여 새롭게 단장하였다.
- 1977년부터 (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와 수영향우회에서 주제하고 있다.

다. 정과정 유적지(鄭瓜亭 遺蹟址)

○ 지 정 :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 기념물 제54호(2003.5.2)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맹미2동 17번지 일원(3,129.11m²)

○ 내 용 : 고려시대 문신인 정서가 유배생활을 할 때 정자를 짓고 오이밭을 일구며 임금을 그리워하는 고려가요인 정과정곡을 지은 곳으로 '동국여지승람', '동래부지' 등에 의하면 과정(瓜亭)은 "동래부 남쪽 10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자는 없으나 그 터는 남아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특히 정과정 유적지는 우리말로 적혀 전하는 고려가요 가운데 유일하게 작지를 알 수 있는 작품으로 우리나라 가사문학 연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



(정과정 유적지)

을뿐 아니라 '충신연주지사' 및 '유배문학의 원류'라 할 수 있는『정과정곡』을 자은 곳이라는 점에서 문학사적, 역사적 가치가 매우 중요한 문화유적 자라 할 수 있다.

부산시에서는 2003년 부산정보 지방산업단지 지원도로 개설공사와 연계하여 정과정유적지 조성계획을 수립, 기존의 정과정비와 자연석(경암)을 공원내로 이전하고 팔각정과 놀이마당, 벤치 등을 설치하여 문화재보호와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 2007년 12월에 완공하였다.

6. 문화재자료

□ 옥련선원 마애지장보살좌상(磨崖地藏菩薩坐像)

○ 지 정 :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자료 제7호(2001. 5. 16)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광남로257번길 58

○ 내 용 : 지금의 옥련선원(전통사찰 지정 제28호/98년 10월 17일) 옛 자리에는 삼국시대(三國時代)부터 백산사(白山寺)가 있었다. 이 마애불(磨崖佛)은 그 때 조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 불상(佛像)은 미륵불(彌勒佛)의 좌상이다.

조각 수법은 선각(線刻)으로 섬세하고 정직

했으나 지금은 마멸이 심해서 그 원형을 찾

아보기 힘들다. 어느 때에 벼락이 쳐서 돌이

거꾸로 누워 현재 위치로 놓이게 되었다. 원

래 이 도량은 미륵부처님의 용화세계(龍華

世界)를 지향하는 사찰로서 옛부터 호국의

원찰로 유명했다.



(소재지 : 민락동 327-2번지)

7. 기타 유적

가. 안용복장군 사당

안용복장군은 조선시대 독도 및 동해안 수호의 대표적 인물로, 1967년 수영공원 산정에 안용복장군 기념사업회에서 충혼탑을 건립하여 기려오던 것을 장군의 업적에 비하여 충혼탑의 왜소함을 안타까이 여겨, 수영사적공원 정비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2000년 5월 10일 실시설계 용역을 거쳐 2000년 7월 31일 착공, 2001년 3월 27일에 준공하였다.

수영공원 남단에 총 경액 337m²(102평) 규모로 사당1동(30.2m²)을 짓고 현상공모를 통하여 동상1기를 설치하였으며, 기존의 충혼탑을 이전하였다. 또한 2013년 3월 관리사를 건축하여 효율적으로 수강사를 관리하고 있고, 외벽에 독도실시간영상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안용복장군 기념사업회에서는 사당 현판을, 독도를 지켰다는 뜻의 '수강사(守疆祠)'로 정하고 매년 4월 18일 연례제향을 올리고 있다.



(안용복장군 사당, 동상)

나. 독신묘(蠶神廟)와 수영산신당(水營山神堂)

- 소재지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동 363(수영사적공원 내)
- 내용 : 기존 '송씨할매당(수영 고당), 조씨할매당'으로 불려온 수영사적 공원 내 2개동의 노후사당 중, 송씨할매당(수영 고당) 건립은 400여 년 전으로 추측되며 1981년 5월 11일 애향인 김기배씨에 의해 재건립되어 수영향우회에서 관리하여 왔고, 조씨할매당은 1922년 3월 18일 건립되어 수영기로회에서 관리하여 왔는데, 종래 조선시대 경상좌수영 군대의 출정 깃발을 모시고 마을 주민들의 안정을 기원하였던 '독신묘'를 독립된 하나의 당으로 건립하고 마을주민의 당집으로서 기능하였던'기존의 송씨할매당과 조씨할매당'은 당제를 같이 모심에 따라 독립된 하나의 신당으로 건립하니 합당하다라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2017년 9월 초에 철거를 시작하여 2018년 2월에 정비를 완료하였다. 그리하여 아래 그림의 우측 건축물을 '독신묘(蠶神廟 / 廟 : 사당 묘)'라고 하고 좌측 건축물을 '수영산신당(水營山神堂)'이라 정하였다.



〈독신묘 및 수영산신당〉

기존 송씨할매당(수영고당)과 조씨할매당에 대한 제의는, 전자에 대하여 수영향우회에서 2006년부터 정월 대보름날 제를 지내고 있으며 후자에 대하여는 수영기로회에서 정월 열나흘날 자정에 당산제를 지내았으나, 노후 사당의 정비가 완료되어 관련 단체인 수영향우회에서 매년 정월대보름에 두 사당(독신묘와 수영산신당)의 제의를 합동하여 지내고 있다.

다. 최영장군사당(무민사, 武愍祠)

- 소재지 : 옛 수영성의 동문밖 원편의 큰바위 앞에 위치
(수영성로3번길 16 소재)

- 내용 : 옛날 최영장군이 왜구를 격퇴하던 장소라 하여 매년 음력 정월보름 새벽에 애향인 태덕수씨가 제를 지내오다 2006년부터 수영향우회에서 음력 3월 3일 제를 지내고 있다. 사당 뒤에는 선서바위라 하여 임진왜란 때 향도 의병결사대인 25의용이 왜구와 싸워 죽기를 다짐한 큰 바위가 있다. 원래 이 자리는 강신무녀가 최영장군 영정을 모시고 살던 오두막집이었는데 건물이 노후되어 혈고 1973년 건립하였으나 훼손되어 2005년 5월(규모 7m²) 목조·기와 팔작지붕으로 재건립하였다.



〈최영장군 사당〉

라. 장대골 순교지

종교 유적지인 수영장대골은 조선 고종 때 천주교인들이 순교당한 순교지이다.

박근기 사건으로 체포되어 수영장대에서 1868년 음력 8월 4일 군문효수를 당한 전교회장 이정식, 그의 아들 이관복, 며느리 박소사, 조카 이삼근 · 이월주 · 양재현 · 옥소사 · 차장득 등 8명이 순교하였다.

이들은 1977년 7월 17일 광안 본당 베드로 신부에 의해 발굴되었는데 장대석 8개, 기와 조각, 동전 등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의 유해는 현재 오륜대(부산 금정구 부곡동 산 15-1번지)에 있으며 기념비는 1988년 9월 30일 광안 천주교회에서 설립하였다.



(장대골 순교비)

마. 동래 고읍성(古邑城)터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동래현의 고적조에 고읍성이 나오는데 그 설명으로 “해운포에 있다. 동남은 석축이고 서북은 토축으로 둘레가 4,430척(1,330m)인데 지금은 허물어졌다”고 하였다. 《동래부지》 성곽조에 서는 고읍성을 “해운포의 수영 서쪽에 있다”고 하였다.

현재 동래구에 동래읍이 형성되기 이전에 망미동에 동래읍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부산지방병무청의 인접지역으로 추정되며 해당 부지(망미동 640-7번지 일원)의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매장문화재 시굴조사가 시행되어 통일신라 시대 후기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토성 등이 발굴되었다.



<동래 고읍성>

그리하여 2007년 유적지 보호를 위해 망미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옛 유적과 동일한 형태로 보존하기로 하였다.

바. 수사선정비

《동래영지》의 기록을 보면 조선시대 경상좌수영의 수사로 역임한 분이 임진년(1592년)에서 경술년(1850년)까지 258년간 188명으로 되어 있다. 현재의 수사비는 수영성 남문주변에 흩어져 있던 것을 연대순으로 한자리에 세웠다. 수사선정비는 33기(수사 32기, 우후 1기)로서 연대는 조선 인조 17년(1639)부터 고종27년(1890) 사이에 수군절도사와 부관인 우후의 재임 중 공덕을 칭송하는 비이다.



<수사선정비>

사. 박인로 가사비(朴仁老 歌辭碑)

노계 박인로의 정신을 후세에 기리고자 토향회(土鄉會)에서 민락동 진조 말산 무궁화동산(민락동 110-13번지)에 가사비를 2002년 4월 6일 건립하였다. 가사비 전면에는 1598(선조31년)년 정유재란 당시 왜군의 침입과 병사들의 활약·승전·개선을 읊은 『태평사(太平詞)』 내용이 수록되어 있고, 후면에는 박인로 가사비 전립 취지문이 기록되어 있다.



〈박인로가사비〉

아. 임진왜란좌수영무주망령천도비(壬辰倭亂左水營無主亡靈薦度碑)

임진왜란때 당시 좌수영 수사였던 박홍(朴鴻)은 군영을 이탈하여 도망갔으나 25의용을 비롯한 수영강변 토민들은 고향을 지키기 위하여 결사대를 조직하여 왜적에 대항하다 죽어갔다. 전란이 끝난지 400여년이 지난 오늘 날 그들의 억울함을 달래주고 무주(無主)의 망령(亡靈)이 된 그들의 한을 풀어주려고 1999년 8월 25일 토향회에서 백산 높은 양지 바른 곳에 이 비를 건립하였다. 옥련선원(민락동 327-2) 입구에서 50m거리에 위치한다.

※ 천도(薦度) : 죽은 사람의 넋을 극락으로 인도하는 일



〈무주망령천도비〉

자. 최한복 기념비(崔韓福 記念碑)

최한복(1895~1968)은 수영출신으로 수영을 사랑하며 한결같이 교육자로서 애국자의 길을 걸어 오시면서 민족정신과 고향사랑하기 교육에 헌신해 오셨다. 일제 침략기에는 우리 역사 발굴과 보존에 힘을 쏟아 야간에 25의용단 제향을 주관하였고 해방 후에는 수영의 향토사 발굴에 힘써 수영아류를 발굴 복원하고 수영의 역사서인 수영유사를 직접 저술하여 수영



〈최한복 기념비〉

지역의 문화재 발굴과 역사를 정리하여 후세에 전하게 되었다. 특히 수영 팔경을 발굴하여 수영의 아름다움을 전한 진정한 향토 교육자로서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2004년 11월 20일 토향회에서 수영사적공원 25의 8단 좌측 뒤편에 기념비를 세웠다. 기념비 전면에는 수영팔경의 서사를 새겼고, 후면에는 수영팔경사비 건립 취지문을 새겼다.

차. 수영성(水營城) 남문(南門)터

수영성 남문은 조선시대 경상좌도수군절도사영의 주문으로서 1972. 6. 26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17호로 지정 현재는 성문의 육축과 누각은 없어지고 홍예(아치형문)만 남아 있고 그 양측에 돌로 세워진 박전(舶殿)이 석축위에 놓여져 있으며 원래 수영동 286-1번지에 있었으나 수영사적공원 인근에 있었던 수영초등학교로 옮겨져 교문으로 이용하다가 1962년 학교가 이전하면서 현재의 수영구민의 향토정서와 역사적 정체성을 고취하고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옛 수영성 남문 위치에서 10m정도 떨어진 수영동 297번지 도로위에 2002년 9월 건립하였다.



〈수영성 남문터〉

카. 수영성(水營城) 장대(將臺)터

장대는 군사를 지휘할수 있도록 높은 곳에 설치된 대를 말하며 좌수영이 있었을때 수군이 무술을 닦는 곳으로서 무술시험을 했던 곳이기도 하다. 이 무술시험은 매년 10월 1일에 행해졌는데 시험에 합격하면 수사(水使)가 수군의 긴부가 될 수 있는 사령장이 주어졌다. 또한 이 장대에는 적의 침략을 살피는 망루가 설치되어 있어 광안리 앞바다에 침입해 오는 적선을 관측하고 지휘하는 척후소이며 지휘소였다. 또한 조선 고종때 천주교인들이 순교한 순교지이기도 하다. 현재의 위치는 수영중학교 뒤편 광안4동 547번지 일원으로 수영성 장대 표석은 수영구민의 향토정서와 역사적 정체성을 고취하고 우리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광안4동 산33-3번지 체육공원내에 2003년 12월 건립하였다.



〈수영성 장대터〉

타. 좌수영(左水營) 선소(船所) 유허비(遺虛碑)

좌수영 선소는 조선시대 좌수영 수군의 군선이 정박하던 수영강 하구를

말한다. 이곳은 임진왜란 때에 우리 군선이 여기서 출발하여 왜선을 격멸했던 역사적 사실과 선조들의 희생이 깃든 장소이다. 현재의 선소 유허비는 1988년 4월 6일 부산의 뜻있는 학자들이 힘을 모아 유허비문과 노계박인로 선상탄의 일부를 새겨 수영동 현대아파트를 시공한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에서 기증받아 현대아파트 관리사무실 옆에 세웠다.



〈좌수영 선소 유허비〉

8. 명승지

가. 수영의 명산(名山)

수영을 형성하고 있는 내륙의 산으로는 남천동·광안동·수영동의 북쪽 배산(背山)이 되는 금련산(金蓮山, 415m)과 망미동의 북쪽 배산(背山)인 배산(盃山, 254.9m), 민락동을 형성하면서 바다로 불쑥 내밀려 수영만(水營灣)을 형성하고 있는 백산(白山, 129.5m)이 있다.

1) 금련산(金蓮山) : 금련산은 남천동, 광안동의 북쪽 배산(背山)이 되고 망미동의 남쪽 배산(背山)이 된다. 황령산과 몸을 같이 하면서 망미동의 배산

(盃山)을 마주 보고 있다. 태백산맥이 부산으로 빠져내려 금련산맥과 금정산맥으로 나뉠 때 금련산은 금련산맥의 중심이 되는 산이다. 금련산이라 불려지게 된 연유에는 여러 가지 설이 있다. 산 정상의 능선들이



〈금련산〉

연꽃 모양이라 해서 그렇다는 말도 있고, 부처님 앞에 공양을 올릴 때의 황금색 금련화(金蓮花)로 말미암아 불려지게 되었다는 말도 있다. 그런데 여자의 예쁜 발을 금련(金蓮)이라고 하고, 미인의 정숙한 걸음걸이를 금련보(金蓮步)라고도 한다. 금련산에는 반야암(般若岩)과 바라밀다사(波羅蜜多寺)가 있었지만(마하사 맞은 편) 지금은 없어지고 축대만 남아 있다. 또한 금련산에서 들려오는 절의 종소리가(연산모종—蓮山暮鐘) 유품이라 하여 수영팔경(水營八景)에 들어 있다.

2) 배 산(盃山) : 망미 1동 뒷산인 배산(254m)은 수영구와 연제구에 걸쳐 있는 유서 깊은 산이다. 산 중턱에는 옛 거칠산국(居柒山國)의 유적으로 추정되는 배산성지(盃山城址)가 있으며, 이 지역이 옛 거칠산국의 중심지로 추정된다.



〈배산〉

옛부터 이 지역의 주변 경치가 수려하여 고려조에는 선인(仙人) 김겸효(金謙孝)가 기거했다는 겸효대(謙孝臺)가 있었다 하나 지금은 자취를 찾을 길이 없다.

3) 백 산(白山) : 수영강이 바다와 어울리는 자리에 민락동의 배산(背山) 노릇을 하는 산이 백산이다. 높이는 129.5m정도이고 수영교의 오른편에 있다.

옛 문헌에 보면 지금의 백산을 소백산, 대백산으로 분리하여 표기하고 있다. 백산이라 불리게 된 연유에는 몇가지 설이 있는데, 예전에는 백산 아래에 갈대가 우거져 있어 백학(白鶴)이 찾아들어 백학산(白鶴山)이라



<백산>

한 것이 백산이 되었다는 말도 있고, 수영천과 바다에 안개가 깔릴 때면 산 전체가 허옇게 보여 그렇게 불렸다는 말도 있다. 한편으로 이 산의 옛 이름이 향산(向山)인데 향산을 잘못 써서 백산(白山)이 되었다는 말이 있으나 《동래부지》나 《동래영지》에도 백산으로 표기하고 있다.

산 정상에는 호랑이 굴이 있었는데, 지금은 무속인들이 주술(呪術)하는 곳이 되어 있다. 또한, 백산의 형상이 마치 수영을 버리고 도망가는 사자의 모습이라 하여 수영지역의 번영을 기원하는 뜻에서 수영야류 제4과장(사자무과장)에는 호랑이를 사자의 먹이로 제공하는 특이한 점이 있다. 또한 백산 앞에 있는 작은 산을 속칭 진조말산이라 부르고 있는데, 문헌에는 진조말산이란 산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지역에 있었던 진조암(眞潮岩)·일명 조망대(眺望臺) 격인 점이대(覲夷臺)의 다른 이름인 듯 함)이 세월이 지남에 따라 변형되어 불려진 듯 하다.

나. 수영의 명대(名臺)

- 1) 겸효대(謙孝臺) : 양미1동 뒷산인 배산(盃山) 산정에 고려시대의 선인(仙人) 김겸효(金謙孝)가 기거했다는 겸효대가 있었다고 한다. 당시 동래현령 정추(鄭福)나 조선시대 동래부사 윤훤(尹瑄), 이춘원(李春元)의 시에도 겸효대를 노래하고 있다. 이를 볼 때 배산 산정의 겸효대에서 바라본 수영의 모습이 무척이나 아름다웠으리라 여겨진다.

2) 망경대(望鏡臺) : 남천동 KBS 방송국 남쪽 아랫길에서 좀더 바다쪽으로 나간 자리(현재 수영구청 인근)에 두 토산(土山)이 마주보고 있었는데 바다 정관을 바라보기 좋은 언덕이 있었다. 그래서 거울같은 바다를 바라보는 대(臺)라 하여 거울 경(鏡)사를 써서 망경대라 한 것 같다.



<첨이대 표석>

3) 첨이대(覲夷臺) : 일명 '점이대'라고도 하며, 민락동 백산(白山) 남쪽, 속칭 진조말산 남단에 있다. 조선시대 촉수영 수군이 바다를 침략하는 왜구들을 살피는 망대(첩후처-斥候處)가 있던 곳이다. 일부 지도에는 이 자리를 점미대(覲美臺)라 적고 있으나, 점미대라면 아름다움을 점망(覲望) 한다는 뜻 일테지만 이는 점이대가 변해서 생겨난 이름으로 여겨진다. 점이대 앞에는 기장(旗章)바위가 있어서 척후병이 척후를 할 때 아무런 일이 없으면 백기를 올리고, 일이 발생하면 적기를 올렸다는 말이 있으나 확인할 수는 없다. 1998년 5월 "부산을 가꾸는 모임"에서 백산 정상에 기념비를 세워 놓았다.

다. 광안리해수욕장(廣安里海水浴場)

남천동의 삼익비치아파트 동쪽에서 민락동 바다 매립지까지의 사장(沙場)



〈광안리 해변테마거리 야경〉

을 말한다. 해수욕장은 총면적 82,000m², 사장길이 1.4Km, 사장폭은 25~110m이다. 금련산에서 내린 걸 좋은 사질(沙質)에 완만한 반월형(半月形)으로 휘어진 사장은 전국적으로 이름난 해수욕장이다. 1964년 신부산 구획정리로 광안리 일대가 정리되기 전까지만 해도 해수욕장 주위는 논과 밭이 있는 한적한 마을이었다. 1971년 공원으로 지정된 이후 해수욕장 주변에 휴식공간인 만남의 광장, 해변공원 등을 조성하였다. 해수욕장 주변에는 제각기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레스토랑, 커피숍이 즐비하며, 진미를 자랑하는 음식점과 생선 횟집이 모여 있다. 백사장내에 야외상설무대를 설치하여 각종 공연 장소로 활용하며 광안리어방축제, 바다축제, 무용제 등 예술문화행사를 제공하고 있다. 해변을 따라 조성된 해변테마거리는 넓은 보행자 도로와 녹지공간을 두어 사계절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면에는 국내 최대 규모의 현수교(0.9km)인 광안대교가 웅장한 자태를 자랑하며 아간이면 바다·빛미술관과 함께 화려한 경관조명으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부산의 명소이다.



〈광안대교〉

라. 광안대교

광안리 앞 바다를 가로지르는 광안대교는 수영구 남천동 49호 광장에서 해운대구 센텀시티 부근을 잇는 총연장 7.42km, 중앙현수교 900m, 폭 18~25m, 왕복 8차선의 국내 최대 해상 복층 교량으로서의 웅장한 모습과 국내에서 처음으로 예술적 조형미를 갖춘 첨단 조명 시스템이 구축되어 10만 가지 이상의 색상으로 연출할 수 있는 환상적인 야간 조명은 광안리 해수욕장의 야경과 어우러져 낭만과 휴식을 제공하는 부산의 관광명소가 되었다. 또한 광안대교에서는 해맞이 축제와 부산불꽃축제, 국제마라톤대회 등을 개최, 차량통제를 실시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개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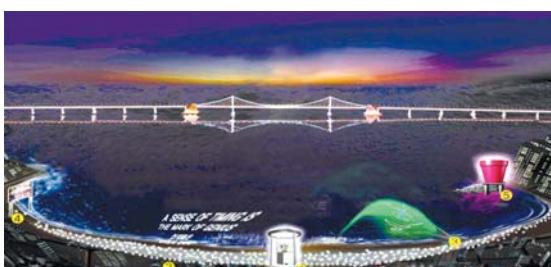
마. 바다·빛 미술관

광안리 야간경관조명사업의 일환으로 광안리 해수욕장 일원에 조성된 「바다·빛미술관」은 국제현상공모를 거쳐 3년여의 준비끝에 2007년 4월에 준공된 세계 최초의 '빛'을 주제로 한 야외미술관(Museum)으로 일반적인 도시경관조명과는 달리 세계적인 거장들의 예술작품을 빛과 영상으로 채

색하여 광안리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열린 미술관으로 재창조하여 기존 광안대교 야경과 더불어 매일밤 자연과 예술의 환상적인 만남을 연출한다.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 고 백남준 선생의 ① '디지테이션'은 광안리 중심에서 자연과 예술, 뉴미디어의 만남을 상징하고 미국의 개념미술가 제니 홀 쳐의 ② '빛의 메시지'는 백사장에 삶과 사회에 대한 협축적인 메시지를 프로젝터로 그려낸다. 심문섭 작가의 ③ '섬으로 가는 길은 수막 스크린에 레이저를 투사 환상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고 해변 왼쪽 전광판에서는 샤를 드 모의 ④ '영상 인터랙티브'가 상영되고 해변 오른쪽에는 양 피에르 레노의 회분 中 최대작인 ⑤ '생명의 원천'이 자리 잡고 있다. 프랑스의 조명 연출가 얀 카슬레의 '은하수 바다'는 테마거리 1.4km를 따라 화려하면서도 은은한 경관조명을 연출해 낸다.

광안리는 이제 새로운 '빛'의 미술관으로 변신하여 피서를 위해 찾는 단순한 해수욕장이 아닌 예술과 품격이 숨쉬는 연중 휴양지이자 부산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바다·빛 미술관〉



〈민락 수변공원〉

바. 민락 수변공원

바다와 휴식공간을 결합한 국내최초의 수변공원으로 해운대와 광안리의 중간 지점에 위치하여 부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다. 길이 543m, 너비 60m이며, 면적은 33,000m² 규모로 4만명을 수용할 수 있다. 바다에는 컬러볼록을 깔고 화단과 그늘막, 벤치 등의 편의시설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며, 바다를 바라보며 각종 문화공연을 감상할 수 있도록 아외무대도 마련되어 있다.

사. 수영민속예술관과 수영사적원

○ 수영민속예술관과 야외놀이마당

수영은 지리적으로 수영천과 광안리해변이 가까이 있어서, 일찍부터 농어업과 관련된 민속이 많았다. 수영야류, 좌수영 어방놀이, 수영농정놀이 등은 문화재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학술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는 유명한 민속유산으로서 수영구의 자랑이다. 수영민속예술관 건립 및 놀이마당 증설사업은 '95년 7월 수영사적공원조성계획 수립을 시발점으로 토지보상, 기본

설계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00년 5월 탄생하게 되었다. 시설규모는 연건 평 264m²(한옥 2층), 놓이마당 1,221m²(1,500석)이며, 부대시설은 사직원 및 실내 연습실 등이 있다. 수영야류등 국가무형문화재와 전통민속공연이 열리고 있으며, 풍물·전통·춤·민요·민속 등의 전통문화학교가 개설되어 일반인 누구나 참여하여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체험을 만끽할 수 있다.

○ 수영사적원

수영은 오랜 역사를 가진 고장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고장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 전시관이 없어서 안타까워 하던 것을 수영 역사의 현장인 수영사적공원내에 민속자료 등을 전시할 사적원을 설치하게 되었다. 기존의 수영고적민속관 건물을 개·보수하여 좌수영 성지의 역사적 배경을 소개하고 전통 문화재, 민속놀이 소품 등을 전시하여 수영공원을 찾는 외래 관광객에게 수영의 특성, 역사 등을 알기 쉽게 보여주고 있다. 기존 건물 132m²을 개·보수하여 99m² 규모의 전시관을 설치하고 국립 민속박물관등 다른 지역의 전시관을 참고로 하고 관계전문가를 위촉하여. 2000년 9월 공사에 착공 2001년 3월에 준공하였다.



〈수영민속예술관과 수영사적원〉



〈사적원 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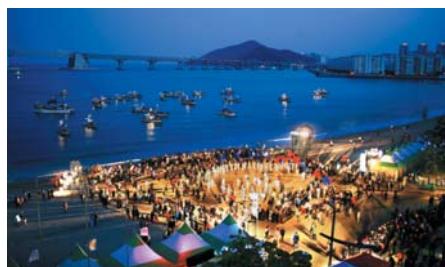
아. 수영팔경(水營八景)

한국의 등줄기 태백산맥이 마지막 정기를 모아 부산 시내로 들어서서 금련산맥(金蓮山脈)을 이루고 그 금련산맥이 황령산(荒嶺山), 금련산(金蓮山)과 더불어 남천만을 이루었다.

수영의 서남쪽은 부산항의 부산만(釜山灣)이 되고, 동남쪽은 수영만과 수영강이 되었다. 물과 바다와 강이 어우러진 수영은 그 전체가 명승지라 할 수 있다. 이 명승지에서 옛 사람들은 수영팔경을 자랑했다. 수영 팔경은 지금의 수영동(수영성)에서 바라본 절경을 노래한 것으로서 수영의 향토 사학자 최한복(崔漢福) 선생을 통해 국어학자 박지홍에 전해져 알려졌다고 한다.

- 1) 운대귀범(雲臺歸帆) : 해운대쪽에서 돌아오는 둑단배의 감회어린 정감을 노래한 것이다.
- 2) 봉대월출(烽臺月出) : 해운대 뒷산인 간비오산에 있었던 봉수대에 달이 떠오르는 모습을 노래 한 것이다.
- 3) 진두어화(津頭漁火) : 수영강 하구에 고기잡이 배의 불빛 모습을 노래한 것이다.

- 4) 남장낙안(南場落雁) : 남촌(南村) 앞 사장을 남장(南陽 — 광안리 해변)이라 했고, 그 넓은(廣) 모래 언덕(岸)을 광안(廣岸)이라 했다. 그 광안의 안(岸)을 덕명인 편안할 안(安)자로 고쳐 광안(廣安)이라 쓰고 있다. 광안리해변에 기러기가 내려앉는 모습을 노래한 것이다.
- 5) 장산낙조(長山落照) : 해운대구의 주산(主山)인 장산(長山)에 해지는 모습이 되 비추어진 모습을 노래한 것이다.
- 6) 백산만취(白山晚翠) : 해질녘 백산의 푸르름이 바다에 드리워진 경관을 노래한 것이다.
- 7) 재송작화(裁松織火) : 수영동에서 건너보이는 재송마을(재송동)의 베찌는 배틀기의 불빛을 노래한 것이다.
- 8) 연산모종(蓮山暮鐘) : 해질녘 연산(蓮山—금련산 金蓮山) 저 멀리서 사바 세계를 누비며 들려오는 범종소리를 말한다. 금련산에는 마하사와 빙아암, 바라밀다사가 있었으나 지금은 마하사만 남아 있다.



〈진두어회(津頭漁火)제현—광안리어방축제〉



〈1960년대 광안리해수욕장〉



〈1979년 광안리해수욕장〉



〈2021년 광안리해수욕장〉

9. 수영사적공원 및 좌수영지 복원

1995년 3월 1일 수영구 개청과 더불어 수영의 뿌리찾기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영사적공원 정비 복원사업은 비교적 정비복원이 용이하고 수영성과 관련된 문화재가 많은 수영사적공원 일원의 문화재를 정비 복원하여 역사 교육장 및 시민휴식처로 활용하는 한편 관광객과 외국인에게 불거리 제공하는 등 수영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부산의 새로운 역사유적관광지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공원 안에는 천연기념물인 좌수영 곰솔(제270호), 좌수영 푸조나무(제311호), 시지정 유형문화재인 수영성 남문(제17호)을 비롯하여, 시지정 기념물인 25의용단(제12호), 좌수영성지(제8호)가 있으며, 국가무형문화재인 수영야류(제43호), 좌수영 어방놀이(제62호)와 시지정 무형문화재인 수영농청놀이(제2호), 수영지신밟기(제22호)를 보존 관리하고 있는 수영민속예술관 등이 있다.



〈수영사적공원 기본 정비계획 조감도〉

■ 주요 추진성과 ('95~현재까지)

- 토지보상, 성지발굴, 공원정비 공사 등
- 수영민속예술관 건립 및 놀이마당 증설(2000년 5월 준공)
- 성지진입도로 개설 L=100m, B=8m (2000년 6월 준공)
- 공원내 화장실 견립(2000년 12월 준공)
- 25의용단 사당 건립 및 충혼탑 정화사업(2001년 2월 준공)
- 안용복장군 사당 및 동상 건립(2001년 3월 준공)
- 수영사적원 설치(2001년 3월 준공)
- 25의용단 주차장 설치 및 수사선정비 이전(2002년 2월 준공)
- 수사선정비(337t) 이전 건립(2002년 3월 준공)
- 공원 확충, 녹지대 조성(794m²), 수사비 보호체 설치(2007년 9월 준공)
- 25의용사 앞 잔여검물 매입, 녹지대 조성
- 좌수영성지 종합정비계획 수립용역 완료(2011년 12월)
- 좌수영성지 복원정비계획 수립(2012년 2월)
- 시지정문화재주변 현상변경 기준안마련(2012년 5월 2일 고시)
- 좌수영성지 정비복원 사업 추진
—연도별 토지매입 현황(2013년 4필지, 2014년 2필지, 2015년 4필지, 2016년 3필지, 2018년 9필지, 2021년 2필지)

■ 향후 추진계획

- 남문 및 성곽복원에 필요한 부지매입(남문 및 서문 성문, 성곽복원)



〈1960년대 수영교차로 주변〉



수영 역사 문화 텁방

1. 수영의 문화시설

가. 방송국

1) KBS 부산방송총국 : 남천동 수영로 765에 자리잡고 있는 공영방송국으로서 1988년 5월 20일자로 남천동 새 사옥으로 옮긴 후 라디오, TV 등 각종 방송시설과 3,300석의 공연장, 전시실 등을 갖추고 부산문화를 선도하고 있다.



2) MBC 부산문화방송국 : 부산문화방송국(개국 : 1959. 4. 15. 중구 중앙동)은 1998년 4월 15일 개국 39주년을 맞이하여 수영구 민락동 백산길 470에 새로이 문을 열었다. 문화방송은 연간 평 23,605m²의 지하 1층, 지상 14층의 현대식 건물로서 TV, 라디오 방송 및 MBC아트홀 등을 갖춘 부산문화의 미래를 이끌어갈 상업 방송국이다.



나. 수영구 도서관

이전 해운대교육청을 개·보수하여 2002년 7월 개관한 수영구 도서관은 노후건축물 안전 및 공간 협소의 문제로 재건립을 추진 중에 있다. 부지면적 6,604m², 연면적 4,290m²(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종합자료실, 동아리실, 강의실 및 북카페 등의 시설을 갖추고 내년 상반기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수영구의 대표도서관으로서 21세기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복합도서문화공간으로 가듬날 예정이다.



다. 수영구 어린이도서관

2021년 6월 25일 개관한 수영구 어린이도서관(수영구 장대골로 75-6)은 연면적 949.97m²(지하1층, 지상 3층) 규모로 유아자료실, 아동자료실, 다목적강당, 북카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14,073권(아동 6,522권, 유아 5,327권, 기타 2,224권) 및 정기간행물의 자료를 비치하고 독서문화강좌 및 어린이(동화 구연 등) 독서문화진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라. 수영구생활문화센터 / 구락생활문화센터

수영구 생활문화센터는 기존 상업시설을 매입하여 1997년부터 문화센터로 사용되다가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생활문화센터 조성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2015년 12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리모델링 공사를 한 후 11월 1일 개소하였다. 지하1층 ~ 지상5층, 연면적 2,461.55m²의 규모로 1층은 해수욕장 개장기간동안 바다경찰서와 수상구조대로 사용되며 그 외 기간에는 광인리 해변 문화창작소로 운영되고 있으며, 2층에는 바다갤러리, 어울림공간, 3층은 동아리방 3개실, 4층은 댄스 및 밴드연습실, 개인연습실, 청자실, 5층은 다목적 강당, 미루연습실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있으며 일상속에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지역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다.

구락생활문화센터는 2019년 11월 11일자로 개소했으며 지역주민들의 거점 생활문화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조성 단계부터 주변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지역주민들의 문화욕구를 만족시키고자 다목적강당, 유아놀이방, 마루연습실, 청자공방, 오픈카페 옥상데크 등 다양한 공간을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마. 수영성 마을박물관

2017년 6월 24일 개관한 '수영성 마을박물관'은 수영동행정복지센터 인근 수영성로 32번길 28에 위치하고 있었던 3층 건축물의 리모델링을 통하여, 수영동 마을의 지역자산을 활용한 컨텐츠를 바탕으로 방문객들에게 마을의 정보를 제공하고 마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1층은 방문객들이 지도, 잡지 등을 통해 마을에 대한 정보를 안내받고 쉴 수 있는 인포메이션 센터인 '마을다방'의 공간으로 활용되고, 2층은 사진, 영상, 주민들의 사연이 깃

든 물건 등 마을 컨텐츠를 바탕으로 수영동의 생활사를 볼 수 있는 '마을전시관'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3층은 주민 커뮤니티 프로그램이나 방문객들을 위한 체험 및 교육 장소 등 커뮤니티 공간인 '문화사랑방'으로 활용되고 있다.



바. 광안리 해변 야외상설무대

민락동 광안리 해변가에 조성된 야외 무대는 매년 바다축제, 광안리야방축제 등 지역 주민들의 문화행사 제공을 위해 상시 다양한 문화예술행사가 개최된다. 시원한 바다를 배경으로 건전한 놀이 문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2021년 5월 비점 오염저감 시설과 함께 세단장을 하였다.



사. 금련산 청소년수련원

금련산 청소년수련원은 광안 4동 산60-3번지, 광안리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금련산 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주요시설은 수련시설과 숙박시설, 접회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청소년들의 체력단련과 정서함양, 자연 과학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 광안리 해양레포츠센터

2011년 4월 15일 개소한 광안리 해양레포츠센터(수영구 광안리해변로 54번길 222)는 지하1층~지상 1층의 육상부 931.05㎡와 계류시설인 해상부 2,837.9㎡로 구성되어 있으며, 패들보드, 카약 등 총 11종 목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제트보트, SUP, 카약 등 183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 광안리 해변 해양스포츠 활성화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자. 비콘그라운드

비콘(B-Con)그라운드는 수영고가 도로 하부 유류공간을 재생시킨 공간으로 고가도로로 인하여 양분되어 낙후된 지역을 연결하고 부족한 문화공간을 제공하는 "복합-생활-문화 공간"으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역관광개발사업에 선정, 2017년 공사 착공 및 시행으로 2020년 2월 준공되었다.



차. F1963

수영공장은 고려제강의 모태가 되는 첫 공장으로 1963년부터 2008년까지 45년 동안 와이어를 생산하는 공장이었다. 2016년 부산비엔날레를 계기로 탄생한 F1963의 “F”는 Factory(공장), 1963은 수영공장이 완공된 연도를 의미한다. 재생건축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재생의 이름다움이 더욱 돋보이는 공간으로 재탄생한 F1963은 서점, 도서관, 전시, 공연, 카페, 식당 등 다양한 문화예술의 컨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문화공간이다.



2. 수영자랑 13가지

광안대교

남천동 49호 광장에서 부산센텀시티 사이를 잇는 길로 7,42m, 넓이 18~25m의 해상교량으로서 2층(복층) 구조의 왕복 8차로 규모에 10만가지 이상의 색상 연출이 가능한 첨단조명시설을 갖추고 있다. 총공사비 7,899억원과 공사기간 8년(1994~2002년)을 소요하여 내진 1등급의 지진은 물론 평균 초속 45m의 태풍 및 높이 7m의 파도 등에도 견딜 수 있는 반영구적 공법으로 시공되었다.



광안리해수욕장과 바다·빛 미술관

광안리해수욕장은 깨끗한수질과 반달 형태의 넓은 백사장, 그리고 낭만이 깃든 카페와 횟집, 녹지대, 야외무대, 해변테마거리 등이 위치하고 있는 해양관광명소이다.



바다·빛 미술관은 빛과 영상이 조화를 이룬 멀티미디어 테마파크로서 매일밤 환상적인 야경을 연출하는데 세계 유명작가들의 작품 6점이 설치되어 있다.

수영시적공원

조선시대 경상좌수영성이 있던 곳으로 임진왜란 때 왜적에 항거하여 순절한 25인의 의로운 넋을 모신 25의용사와 독도 수호에 공헌한 인용복 장군의 사당인 수강사, 수영성 남문, 천연기념물인 수영동 꼼술 및 푸조나무와 함께 국가무형문화재인 수영야류, 좌수영어방놀이 등을 보전하는 수영민속예술관이 소재하고 있다.



좌수영어방놀이

수영만의 멀치잡이 후리소리를 연희화한 놀이로 어로작업의 호흡을 맞추고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르던 어업 노동이다. 중요 무형문화재 제62호로 지정되었으며 내왕소리, 사리소리, 가래소리, 칭칭소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영야류

약 250년 전부터 수영지역에서 행해지던 들놀음으로서 정월 대보름날 저녁에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즐기던 마을 축제의 한 형태이다. 타락한 양반계층을 희롱하는 서민들의 놀이로 양반, 영노, 할미·영감, 사자무의 4과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국가무형문화재 제43호이다.



수영지신밟기

250여 년의 전부터 수영동 일원에서 정초에 가가호호를 둘며 마을의 태평과 주민들의 제액초복을 빌어 주던 의례이자 정월 대보름날 행해지는 수영야류의 경비조달을 위한 사전준비과정의 성격을 가진 민속놀이이다. 부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제22호로 지정되어 있다.



광안리어방축제

매년 4월 넷째주 어벙이라는 수영의 전통문화 특성을 소재로 광안리해변 일원에서 열리는 부산지역의 대표적인 봄축제이다. 화려한 거리파레이드, 실경 뮤지컬 그물끌기 한마당, 진두어화, 개페막공연 어벙민속마을, 체험프로그램, 민속공연 등이 다채롭게 펼쳐진다.



광안리 M 드론 라이트쇼

매주 토요일 저녁 밤하늘을 수놓는 300대 이상의 드론을 광안리해수욕장 일원에서 만날 수 있다. 장기간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을 위로하고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획된 야간관광 특화 사업으로 계절 및 주제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광안리를 찾는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부산불꽃축제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 개최”를 경축하기 위해 그 해 11월 16일 광안리해수욕장에서 펼쳐졌던 해상 불꽃쇼가 기원으로서 2006년부터 정례적으로 광안대교 및 광안리해수욕장 일원에서 화려한 불꽃잔치를 연출함으로써 해마다 백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불러 모으고 있다.



남천·민락 횟촌

광안리해수욕장의 서쪽인 남천동과 동쪽인 민락동 지역에 300여개소가 넘는 횟집들이 밀집하여 형성된 “남천·민락 횟촌”은 싱싱하고 저렴한 가격의 회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최고 수준 횟집타운으로 연중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금련산

해발 415m인 금련산의 명칭은 산의 형태가 연꽃 모양이라 해서 붙여졌다는 이야기가 있고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때 나타난 황금색 연꽃에서 유래했다는 말도 있다. 반야암 등이 있던 위치에는 아직 죽대 흔적이 남아 있고 현재는 청소년수련원, 약수터, 체육시설 등이 자리잡아 시민들의 체력단련과 정서함양을 위한 중요한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민락수변공원

민락수변공원은 바다와 휴식공간을 결합한 국내 최초의 친수공원으로 친수호안, 화단, 벤치 등의 시설을 구비하고 있으며 길이 543m, 너비 60m, 면적 33,000㎡(4만명 수용 가능) 규모이다. 2021년 8월 공공미술프로젝트를 통해 코로나 19 방역을 위해 설치한 거리두기 구간을 공공미술 작품으로 조성하였다.



수영강

수영강은 강변 양쪽으로 대단지 아파트와, 공원, 산책로, 친수공간 등이 조화를 이뤄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이루고 있다. 또한, '수영강변 일원 조형작품 조성사업'으로 국내외 유명 작가의 조형작품이 설치되어 주변의 수려한 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환상적인 광경을 연출하고 있으며 이곳을 찾는 시민들에게 일상 속에서 현대미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4. 부산의 문화재 현황

가. 국가지정문화재

1) 국보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심지백 개국원종공신녹권 (沈之伯 開國原從功臣錄券)	제69호	1397년	동아대학교박물관
조선왕조실록, 태백산사고본 (朝鮮王朝實錄 太白山史庫本)	제151-2호	조선시대	국가기록원
금동보살입상(金銅菩薩立像)	제200호	통일신라	부산박물관
전 산청 석남암사지 납석사리호 (傳 山淸 石南巖寺址 磨石舍利壺)	제233-2호	766년	부산박물관
동궐도(東闕圖)	제249-2호	조선시대	동아대학교박물관
백자 달항아리(白磁壺)* (三國遺事 卷四~卷五)	제310호	조선시대	국립고궁박물관 위탁보관
삼국유사 권4~5	제306-4	1394년	범어사성보박물관

2) 보물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부산 범어사 삼층석탑 (釜山 梵魚寺 三層石塔)	제250호	통일신라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김자운니묘법연화경 권3 (金紙銀泥妙法蓮華經 卷三)	제269-3호	1422년	동아대학교박물관
부산 범어사 대웅전(釜山 梵魚寺 大雄殿)	제434호	조선시대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안중근의사유묵_견리사의견위수명 (安重根義士遺墨_見利思義見危授命)	제569-6호	1910년	동아대학교박물관
안중근의사유묵_고막자어자사 (安重根義士遺墨_孤莫孤於自恃)	제569-16호	1910년	남구 분포로 111
박민정 해서암행일기 (朴萬鼎 海西暗行日記)	제574호	17세기	해운대구 마린시티2로 33
허목 전서 애군우국(許穆 篆書 愛君憂國)	제592-3호	17세기	남구 분포로 111
자수 초충도 병풍(刺繡 草蟲圖 屏風)	제595호	조선시대	동아대학교박물관
토기 용기문 밸트기(隆起文 鉢)	제597호	신석기시대	동아대학교박물관
도기 말미장식 뽕잔(陶器 馬頭飾 角杯)	제598호	삼국시대	동아대학교박물관
생지총통(雙字銅筒)	제599호	1583년	동아대학교박물관
묘법연화경 권7	제692-1호	고려시대	금정구 부곡동 235-5 우산타운아파트 101-2004호
의령보리사지 금동여래입상 (宜寧菩提寺址 金銅如來立像)	제731호	통일신라	
조대비 사순칭경진하도 병풍 (趙大妃 四旬稱慶陳賀圖 屏風)	제732호	1847년	동아대학교박물관
현종 기례진하도 병풍 (憲宗嘉禮陳賀圖 屏風)	제733-1호	1844년	동아대학교박물관
자자총통(地字銅筒)	제863호	1557년	동아대학교박물관
주범망경(注梵網經)	제894-2호	고려말기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진실주집(眞實珠集)	제921-3호	조선시대	삼광사 (부산박물관 위탁보관)
선조국문유서(宣祖國文諭書)	제951호	조선시대	부산박물관
묘법연화경 권4~7(妙法蓮華經 卷四~七)	제961-2호	조선전기	영도구 증복길 490 법화사
박문수 초상(朴文秀 肖像)	제1189-2호	조선후기	남구 분포로 111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이경(연해) 권하 1의1~2, 2의1~2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解)]	제1219-3호	조선시대	취정사
불조삼경(佛祖三經)	제1224-2호	고려말기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부신 범어사 조계문 (釜山 梵魚寺 曹溪門)	제1461호	17세기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조선후기 문인 초상(朝鮮後期 文人 肖像) 이덕성 초상 및 관련자료 일괄 (李德成 肖像 및 關聯資料 一括)	제1498호	조선후기	남구 분포로 111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이경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제1501호	18세기	부산박물관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	제1518-2호	고려시대	삼광사 (부산박물관 위탁보관)
금강요집경 권1~2 [金藏要集經 卷一~二]	제1522호	1565년	동아대학교박물관
무장지도(牧場地圖)	제1525호	고려말~ 조선전기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무산 범어사 모조석가여래삼존좌상 (釜山 梵魚寺 木造釋迦如來三尊坐像)	제1526호	1661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경상총여도(慶尙摠輿圖)	제1599호	18세기	남구 분포로 111
예안 김씨 가전 계획도 일괄 (醴安金氏傳契會圖一括)	제1616호	1546년 1581년 1606년	남구 분포로 111
부신 국청사 청동북 (釜山 國淸寺 青銅金鼓)	제1733호	1666년	금정구 북문로 42 (범어사성보박물관 위탁보관)
기장 장안사 대웅전 (機張 長安寺 大雄殿)	제1771호	1657년 증창	기장군 장안읍 장안로 482 장안사
칠태부인경수연도(七太夫人慶壽宴圖)	제1809호	18세기 전반	부산박물관
황리현명 청동북(黃利縣銘 青銅金鼓)	제1810호	1085년	동아대학교박물관
기장 장안사 석조석가여래삼불좌상 (機張 長安寺 石造釋迦如來三尊坐像)	제1824호	1659년	기장군 장안읍 장안로 482 장안사
고려 심육나한도(제7 기비기증자) [高麗 六十羅漢圖(第七 迦理迦尊者)]	제1882-1호	1236년	수영구 수영로 481번길 17
운수사 대웅전(雲水寺 大雄殿)	제1896호	1655년	사상구 모라로 219번길 173 운수사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조선왕조의궤(朝鮮王朝儀軌)	제1901-6호	조선시대	한국순교지박물관
양산 금조총 출토 유물 일괄 (梁山 金鳥塚 出土 遺物 一括)	제1921호	삼국시대	경남 김해시 가야의길 190 국립김해박물관 (동아대박물관 입시보관)
김운겸필 영남기행화첩 (金允謙 筆 楊南紀行畫帖)	제1929호	1770년	동아대학교박물관
자치屡강 권57~60 (資治通鑑 卷五十七~六十)	제1281-5호	조선시대	기장군 일광면 용천리 752 취성사
재조본 사본을 권47~50 (再雕本 四分律 卷四十七~五十)	제1943호	고려시대	서구 옥전로 141-22 대성사
부산 북천동 22호분 출토 청동칠두령 (釜山 福泉洞 二十二號墳 出土 青銅七頭鎗)	제2019호	삼국시대	국립김해박물관
부산 북천동 38호분 출토 철제갑옷 일괄 (釜山 福泉洞 三十八號墳 出土 鐵製甲冑 一括)	제2020호	삼국시대	국립김해박물관 (복천박물관 입시보관)
불설장수멸죄호재동자다니경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제1092호	1416년	강서구 낙동남로 754-16 수능암사
인천안목(人天眼目)	제1094호	1395년	기장군 장안읍 해맞이로 253-38 모판음사
관북어지도(關北輿地圖)	제2061호	18세기	동아대학교박물관
백자 향이근(白磁 大壺)	제2064호	조선후기	부산박물관
신구공신상회제명지도 병풍 (新舊功臣相會題名之圖 屏風))	제2080호	17세기	동아대학교박물관
고려사(高麗史)	제2115-4호	17세기	동아대학교박물관

3) 사적(史蹟)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부산 동래 패총(釜山 東萊 貝塚)	제192호	삼한시대	동래구 온천천로 319번길 60
부산 금정산성(釜山 金井山城)	제215호	조선후기	금정구 긍성동 일원
부산 동삼동 패총(釜山 東三洞 貝塚)	제266호	신석기시대	영도구 태종로 729
부산 북천동 고분군(釜山 福泉洞 古墳群)	제273호	삼국시대	동래구 북천로 66
부산 연산동 고분군(釜山 蓮山洞 古墳群)	제539호	삼국시대	연제구 연산동 신30-4 일원
임시수도 대통령관저(臨時首都 大統領官邸)	제546호	1926년	임시수도기념관

4)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부산 영정동 배봉나무 (釜山 楊亭洞 배봉나무)	제168호	약 800년	부산진구 동평로 335
부산 범어사 등나무군락 (釜山 梵魚寺 등나무群落)	제176호	약 120년	금정구 청룡동 신2-1 일원
낙동강 하류 철새 도래지 (洛東江 下流 철새 渡來地)	제179호	약 130종	시하구, 강서구, 사상구 일원
부산 전포동 구상반려암 (釜山 田浦洞 球狀斑蠻岩)	제267호	제3기초	부산진구 전포동 산12 일원
부산 좌수영성지 곱슬 (釜山 左水營城址 곰솔)	제270호	약 400년	수영구 수영성로 43
부산 구포동 당숲(釜山 龜浦洞 堂숲)	제309호	약 500년	북구 구포동 1206-23 일원
부산 좌수영성지 푸조나무 (釜山 左水營城址 푸조나무)	제311호	약 500년	수영구 수영성로 43

5) 명승(名勝)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부산 영도 태종대(釜山 影島 太宗臺)	제17호		영도구 전망로 24
부산 오륙도(釜山 五六島)	제24호		남구 용호동 936 일원

6) 국가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

문화재명	지정번호	소재지
동래야류(東萊野遊)	제18호	동래구 우정대로 195-46
수영야류(水營野遊)	제43호	수영구 수영성로 42
대금산조(大斧散音調)*	제45호	동래구 금강로153번길 70
좌수영어방놀이(左水營漁坊놀이)	제62호	수영구 수영성로 42
자수정(刺繡匠)	제80호	금정구 중앙대로1793번길 50
동해안별신굿(東海岸別神굿)	제82-1호	기장군 기장읍 차성서로 95

7) 국가민속문화재(重要民俗文化財)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의왕 원유관(義王 遠遊冠)	제274호	1900년	오륜대 한국순교자박물관
전 순정효황후 주칠 나전가구 (傳 純貞孝皇后 朱漆 蟠鈿家具)	제277호	1930년대	동아대학교박물관

8) 등록문화재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부산 임시수도정부청사(釜山 臨時首都政府廳舍)	제41호	1925년	동아대학교박물관
부산 송정역(釜山 松亭驛)	제302호	1940년	해운대구 송정중앙로8번길 60
부산 북병산배수지(釜山 伏兵山配水池)	제327호	1910년	중구 생길 10
부산 구 경남상업고등학교 본관 (釜山 舊 廣南商業高等學校 本館)	제328호	1927년	서구 망양로33번길 12
부산 구 남선전기 사옥 (釜山 舊 南鮮電氣 社屋)	제329호	1936년	서구 까치고개로 252
부산 수정동 일본식 가옥 (釜山 水晶洞 日本式 家屋)	제330호	1943년	동구 흥곡로 75
부산 초량동 일본식 가옥 (釜山 草梁洞 日本式 家屋)	제349호	1925년	동구 고관로13번나길 22
부산 재한유엔기념공원 (釜山 在韓 유엔기념公園)	제359호	1951년	남구 유엔평화로 93
부산 구 성지곡수원지 (釜山 舊 聖知谷水源池)	제376호	1909년	부산진구 새싹로 295
디젤전기기관차 2001호 (디젤電氣機關車 2001號)	제416호	1950년	부산진구 범천동 1219번지 부산철도차량관리단
광복군가집 제1집(光復軍歌集 第一集)	제474호	1943년	서구 해돋이로 297-2
부산 전차(釜山 電車)	제494호	1927년	서구 구덕로 225 동아대학교
해양조사연보(海洋調查年譜)	제554호	1928년 ~1967년	기장군 기장을 해안로 152-1 국립수산과학원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부산 경남고등학교 덕령관 (釜山 廣南高等學校 德馨館)	제568호	1956년	서구 망양로111번길 65 경남고등학교
대한성공회 부산주교좌성당 (大韓聖公會 釜山主教座聖堂)	제573호	1924년	중구 대청로99번길 5-1
부산대학교 구 본관 (釜山大學校 舊 本館)	제641호	1959년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부산대학교 무지개문 및 구 수위실 (釜山大學校 무지개門 및 舊 守衛室)	제642호	1957년	금정구 부산대학로63번길 2
부산 구 백제병원(釜山 舊 百濟病院)	제647호	1927년	동구 종암대로209번길 16
부산 우암동 소막마을 주택	제715호	1924년 (추정)	남구 우암동 189-1123 외
부산 구 동래역사	제753호	1934년	동래구 낙민동 112-3번지
대한민국임시정부 특별, 추조, 면지 및 소봉투	제774-3호	1931년	서구 구덕로 225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구 부산나병원기념비	제781호	1930년	동구 청공단로 27, 일신기독병원

나. 부산시지정문화재

1)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동래부 동헌 충신당(東萊府 東軒 忠信堂)	제1호	1636년	동래구 명륜로112번길 61
다대진 동헌(多大鎮 東軒)	제3호	조선후기	사하구 물운대1길 73
망미루(望美樓)	제4호	1742년	동래구 명륜로112번길 61
동래부 동헌 외대문(東萊府 東軒 外大門)	제5호	조선후기	동래구 명륜로112번길 61
동래학교 대성전(東萊鄉校 大成殿)	제6호	1813년	동래구 동래로 103
충렬사(忠烈祠)	제7호	조선시대	동래구 충렬대로 345
동래 장관청(東萊 將官廳)	제8호	1706년	동래구 명륜로94번길 36-6
오층석탑(五層石塔)	제9호	신라말 ~고려초	부산대학교박물관
삼층석탑(三層石塔)	제10호	고려말 ~조선초	동아대학교박물관
원효암 동편 삼층석탑 (元曉庵 東便 三層石塔)	제11호	신라말 ~고려초	금정구 범어사로 256 원효암
원효암 사면 삼층석탑 (元曉庵 西便 三層石塔)	제12호	신라말 ~고려초	금정구 범어사로 256 원효암
민덕사지 당간지주(萬德寺址幢竿支柱)	제14호	고려시대	북구 만덕동 784
범어사 당간지주(梵魚寺幢竿支柱)	제15호	동일신라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석등(梵魚寺 石燈)	제16호	동일신라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경상좌수영성 남문(慶尙左水營城 南門)	제17호	조선후기	수영구 수영성로 43
동모(銅矛)	제18호	청동기 시대	부산진구 부전2동 160 (복천박물관 위탁보관)
동모(銅矛)	제19호	청동기 시대	부산진구 부전2동 160 (복천박물관 위탁보관)
동파두(銅把頭)	제20호	청동기 시대	부산진구 부전2동 160 (복천박물관 위탁보관)
군관청(軍官廳)	제21호	조선후기	동래구 충렬대로 345 충렬사 내
범방동 삼층석탑(凡方洞 三層石塔)	제23호	고려시대	강서구 미음동 1530-2 일
동래부 동하면 고문서 (東萊府 東下面 古文書)	제24호	한 말	남구 유엔평화로 63 부산박물관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범어사 청룡암시 목판 (梵魚寺 靑龍巖詩 木板)	제25호	조선시대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천수 책판(梵魚寺 千手 冊板)	제26호	1676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어산집 책판(梵魚寺 魚山集 冊板)	제27호	1700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기념비 범어사 찬건사적, 범어사 고적판 (梵魚寺 紀念碑 梵魚寺 創建事蹟, 梵魚寺古蹟板)	제28호	조선시대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신문찰요 책판 (梵魚寺 神門帳要 冊板)	제29호	1908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권왕문 책판 (梵魚寺 劍王文 冊板, 언문판)	제30호	1908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태진화상주심경 (梵魚寺 太顛和尚注心經)	제32호	1411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험여록(梵魚寺 函虛錄)	제33호	1440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지공직지(梵魚寺 指空直指)	제34호	1475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선종영가집(梵魚寺 禪宗永嘉集)	제35호	1542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불설대보부모은중경 (梵魚寺 佛說大報父母恩重經)	제36호	1562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육조대사법보단경 (梵魚寺 六祖大師法寶壇經)	제37호	1569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금강보아비라밀경 (梵魚寺 金剛般若波羅密經)	제38호	1570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불조역대통재 (梵魚寺 佛祖歷代通載)	제39호	1576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웅신화상법어약록 (梵魚寺 蒙山和尚法語略錄)	제40호	1579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묵법연화경(梵魚寺 妙法蓮華經)	제41호	조선시대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내원정사 진언집(內院精舍 眞言集)	제42호	1658년	서구 엄광선로40번길 80 내원정사
내원정사 조상경(內院精舍 造像經)	제43호	1720년	서구 엄광선로40번길 80 내원정사
내원정사 엄불보권문 (內院精舍 念佛普勸文)	제44호	1765년	서구 엄광선로40번길 80 내원정사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내원정사 묘법연화경 (内院精舍 妙法蓮華經)	제45호	1632년 1649년	서구 엄광산로40번길 80 내원정사
범어사명 유제시루(梵魚寺銘 鏹製시루)	제46호	1664년	부산박물관
내원정사 목조관음보살좌상 (内院精舍 木造觀音菩薩坐像)	제47호	1730년	서구 엄광산로40번길 80 내원정사
유원각선생 미안감고비 및 비각 (柔遠閣先生埋案感古碑 및 碑閣)	제48호	1906년	부산박물관
포은시고(圃隱詩藁)	제49호	조선시대	부산시립시민도서관
가덕도 등대(加德島 燈臺)	제50호	1909년	강서구 가덕해안로 1237
범어사 사천왕도(梵魚寺 四天王圖)	제51호	1869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세석신중도(梵魚寺 帝釋神衆圖)	제52호	1817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관음전 백의관음보살도 (梵魚寺 觀音殿 白衣觀音菩薩圖)	제53호	1882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마하사 현왕도(摩訶寺 現王圖)	제54호	1792년	연제구 봉수로 138 마하사
범어사 의상대사 영경 (梵魚寺 義湘大師 影幘)	제55호	1767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기영각 시첩(耆英閣 詩帖)	제57호	1763년	동아대학교박물관
금강전도 12곡병(金剛全圖 十二曲屏)	제58호	조선후기	동아대학교박물관
동래 고지도(東萊 古地圖)	제59호	조선후기	동아대학교박물관
대원군 초상화(大院君 肖像畫)	제60호	조선후기	동아대학교박물관
복천사 지장사왕도(福泉寺 地藏十王圖)	제61호	1892년	영도구 산정길 41 복천사
복천사 아미타국락회상도 (福泉寺 阿彌陀極樂會上圖)	제62호	1892년	영도구 산정길 41 복천사
범어사 팔상·도성·나한전 (梵魚寺 拏相·獨聖·羅漢殿)	제63호	1906년 중건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대방광불화엄경 권40 (大方廣佛華嚴經 卷四十)	제64호	1728년	서구 구덕로 225 동아대학교박물관
복천사 조상경(福泉寺 造像經)	제65호	1575년	영도구 산정길 41 복천사
복천사 선원지진진도서 (福泉寺 禪源諸詮集都序)	제66호	1579년	영도구 산정길 41 복천사
범어사 대웅전 영산회상도 (梵魚寺 大雄殿 靈山會上圖)	제67호	1882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대웅전 상장보살도 (梵魚寺 大雄殿 三藏菩薩圖)	제68호	1882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범어사 대웅전 신중도 (梵魚寺 大雄殿 神衆圖)	제69호	1882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관음전 목조관음보살좌상 (梵魚寺 觀音殿 木造觀音菩薩坐像)	제70호	1722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비로전 목조비로자나삼존불좌상 (梵魚寺 毘盧殿 木造毘盧遮那三尊佛坐像)	제71호	17세기 ~18세기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미륵전 목조여래좌상 (梵魚寺 瑪勒殿 木造如來坐像)	제72호	17세기 ~18세기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석조연화대좌 하대석 (梵魚寺 石造蓮花臺座 下臺石)	제73호	통일신라말 ~고려초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자수 책거리 병풍(刺繡 冊巨里 屏風)	제74호	조선후기	수영구 흥령산로15번길 12
남지기로회도(南池耆老會圖)	제75호	1629년	동아대학교박물관
불설장수멸죄도(滅罪諸童子陁羅尼經)	제76호	16세기	금정구 중앙대로 2104
여전준천제명첩(御前濬川題名帖)	제77호	1760년	부산박물관
천상열차분야지도(天象列次分野之圖)	제78호	18세기	부산박물관
이의양 필 산수도(李義養 筆 山水圖)	제79호	1811년	부산박물관
범어사 금강분야비단밀경 (梵魚寺 金剛般若波羅密經)	제80호	1415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보리달마시행론 (梵魚寺 菩提達摩行論)	제81호	14세기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신문연송집(梵魚寺 禪門拈頌集)	제82호	14세기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대방광불화엄경 권41 (大方廣佛華嚴經 卷四十一)	제83호	고려후기	동아대학교박물관
이덕성가 문적(李德成家 文籍)	제84호	17세기 ~18세기	부산박물관
장인사 응진전 석조석가삼존심온나한상 (長安寺 應真殿 石造釋迦三尊十六羅漢像)	제85호	1684년	기장군 장안읍 장안로 482 장인사
장인사 명부전 석조지장사임상 (長安寺 冥府殿 石造地藏十王像)	제86호	1684년	기장군 장안읍 장안로 482 장인사
장인사 대웅전 영산회상도 (長安寺 大雄殿 靈山會上圖)	제87호	1856년	기장군 장안읍 장안로 482 장인사
장인사 응진전 영산회상도 (長安寺 應真殿 靈山會上圖)	제88호	1882년	기장군 장안읍 장안로 482 장인사
장인사 명부전 지장보살도 (長安寺 冥府殿 地藏菩薩圖)	제89호	1856년	기장군 장안읍 장안로 482 장인사

부 록

수영 역사 문화 팀방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범어사 동종(梵魚寺 銅鐘)	제90호	1728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운수사 대웅전 석조여래삼존좌상 (雲水寺 大雄殿 石造如來三尊坐像)	제92호	17세기 ~18세기	사상구 모리로219번길 173 운수사
산임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仙巖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및 腹藏遺物)	제95호	조선전기	부산진구 백양산로 138 산임사
범어사 원종암 목조관음보살좌상 (梵魚寺 元曉庵 木造觀音菩薩坐像)	제96호	1674년	금정구 범어사로 256 원종암
원광사 영산회상도(圓光寺 鏡山會上圖)	제97호	1791년	동래구 쇠미로 3-22 원광사
동래향청 고왕록(東萊鄉廳 考往錄)	제98호	1605년 ~1903년	부산박물관
동래향교 고왕록(東萊鄕校 考往錄)	제99호	1782년 ~1900년	부산박물관
흑유호 및 흑유정병(黑釉壺 및 黑釉淨瓶)	제101호	12세기	동아대학교박물관
분청사기인화문사사부대호 (粉青沙器印花菊花文四耳附胎壺)	제102호	15세기	동아대학교박물관
갑인춘 친정도(甲寅春 親政圖)	제103호	1734년	동아대학교박물관
천안사 법어(天安寺 法語)	제105호	1577년	부산진구 백양산로 54번길 72 천안사
장안사 명부전(長安寺 明府殿)	제106호	1774년 중건	기장군 장안읍 장안로 482 장안사
장안사 응진전(長安寺 應真殿)	제107호	1899년	기장군 장안읍 장안로 482 장안사
선광사 석가여래성도기 (仙光寺 穩迦如來成道記)	제108호	15C (세조연간)	사상구 백양대로804번길 42-123 선광사
김홍도 필 산수인물도 (金弘道 筆 山水人物圖)	제109호	1800년 경	부산박물관
심사정 필 산승보님도 (沈師正 筆 山僧補衲圖)	제110호	18세기	부산박물관
류성룡 필 진사무자 조고 (柳成龍 筆 進士務翁 草稿)	제111호	1592년	부산박물관
백자철화용문호(白磁鐵畫龍文壺)	제112호	17세기	부산박물관
곤여전도(坤輿全圖)	제114호	18세기	부산박물관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금정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金井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및 腹藏遺物)	제115호	1677년	동래구 우장초로 157-59 금정사
해광사 선월제전집도서 (海光寺 禪源詩贊集都序)	제117호	1579년	기장군 기장을 기장해인로 340 해광사
해광사 대방광불화엄경 권23 (海光寺 大方廣佛華嚴經 卷二十三)	제118호	고려시대 (12~13세기)	기장군 기장을 기장해인로 340 해광사
석조관음보살좌상(石造觀音菩薩坐像)	제119호	고려말기	동아대학교박물관
목조보살좌상(木造菩薩坐像)	제120호	17세기	동아대학교박물관
시왕도(十王圖)	제121호	17세기	동아대학교박물관
동제 화엄경변상도 경상 (銅製 華嚴經變相圖 經床)	제122호	조선시대	동아대학교박물관
계사명 사리구(奚已銘 舍利具)	제123호	조선후기	동아대학교박물관
전 경주 출토 승사리구(傳 慶州 出土 僧舍利具)	제124호	조선후기	동아대학교박물관
박기종 유물 일괄(朴琪宗 遺物 一括)	제125호	19C후반 ~20C전반	부산박물관
칠보사 목조관음보살좌상 (七寶寺 木造觀音菩薩坐像)	제126호	1730년대	서구 해동이로109번길 17 칠보사
황련사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 (黃蓮寺 大方廣圓覺修多羅義經)	제127호	1588년	수영구 수영로497번나길 25 황련사
동래향교 명륜당(東萊鄉校 明倫堂)	제128호	1815년	동래구 동래로 103 동래향교
폭포사 모법연화경(瀑布寺 妙法蓮華經)	제129호	1477년	해운대구 장산로 331-112 폭포사
금천선원 모법연화경 (金泉禪院 妙法蓮華經)	제130호	1477년	금정구 금샘로 271 금천선원
고불사 모법연화경(古佛寺 妙法蓮華經)	제131호	1493년	기장군 철마면 고촌로 28번길 77 고불사
백운사 모법연화경 권1-3 (白雲寺 妙法蓮華經 卷1-3)	제132호	조선전기	해운대구 운봉길 315 백운사
백운사 모법연화경 권4-7 (白雲寺 妙法蓮華經 卷4-7)	제133호	조선전기	해운대구 운봉길 315 백운사
진주성도(晋州城圖)	제134호	19세기	동아대학교박물관
거제부도(巨濟府圖)	제135호	19세기	동아대학교박물관
분청사기 마흥목처 신반진씨 지석 (粉青沙器 馬興牧妻 新反陳氏 誌石)	제136호	1467년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 부산대학교박물관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자치통강감목(資治通鑑綱目)	제137호	조선전기	기장군 일광면 상곡길 55
백련사 약사여래본원공덕경 (白蓮寺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	제138호	고려초기 (11~12C)	남구 이기대공원로 85~74 백련사
범어사 사지암 석조보살좌상 (梵魚寺 獅子庵 石造菩薩坐像)	제139호	1904년	금정구 삼아1길 26 시지암
청동북(青銅金鼓)	제140호	고려시대	서구 구덕로 225 동아대학교박물관
범어사 원효암 아미타삼존도 (梵魚寺 元曉庵 阿彌陀三尊圖)	제141호	1892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성보박물관 위탁보관)
아미타내영도(阿彌陀來迎圖)	제142호	1813년	부산대학교박물관
칠성도(七星圖)	제143호	19C중반	부산대학교박물관
목조아미티여래좌상 (木造阿彌陀如來坐像)	제144호	1765년	부산대학교박물관
삼광사 석조여래좌상 (三光寺 石造如來坐像)	제145호	17C후반 ~18C초반	부산진구 조읍천로 43번길 77 삼광사
해동용궁사 금강반야비라밀경문 (海東龍宮寺 金剛般若波羅密經論)	제147호	조선시대	기장군 기장을 용궁길 86 해동용궁사
해동용궁사 성가니분노 금강동지보살성취의배경 (海東龍宮寺 聖迦尼忿怒 金剛童子菩薩成就儀軌經)	제148호	조선시대	기장군 기장을 용궁길 86 해동용궁사
해운정사 전법계(海雲精舍 傳法偈)	제149호	1925년 ~1967년	해운대구 우동2로 40~6 해운정사
해동용궁사 목조여래좌상 (海東龍宮寺 木造如來坐像)	제150호	17C전반	기장군 기장을 용궁길 86 해동용궁사
자비암 육경합부(慈悲庵 六經合部)	제151호	조선전기	동래구 복천로5번가길 46 자비암
자비암 선림보훈(慈悲庵 禪林寶訓)	제152호	1525년	동래구 복천로5번가길 46 자비암
기장 장관청(機張 將官廳)	제153호	1835년	기장군 읍내길 68번길 23~1
금동십일면관음보살좌상 (金銅十一面觀音菩薩坐像)	제154호	고려시대	부산대학교박물관
범어사 비로진(梵魚寺 毘盧殿)	제155호	1684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범어사 미륵전(梵魚寺 彌勒殿)	제156호	1887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금동관음보살좌상(金銅觀音菩薩坐像)	제157호	14세기	부산박물관
목조지장보살좌상(木造地藏菩薩坐像)	제158호	16세기	부산박물관
목조여래좌상(木造如來坐像)	제159호	17세기 전반	부산박물관
목조여래좌상(木造如來坐像)	제160호	18세기 후반	부산박물관
목조아미타여래좌상(木造阿彌陀如來坐像)	제161호	18세기 전반	부산박물관
동래무첨선생인(東萊武廳先生案)	제162호	1705년~ 19C 후반	동래구 수인동 동래기영회 인력동 충렬사관리사무소
경상좌수영선생인(慶尙左水營先生案)	제163호	1627년~ 18C 후반	동래구 충렬대로 345 충렬사관리사무소
다대진선생인(多大鎮先生案)	제164호	1627년 ~1894년	동래구 충렬대로 345 충렬사관리사무소
용적사 신중도(龍積寺 神衆圖)	제165호	1864년	강서구 한적로 41~56 용적사 금정구
훈몽자회 책판(蒙字會 冊板)	제166호	조선시대	부산대학교로63번길 2 부산대학교박물관
범어사 극락암 칠성도 (梵魚寺 極樂庵 七星圖)	제167호	1861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승자총통(勝字銘筒)	제168호	1583년	부산대학교로63번길 2 부산대학교박물관
고불사 목조여래좌상 (古佛寺 木造如來坐像)	제169호	조선후기	기장군 철마면 고촌로 28번길 77 고불사
청동북(青銅金鼓)	제170호	고려전기 ~중기	남구 유엔평화로 63 부산박물관
장안사 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	제171호	조선후기	기장군 정안읍 정안로 48(장안리, 장안사)
장안사 응진전 석조석가여래삼존상 복장물 일괄	제172호	조선시대	기장군 정안읍 장안로 48(장안리, 장안사)
범어사 원효암 목조관음보살좌상 복장을 일괄(梵魚寺 元曉庵 木造觀音菩薩坐像 復蓋物)	제173호	조선시대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감지금니묘법연화경(結紙金泥妙法蓮華經)	제174호	1276년	기장군 정안읍 죽천2길 46, A동 304호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삼층석탑(三層石塔)	제175호	통일신라시대 59~15	금정구 상현로 79번길
범어사 목조팔각불감 (梵魚寺 木造八角佛龕)	제176호	조선후기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설뫼탐진안씨분재기(立山耽津安氏分財記)	제177호	1650(효종2) 1681(숙종7) 1784(정조8)	부산대학교 박물관
범어사 삼불연(梵魚寺 三佛龕)	제178호	조선후기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몽산화상육도보설(蒙山和尚 六道普說)	제179호	1539년 (중종34)	수영구 수여로 497번 나길 25
원수명 가죽투구와 갑옷 어깨장식 (元帥名 皮胄 甲 肩韁)	제180호	18C 말~ 19C 전반 경	동아대 석당박물관
부산박물관 백자청화운룡문호 (白磁青畫雲龍文壺)	제181호	조선시대 18C	남구 유엔평화로 63 부산박물관
동아대학교 명현초상 일괄(名賢肖像一括)	제182호	19C	동아대 석당 박물관
해주도 병풍(海州圖 屏風)	제183호	조선시대 19C	동아대 석당 박물관
범어사 원효대사 진영(梵魚寺 元曉大師 眞影)	제184호	1863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시명대사 진영(梵魚寺 泗冥大師 眞影)	제185호	1863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고승 진영(梵魚寺 高僧 眞影)	제186호	조선시대 19C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민간호 필사본 일괄(閔建鶴 筆寫本 一括)	제187호	19C 말 ~20C 초	남구 유엔평화로 63 부산박물관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	제188호	1861년	부산대학교도서관
장안사 명부전 석조지장보살삼존 및 사원상 목간유물 (長安寺 明府殿 石造地藏菩薩三尊 및 十王像 腹藏遺物)	제189호	조선후기 17C 후반	기장군 장안읍 장안로 482
관음보살도 및 목제감(觀音菩薩圖) 및 木製龕	제190호	조선시대	부산박물관
의령 금란계안(宜寧 金蘭楔案)	제191호	17C 초 ~ 20C	부산대학교 도서관
벽자 달항아리(白磁 壺)	제192호	조선시대	수영구 수영로 481번길 17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전등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傳燈寺 造阿彌陀如來坐像)	제193호	18세기	동래구 동래로 215번길 22~13 전등사
나전합(蠟鉢函)	제194호	19세기	부산박물관
임오명 어피인장합(壬午銘 魚皮印章函)	제195호	1882년	부산박물관
어피인장합(魚皮印章函)	제196호	조선후기	부산박물관
해동용궁사 목조보살좌상 (海東龍宮寺 木造菩薩坐像)	제197호	16세기	기장군 기장을 시랑리 418~3번지
이덕형 초상 초본(李德馨 肖像 初本)	제198호	조선후기	동아대학교 박물관
도기 집모양 명기陶器 家形 明器)	제199호	삼국시대	정관박물관
한글조선전도(한글朝鮮全圖)	제200호	19세기	국립해양박물관
원오사 고분화상선요 (圓悟寺 高峰和尚禪要)	제201호	조선중기	해운대구 윗반송로 124~5 원오사
정선 필 청풍계지각(鄭敎 筆 清風溪池閣)	제202호	조선후기	동아대학교 박물관
법계성범수록승회수재의궤 (法界聖凡陸勝會水齋儀軌)	제203호	1558년	서구 대신공원로 32 (명종13)
김두량 필 삼설개금斗櫟 犬圖)	제204호	1743년 (영조8)	수영구 수영로 481번길 17
고불사 대장일람집 권7~10 (古佛寺 大藏一覽集 卷七~十)	제205호	13세기	기장군 철마면 고촌로 중염 28번길 77 고불사
고불사 불조역대통재 권1~12 (古佛寺 佛祖歷代通載 卷一~十二)	제206호	1576년 (선조9)	기장군 철마면 고촌로 28번길 77 고불사
고불사 불설대보부모은증경 (古佛寺 佛說大報父母恩重經)	제207호	1573년 (선조6)	기장군 철마면 고촌로 28번길 77 고불사
이원천 필 호도(李元禪 筆 虎圖)	제208호	조선후기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45 국립해양박물관
나전칠국화모란님줄무늬상자 (蠟鉢漆菊花牡丹唐草文箱子)	제209호	18세기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45 국립해양박물관
관세음보살42수진언집 (觀世音菩薩四十二手真言集)	제210호	1387년 (우왕13)	금정구 종암대로 1667번길
보광사 목조아미타여래삼존좌상 (普光寺 木造阿彌陀如來三尊坐像)	제211호	조선후기	동구 범선로 1번길 35 보광사
해운정사 심충석탑 (海雲精舍 三層石塔)	제212호	통일신라 40~6 해운정사	해운대구 우동2로 40~6 해운정사
총현주 필 산수도(洪顯周 筆 山水圖)	제213호	조선후기	서구 구덕로 225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제214호	1477년	강서구 낙동남로 754~16 수영역사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현수제승법수(賢首諸乘法數)	제214호	1500년	금정구 중앙대로 1667번길 8, 101-2004호, 해유
현수제승법수(賢首諸乘法數)	제216호	1500년	해운대구 대천로 103번길 61, 정충영
소총통(小銚筒)	제217호	1592년	금정구 부산대학교로 63번길 2, 부산대학교박물관
후대용 평면해시계(平面日影) (携帶用平面時計(平面日影))	제218호	1870년	서구 구역로 225 동아대학교 석당박물관
독례집요 목판(讀禮輯要 木板)	제219호	1909년	남구 유인봉화로 63 부산박물관

2)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수영농청놀이(水營農廳놀이)	민속놀이 (농요)	제2호	수영구 수영상로 42 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동래학춤(東萊鶴舞)	민속무용	제3호	동래구 우장준로 195-46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동래지신밟기(東萊地神밟기)	민속놀이	제4호	동래구 우장준로 195-46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충렬사제행(忠烈祠祭享)	제 의	제5호	동래구 충렬대로 345 충렬사인력서원
부산농악(釜山農樂)	농 악	제6호	서구 대신공원로 34-91 부산구민속예술보존협회
다대포후리소리	민속놀이 (어로요)	제7호	시하구 다대동로 12 다대포후리소리보존협회
가야금산조(伽倻琴散調)	기 악	제8호	동래구 우장준로 195-46 강태총류가야금산조보존회
부산영산재(釜山靈山齋)	불교의식	제9호	시성구 벽암대로 950번나길 80-42 부산영산재보존협회
동래고무(東萊鼓舞)	교방무용	제10호	동래구 우장준로 195-46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구덕망깨소리	민속놀이 (노동요)	제11호	서구 대신공원로 34-91 부산구덕민속예술보존협회
주성장(鑄成匠, 鑄鐘)	범종제작	제12호	기장군 정관면 용수공동1길 14 홍종사
사기정(沙器匠)	백자제작	제13호	기장군 일광면 기장대로 1201-20 심주요
동래한랑춤(東萊閑良舞)	민속무용	제14호	동래구 우장준로 195-46 부산민속예술보존협회
불화장(佛畫匠)	전통불화제작	제15호	북구 구남로 15번길 36
아쟁산조(牙箏散調)	기 악	제16호	동래구 온천장로 102
화해장(靴鞋匠)	전통신발제작	제17호	시하구 임남공원로 521번길 19
부산 고분도리걸립	민속놀이	제18호	서구 대신공원로 34-91 부산구덕민속예술보존협회
선희(禪)	선희제작	제19호	수영구 민락수변로 9-1 원각산원
목조각장(木影刻匠)	불상조각	제20호	강서구 신도전로 63 금강불교조각연구소
지연장(紙鳶匠)	동래 전통연재작 및 연날리기	제21호	동래구 우장준로 31번길 15-2
수영지신밟기	민속놀이	제22호	수영구 수영로 42 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부산 기장 오구굿	무 속	제23호	기장군 기장읍 차성로 436번길 28
전각장(篆刻匠)	전통전각제작	제24호	금정구 금생로 591
하단돛배 조선장(造船匠)	조선장	제25호	시하구 하단2동 낙동대로 575번길 삼경맨션 211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장각장(銅章刻匠)	동장각장	제26호	동장각장 달맞이 117번길 111, 502호

3) 기념물(記念物)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만덕사지(萬德寺址)	제3호	고려시대	북구 만덕동 30 일원
배산성지(盃山城址)	제4호	삼국시대	연제구 연산동 산38-1 일원
동래읍성지(東萊邑城址)	제5호	1731년	동래구 복천 안락동 일원
구포왜성(龜浦倭城)	제6호	1593년	북구 덕천동 510 일원
부산지성(釜山鎮城)	제7호	조선시대	동구 자성로 99 일원
경상좌수영성지(慶尙左水營城址)	제8호	조선시대	수영구 수영동 일원
윤공단(尹公壇)	제9호	1765년	시하구 윤공단로 112
정공단(鄭公壇)	제10호	1766년	동구 정공단로 23
송공단(宋公壇)	제11호	1742년	동래구 동래시장길 27
25의용단(二五義勇壇)	제12호	1853년	수영구 연수로379번길 42
임진동래의총(壬辰東萊義塚)	제13호	1731년	동래구 우장초로 155 (금강공원 내)
은정개간비(溫井改建碑)	제14호	1766년	동래구 금강로 124번길 23-17
금정산성 부설비(金井山城 復設碑)	제15호	1808년	금정구 금강로 217
내주죽성비(萊州築城碑)	제16호	1735년	동래구 복천동 3-2번지 일원
이조제찰비(統制制札碑)	제17호	1683년	부산박물관
척화비(斥和碑)	제18호	1871년	부산박물관
부신진성 서문 성곽우주석 (釜山鎮城 西門 城郭隅柱石)	제19호	조선시대	동구 범일동 321-29번지
정운공 순의비(鄭運公 素義碑)	제20호	1798년	시하구 대대동 산145(물운대 내)
동래 남문비(東萊 南門碑)	제21호	1688년	부산박물관
물운대(沒雲臺)	제27호	시하구 대대동 산144 일원	
신선대(神仙臺)	제29호	남구 용당동 산170 일원	
이설교비(利涉橋碑)	제33호	1694년	동래구 낙민동 86-2번지 온천천시민공원
천성진성(天城鎮城)	제34호	조선시대	강서구 천성동 1613 일원
가덕도 척화비(加德島 斥和碑)	제35호	1871년	강서구 천가길 335 전기초등학교
가덕도 동백군락(加德島 冬柏群落)	제36호	강서구 대봉동 산13-2 일원	
기장 아이봉수대(機張 阿爾烽燧臺)	제38호	조선시대	기장군 장안읍 효암리 산1-1 일원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기장항교(機張鄉校)	제39호	조선시대	기장군 기장을 차성로 41번길 35
기장읍성(機張邑城)	제40호	조선시대	기장군 기장을 동부·서부·대라리
기장 척화비(機張 斥和碑)	제41호	1871년	기장해안로 577 대변초등학교
노포동 고분군(老圃洞 古墳群)	제42호	삼국시대	금정구 노포동 142-1 일원
생곡동 가달고분군(生谷洞 加達古墳群)	제43호	삼국시대	강서구 생곡동 산86 일원
범방동 폐총(凡方洞 貝塚)	제44호	신석기시대	강서구 가락대로 929 부산경남경마공원
해운대 석각(海雲臺 石刻)	제45호	고려시대	해운대구 우1동 710-4
해운대 동백섬(海雲臺 冬柏섬)	제46호	해운대구 우1동 710 일원	
김해 죽도왜성(金海 竹島倭城)	제47호	1593년	강서구 죽림동 787 일원
기장 죽성리와성(機張 竹城里倭城)	제48호	1594년	기장군 기장을 죽성리 601 일원
구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산지점 (舊 東洋拓殖株式會社 釜山支店)	제49호	1929년	중구 대청로 104 부산근대역사관
기장 죽성리해송(機張 竹城里海松)	제50호	250~300년	기장군 기장을 죽성리 249
부산지방기상청(釜山地方氣象廳)	제51호	1934년	중구 복병산길32번길 5-11 남구 유엔평화로 63
사처석교비(四處石橋碑)	제52호	1781년	부산박물관
정과정 유적지(鄭平亭 遺蹟址)	제54호	고려시대	수영구 망미동 산7-29일원
부신진일신여학교 (釜山鎮日新女學校)	제55호	1905년	동구 정공단로17번길 17
영도대교(影島大橋)	제56호	1934년	중구 중앙동~영도구 대교동
망신도·유주암(望山島·維舟巖)	제57호	삼국시대	강서구 송정동 산188 일원
기장 동부리 회화나무	제58호	300년	기장군 기장을 읍내길68번길 23-1
기장산성(機張山城)	제59호	삼국시대	기장군 기장을 대리리, 서부리·칠마면 안평리 일원
가덕도 동백군락(加德島 冬柏群落)	제36호		강서구 대형동 산13-2 일원
동래부 동헌(東萊府 東軒)	제60호	조선후기	동래구 명륜로112번길 61 일원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동래향교(東萊鄉校)	제61호	1815년	동래구 동래로 103 일원
금정산 금샘(金井山 金井)	제62호		금정구 청룡동 산2-1
금곡동 올리 바위그늘유적 (金谷洞 栗里 鮫陰遺蹟)	제63호	신석기 말기	북구 금곡동 산24
총장공 전발(忠壯公 鄭撥 戰亡碑)	제64호	1761년	동구 청공단로 23(청공단 내)

4) 민속문화재(民俗文化財)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범어사 황실축원 장엄수 (梵魚寺 皇室祝願 莊嚴舡)	제1호	한 말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다대첨시영 갑주(多大僉使營 甲冑)	제2호	조선후기	동래구 충렬대로 345 충렬사기념관
동래영 갑주(東萊營 甲冑)	제3호	조선후기	동래구 충렬대로 345 충렬사기념관
동래영 구군복(東萊營 具軍服)	제4호	조선후기	동래구 충렬대로 345 충렬사기념관
장안사 연(長安寺 燭)	제5호	1760년	기장군 장안읍 장안로 482 장안사
장산 마고당·천제단 (長山 麻姑堂·天祭壇)	제6호	1924년중간	하운대구 우동 산 148-1
박기종 관복 일월(朴琪宗 官服 一括)	제7호	19세기 말	부산박물관
박기종 대례복 일월(朴琪宗 大禮服 一括)	제8호	20세기 초	부산박물관
박기종 통상복 일월(朴琪宗 通常服 一括)	제9호	20세기 초	부산박물관
장안사 명부전 삼번상 (長安寺 冥府殿 三幡床)	제10호	1748년	기장군 장안읍 장안로 482 장안사
장안사 응진전 법대경상 (長安寺 應真殿 法臺經床)	제11호	1706년	기장군 장안읍 장안로 482 장안사
해련사 동래부 인상(海蓮寺 東萊府 印床)	제12호	조선후기	영도구 벚꽃길 177 해련사
해련사 장엄의식구(海蓮寺 莊嚴儀式具)	제13호	조선후기	영도구 벚꽃길 177 해련사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소림사 오방幡(少林寺 五方幡)	제14호	조선말기 ~근대	동구 조량상로65번길 7 소림사
소림사 칠여래幡(少林寺 七如來幡)	제15호	조선말기 ~근대	동구 조량상로65번길 7 소림사
수영이류 탈	제16호	1964년	동아대학교박물관
범어사 목조(梵魚寺 木槽)	제17호	1757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오방幡(梵魚寺 五方幡)	제18호	조선말기~근대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농기(農旗)	제19호	1905년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45 국립해양박물관

5) 문화재자료(文化財資料)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반송 삼절사(盤松 三節祠)	제1호	1839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기장 남산봉수대(機張 南山烽燧臺)	제2호	조선시대	기장군 기장을 죽성리 신52번지
범어사 청동은입사 향완 (梵魚寺 青銅銀入絲 香盤)	제3호	1651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유제 대발(梵魚寺 鍮製 大鉢)	제4호	1825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대웅전 청동북 (梵魚寺 大雄殿 青銅金鼓)	제5호	1862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선방 축성폐(梵魚寺 碇房 祝聖牌)	제6호	한 말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옥련선원 마애지장보살좌상 (玉蓮禪院 磨崖地藏菩薩坐像)	제7호	조선후기	수영구 광남로257번길 58 옥련선원
동래부사 유심 선정비 (東萊府使 柳沈 善政碑)	제8호	1651년	남구 유엔평화로 63 부산박물관
혜원정사 팔상도(慧苑精舍 八相圖)	제9호	1925년	연제구 고분로68번길 47 혜원정사
범어사 아미타극락회상도 (梵魚寺 阿彌陀極樂樂會上圖)	제10호	1860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범어사 청풍당 아미타극락회상도 (梵魚寺 清風堂 阿彌陀極樂會上圖)	제11호	1860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아미타이십육보살도 (梵魚寺 阿彌陀二十六菩薩圖)	제12호	1887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빠로나불화도 (梵魚寺 普盧遮那佛會圖)	제13호	18세기 ~19세기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칠성도(梵魚寺 七星圖)	제14호	1891년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마하사 영산회상도(摩訶寺 靈山會上圖)	제15호	1906년	연제구 봉수로 138 마하사
마하사 응진전 영산회상도 (摩訶寺 應真殿 靈山會上圖)	제16호	1910년	연제구 봉수로 138 마하사
마하사 응진전 16나한도 (摩訶寺 應真殿 十六羅漢圖)	제17호	1910년	연제구 봉수로 138 마하사
마하사 대웅전 석조석가여래삼존상 (摩訶寺 大雄殿 石造釋迦如來三尊像)	제18호	조선후기	연제구 봉수로 138 마하사
마하사 응진전 목조석가여래좌상 (摩訶寺 木造釋迦如來坐像)	제19호	조선후기	연제구 봉수로 138 마하사
마하사 응진전 석조나한상 (摩訶寺 應真殿 石造羅漢像)	제20호	조선후기	연제구 봉수로 138 마하사
범어사 목조사방삼보자존파 (梵魚寺 木造十方三寶慈壽牌)	제21호	조선후기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목조석가여래위파 (梵魚寺 木造釋迦如來位牌)	제22호	조선후기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목조옴마니반매홀洙箇	제23호	조선후기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목제어피인통 (梵魚寺 木製魚皮印)	제24호	조선후기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연(梵魚寺 輩)	제25호	조선후기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비라(梵魚寺 饒欵)	제26호	조선후기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선암사 패불령(仙巖寺 掛佛幘)	제27호	1926년	부산진구 백양산로 138 선암사
변관식 필 영도교(卞寔植 筆 影島橋)	제28호	1948년	서구 구덕로 225 동아대학교박물관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안적사 지장시왕도 (安寂寺 地藏十二王圖)	제29호	1919년	기장군 기장을 내리길 461-16 안적사 (범어사성보박물관 위탁보관)
안적사 아미타극락회상도 (安寂寺 阿彌陀極樂會上圖)	제30호	1874년	기장군 기장을 내리길 461-16 안적사 (범어사성보박물관 위탁보관)
대원사 독성도(大願寺 獨聖圖)	제31호	19세기	부산진구 가야공원로 110 대원사
미인도(美人圖)	제32호	한 말	서구 구덕로 225 동아대학교박물관
연등사 영산회상도(燃燈寺 靈山會上圖)	제33호	1924년	동구 좌천동로 17-3 연등사
청량사 영산회상도(淸涼寺 靈山會上圖)	제34호	1918년	강서구 제도로 29 청량사
복천사 영산회상도(福泉寺 靈山會上圖)	제35호	1921년	영도구 산정길 41 복천사
금정진 관아터(金井鎮 官衙址)	제36호	조선후기	금정구 금성동 280 일원
선암사 청동북(仙巖寺 青銅金鼓)	제37호	조선후기	부산진구 백양산로 138 선암사 (범어사성보박물관 위탁보관)
복천사 독성도 및 복장유물 (福泉寺 獨聖圖 및 腹藏遺物)	제38호	1892년	영도구 산정길 41 복천사
복천사 현왕도 및 복장유물 (福泉寺 現王圖 및 腹藏遺物)	제39호	근 대	영도구 산정길 41 복천사
동래부산도병(東萊釜山圖屏)	제40호	1905년 경	남구 유엔평화로 63 부산박물관
척판암 석조여래좌상(鷲板庵 石造如來坐像)	제41호	조선후기	기장군 장인읍 장인로 490-156 척판암
묘관음사 오여래탱(妙觀音寺 五如來幘)	제42호	조선후기	기장군 장인읍 해맞이로 253-38 묘관음사
운수사 아미타삼존도 (雲水寺 阿彌陀三尊圖)	제43호	1907년	사상구 모라로 210번길 173 운수사
국청사 금정산성승장인 (國清寺 金井山城僧將印)	제44호	조선후기	금정구 북문로 42 국청사 (범어사성보박물관 위탁보관)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범어사 수복문 병풍 (梵魚寺 刺繡 壽福文 屏風)	제45호	조선말기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묘관음사 불자(妙觀音寺 拂子)	제46호	조선말기~일제강점기	기장군 성안읍 범맞이로 253-38 묘관음사
범어사 내원암 석조보살좌상 (梵魚寺 內院庵 石造菩薩坐像)	제48호	조선후기 (19세기)	금정구 범어사로 248 내원암
복천사 석조석가여래 및 보살좌상 (福泉寺 石造釋迦如來 및 菩薩坐像)	제49호	1922년	영도구 신정길 41 보천사
관음정사 석존상(觀音精舍 石尊像)	제50호	조선시대	해운대구 재반로 282번길 113 관음정사
교린수지(交隣須知)	제51호	1881년	부산진구 월드컵대로 462 부산시립서민도서관
석조여래좌상(石造如來坐像)	제52호	1892년	금정구 종양대로 2104 금정중학교
선암사 삼층석탑(仙巖寺 三層石塔)	제53호	고려시대	부산진구 백양산로 138 선암사
쌍구장경호(雙口長頸壺)	제54호	삼국시대	동아대학교박물관
마문장경호(馬文長頸壺)	제55호	삼국시대	동아대학교박물관
전 이순신 초상(傳 李舜臣 肖像)	제56호	조선말기	동아대학교박물관
범어사 고라삼층석탑 (梵魚寺 高麗三層石塔)	제57호	고려초기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신흥사 치성광심존도 (新興寺 燔盛光三尊圖)	제58호	1885년	부산진구 가야공원로 77-20 신흥사
용적사 독성도(龍積寺 獨聖圖)	제59호	1909년	강서구 한작로 41-56 용적사
관음사 모법연화경(觀音寺 妙法蓮華經)	제60호	15세기 전반	사하구 제석로 79번길 33 관음사
백련사 석조여래좌상(白蓮寺 石造如來坐像)	제61호	1906년	남구 이기대공원로 85-74 백련사
취정사 석조여래좌상(鶴井寺 石造如來坐像)	제62호	18세기	기장군 일광면 상곡길 55 취정사
기장향교 풍화루(機張鄕校 風化樓)	제63호	1885년 중건	기장군 기장을 차성로 417번길 35 기장향교
홍제사 보광암명 범종 (弘濟寺 寶光庵銘 梵鍾)	제64호	1935년	부산진구 진남로 304번길 34 홍제사
동래향교 반화루(東萊鄕校 攀華樓)	제65호	1815년	동래구 동래로 103 동래향교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안심사 삼세불회도(安心寺 三世佛會圖)	제66호	1879년	북구 공해4길 98-100 안심사
원각사 현왕도(圓覺寺 現王圖)	제67호	19세기	해운대구 장산로 427-291 원각사
승학사 석조여래좌상 (乘鶴寺 石造如來坐像)	제68호	18세기	사상구 학감대로 49번길 54-36 승학사
원각사 현왕도(圓覺寺 現王圖)	제69호	19세기	해운대구 장산로 427-291 원각사
승학사 석조여래좌상 (乘鶴寺 石造如來坐像)	제70호	18세기	사상구 학감대로 49번길 54-36 승학사
금강사 도법연화경(金剛寺 妙法蓮華經)	제71호	1646년	동래구 우장춘로 211 금강사
구 한국은행 부산본부 (舊 韓國銀行 釜山本部)	제72호	1963년	중구 대청로 112
삼강형실도(三綱行實圖)	제73호	17세기 ~18세기	부산대학교도서관
광포도(廣浦圖)	제74호	1573년	동아대학교박물관
고불사 선종영가집(古佛寺 禪宗永嘉集)	제75호	1575년	기장군 철미면 고촌로 28번길 77 고불사
대해보각선사서(大慧普覺禪師書)	제76호	조선시대	남구 이기대공원로 85-74 백련사
백련사 고려사(白蓮寺 高麗史)	제77호	19세기 말 ~20세기 초	금정구 상아길 26 시지암
범어사 사자암 칠성도 (梵魚寺 獅子庵 七星圖)	제78호	1636년	해운대구 우동2로 40-6 해운정사
해운정사 선문염송집 (海雲精舍 篡門拈頌集)	제79호	1647년	해운대구 우동2로 40-6 해운정사
동림사 모법연화경 卷4-7 (東林寺 妙法蓮華經 卷四七)	제80호	1531년	기장군 기장을 기장대로 143-12 동림사
거제선생안(巨濟先生案)	제81호	1751년 ~1904년	부산대학교도서관
한중일관계사료초(韓中日關係史料抄)	제82호	1926년 ~1927년	부산대학교도서관
실상사 신중도(實相寺 神衆圖)	제83호	1929년	동구 수정로 68번길 7 실상사
실상사 칠성도(實相寺 七星圖)	제84호	1929년	동구 수정로 68번길 7 실상사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금산사 산신도(金山寺 山神圖)	제85호	1856년	기장군 장안읍 신리길 17~37 금산사
석조석가여래좌상(石造釋迦如來坐像)	제86호	근대	부산대학교박물관
대성사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언해) [大成寺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解)]	제87호	조선중기	서구 옥천로 141~22 대성사
구 부산 임시축우소 청사 [舊 釜山 臨時畜貯所 廳舍]	제88호	1905년	중구 흑교로 59번길 16~4
용적사 산신도(龍積寺 山神圖)	제89호	1909년	강서구 한적로 41~56 용적사
옥정사 지장시왕도(玉井寺 地藏十王圖)	제90호	1924년	기장군 일광면 달음길 101 옥정사
옥정사 신중도(玉井寺 神衆圖)	제91호	1924년	기장군 일광면 달음길 101 옥정사
옥정사 칠성도(玉井寺 七星圖)	제92호	1924년	기장군 일광면 달음길 101 옥정사
법망경노사나불설보살심지개품			
제신경하 (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 第十卷下)	제93호	고려후기 ~조선전기	기장군 일광면 성곡길 55
범어사 왕비전하수제연폐 (梵魚寺王妃殿下壽齊年牌)	제94호	조선후기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세자자지하수전주폐 (梵魚寺世子低下壽千秋牌)	제95호	조선후기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유제로(梵魚寺 翁製爐)	제96호	조선후기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청수관(梵魚寺 清水罐)	제97호	근대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기장 지장암 칠성도 (機張 地藏庵 七星圖)	제98호	1930년대	기장군 철마면 임기리 산 166~1 지장암
국립해양박물관 백지칠희운릉문호 (國立海洋博物館 白磁鐵畫雲龍文壺)	제99호	17세기 ~18세기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45 국립해양박물관
범어사 영탱(梵魚寺 影頌)	제100호	조선후기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현김당 묘진대사 진영 (梵魚寺 玄鑑堂 妙全大師 真影)	제101호	조선후기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석조(梵魚寺 石槽)	제102호	조선후기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문화재명	지정번호	시대	소재지
연등사 석조지장보살좌상 (燃燈寺 石造地藏菩薩坐像)	제103호	조선후기	동구 좌천동로 17~3 연등사
범어사 나한전 석가모니불회도 (梵魚寺 羅漢殿 積迦牟尼佛會圖)	제104호	1905 (광무9)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나한전 십육나한도 (梵魚寺 羅漢殿 十六羅漢圖)	제105호	1905 (광무9)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범어사 팔상전 석가모니불회도 (梵魚寺 八相殿 積迦牟尼佛會圖)	제106호	1905 (광무9)	금정구 범어사로 250 범어사
미륵사 불설대보부모은중경 (彌勒寺 說大報父母恩重經)	제107호	17세기	북구 백양대로 1016번길 71 미륵사
조행일록(潛行日錄)	제108호	1862~1863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45 국립해양박물관
죽천이(公行蹟錄) (竹泉李公行蹟錄)	제109호	17세기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45 국립해양박물관
청량사 예념미타도랑침법 권6~10 (淸涼寺 禮念彌陀道場懶法 卷六~十)	제110호	조선후기	기장군 철마면 임부길 12 청량사
고불사 권수정혜결사문 (古佛寺 勸修定慧結社文)	제111호	1608년 (선조41)	기장군 철마면 고촌로 28번길 77 고불사
회명사 묘법연화경 권1 (晦明寺 妙法蓮華經 卷一)	제112호	1568년 (선조1)	금정구 금샘로 17번 안길 41 회명사
박주부 초상 (朴主薄 肖像)	제113호	조선후기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45 국립해양박물관
현수제승법수 (賢首諸乘法數)	제114호	1500년	부산진구 가야공원로 110, 대원사
법어(法語)	제115호	1577년	해운대구 대천로 103번길 61
법집별행록절오법임사기 (法集別行錄節 오법임사기)	제116호	1486년	사상구 주례로 93



〈1872년 지방지도 경상도 경상좌수영영지도형〉

수영
역사
문화
탐방

참 / 고 / 문 / 현

항도부산 제7호(부산시사편찬위원회, 1969)
부산시사 제1권(부산직할시사사편찬위원회, 1989)
부산의 내력(부산직할시, 1989)
경상좌수영성지 학술조사보고서(부산대학교 한국문화연구소, 1990)
남구지(부산광역시 남구, 1994)
수영 전통문화재(수영고적민속예술보존협회, 1997)
부산지명총람 제6권(부산광역시사사편찬위원회, 2000)
수영의 민속과 문화(부산광역시 수영구, 2005)
부산의 문화재(부산광역시, 2006)
그외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등 관련자료

2000年 12月 31日 初版 發行
2021年 11月 30日 改訂版 12차發行
발 행 부산광역시 수영구청
편 집 문화관광과 (문화예술담당)
인쇄 한글그라픽스
051)610-4063, FAX, 610-4069
051)632-7842, FAX, 639-0305
사진출처 수영성문화마을, 비짓부산 홈페이지,
수영구 SNS서포터즈 이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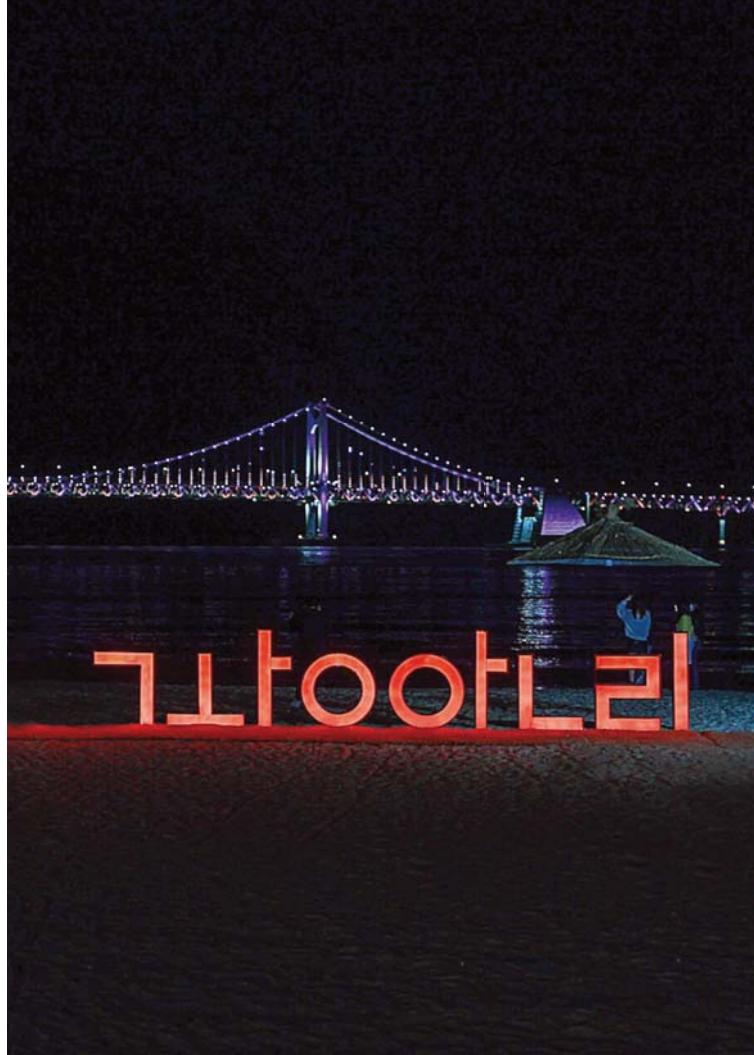
이 책은 수영구와 관련이 있는 자료를 별도로 발췌하여
수영구 문화관광과에서 재편집한 것입니다.

행정간행물 등록번호 : 26500-86100-37-0005

〈비매품〉



안녕,



구포여행